

국립국어원 2016-01-25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

연구 책임자 전상훈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6년 4월 25일 ~ 2016년 12월 10일

2016년 12월 10일

연구 책임자: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수행 기관 (주)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연구 책임자 전상훈

공동 연구원 고영무, 박지훈, 김봉구, 박진은

연구 보조원 윤은지, 유예니, 구교인, 한소정

[국 문 초 록]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 사업은 2010년부터 개발한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과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10종)을 2016년 10월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하여 홍보 전략 수립 및 개통 행사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의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 요점, 홍보 방향, 단계별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요점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자 간담회 개최

(2)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 행사 개최

- 《우리말샘》 개통식 행사 기획 및 운영, 참석자 관리, 홍보물 제작 등

(3)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물 제작

- 《우리말샘》 개통 홍보 영상 제작, 각 사전별 사용자 설명 영상 제작
- 각 사전별 홍보 소책자 제작(국문, 영문), 누리소통망(SNS) 카드뉴스 제작

(4) 국어사전 진흥 행사 개최

- 공모전 운영 및 관리, 홍보 진행
-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 기획 및 개최, 운영

(5)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백서 제작

-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백서 제작

핵심어: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Abstract]

'2016 Project to Promote Open and Integrate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is aimed to build business strategy and host opening event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dictionary 《Urimalsaem》 which is operated by user's participation and has been developed since 2010, a learner's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Basic Korean Dictionary》 and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Korean-Foreign Language Learners' Dictionary》 in October 2016.

The research team has carried out the following tasks:

- (1) Establish a strategy for promoting the open and integrate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 Analyze the promotional environment, set the points of focus and directions of promotion, and establish promotional strategies by phases
 - Hold meetings of the advisory committee consisting of relevant experts to select the points of focus and meet with journalists
- (2) Hold an event to launch the open and integrate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 Plan and operate the event for launching Urimalsaem, take care of participants, and make promotional materials, etc.
- (3) Make promotional materials for the open and integrate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 Make a promotional video for promoting the launch of Urimalsaem, make a video for each dictionary that shows learners how to use it
 - Make promotional brochures for each dictionary (Korean and English versions), SNS Contents
- (4) Hold events to promote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 Operate, manage, and promote a related contest
 - Plan and organize an award ceremony and exhibitions related to the contest
- (5) Publish a white paper on the open and integrate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 About Urimalsaem, the Basic Korean Dictionary,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Korean-Foreign Language Learners' Dictionary

Keywords: Urimalsaem, Basic Korean Dictiona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Korean-Foreign Language Learners' Dictionary.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 사업 요약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 사업은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등의 사전 개통(2016년 10월 5일)을 전후하여, 사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개통 행사 개최 등의 제반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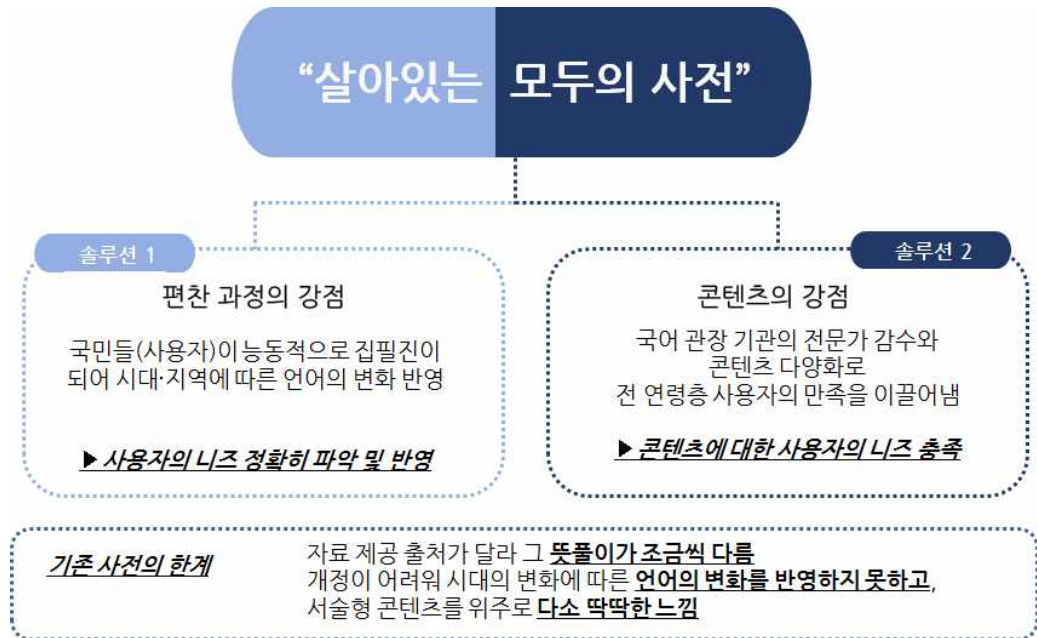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사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개통을 전후하여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개통 행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개통 이후 단계적 홍보 행사를 추진하여 어휘 등록, 뜻풀이 수정 등 《우리말샘》의 참여를 독려하고, 각 사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홍보 전략 수립

《우리말샘》의 홍보 요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모두의 사전”으로,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홍보 요점은 “한국 문화가 담긴 한국어 학습의 필수 사전”으로 설정하였다. 홍보 전략은 개통 전, 개통, 개통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설정하였다. 개통 이전에는 언론의 관심이 《우리말샘》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슈화하고, 개통 시점에는 직·간접 체험을 통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며, 개통 이후에는 사전 사용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 《우리말샘》 홍보 요점



□ 《한국어기초사전》·《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홍보 요점

(주요 요점) 한국어 학습의 **‘시작’**, 한국어기초사전
(보조 요점) ‘나’와 ‘한국’을 잇는 친절한 선생님,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기존 **‘정확성’**과 **‘실용성’**을 보완해 사용자와 ‘우리말’,
더 나아가 ‘우리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역 전문가, 현지 언어 전문가가 포함된 60명의 전문가가 제작 ✓ 5만개의 빈출 단어를 선별하여 수록 ✓ 개방적 시스템으로 어휘 변화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문 수록 ✓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지원 ✓ ‘우리말샘’과의 교차기능으로 사용의 편의성 증대 |
|--|---|

□ 홍보 단계별 전략



□ 기자 간담회

- 일시/장소: 2016년 9월 28일(수) 10:30~13:00 / 서울 정부청사 별관 203호
- 참석: 언론 매체 문화체육관광부 출입처 기자 20여명
 - KBS, 연합뉴스TV, 채널A, 연합뉴스,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 11개 매체
 - 관계자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연구관, 홍보담당관, 국립국어원장, 어문연구실장, 언어정보과장, 담당연구관 및 연구사
- 주요 내용: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 소개(사전 개요 및 시연, 운영 계획 등) 및 개통식 홍보
- 주요 언론 보도(총 39건 보도)
 - 방송(6건), 지면 신문(10건), 인터넷 신문(23건)

(2) 《우리말샘》 개통 행사 개최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식은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이란 제목으로 2016년 10월 5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비롯한 국립국어원장, 8개 유관기관장,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통식에서는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전 소개 및 시연,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 한글 멋글씨 공연,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 일시/장소: 2016. 10. 5.(수) 14:00~16:0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 문체부 제1차관, 유관기관장(8명), 부내 인사, 언론사(10개 매체),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50명 등 총 250여 명
- 내용: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 개통 및 소개,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구분		시간	내용
식전	참가자 등록	13:30~14:00 (30')	참가자 입장
	간담회	13:40~13:57 (17')	주요 인사 간담회
	주요 인사 입장	13:57~14:00 (03')	주요 인사 입장
1부	개회	14:00~14:01 (01')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국민의례	14:01~14:04 (03')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1절
	주요 인사 소개	14:04~14:07 (03')	주요 인사 소개
	개회사	14:07~14:11 (04')	국립국어원장
	축사	14:11~14:16 (05')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진화하는 사전	14:16~14:21 (05')	홍보 영상 상영
	어휘 등록 시연	14:21~14:25 (04')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
	개통식 공연	14:25~14:42 (17')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공연
	기념 촬영	14:42~14:45 (03')	한글 멋글씨 뒤에서 기념 촬영
	휴식	14:45~15:00 (15')	휴식
2부	사전 시연	15:00~15:15 (15')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시연
	질의응답	15:15~15:25 (10')	참가자 질의응답
	시상식	15:25~15:50 (25')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폐회	15:50~16:00 (10')	폐회 및 참가자 퇴장

《우리말샘》개통식 진행 순서

□ 《우리말샘》 개통 언론 홍보

- 개통식 주요 언론 보도(총 88건 보도)
 - 방송 (10건), 지면 신문 (23건), 인터넷신문 (55건)
- SBS 모닝와이드(방송)

일시	10. 10.(월) 7:30~8:30 (SBS 모닝와이드 3부)
제목/분량	언어소통, 제대로 하고 있나요 / 4분 02초
내용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소개, 개통식 소개

《우리말샘》 개통식 SBS 모닝와이드 언론홍보



- MBC 우리말나들이(방송)

일시	10. 6.(목)~7.(금) / 10:55~10:56, 16:55~16:56
내용/분량	1부: 《우리말샘》 소개(특징) / 1분 2부: 《우리말샘》 활용(검색, 집필 참여) / 1분

《우리말샘》 개통식 MBC 우리말나들이 언론홍보



(3)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홍보 영상과 홍보 소책자, 누리소통망(SNS)·온라인 콘텐츠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홍보 영상으로는 《우리말샘》 등 사전 개통 홍보 영상 1편과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2종의 사용자 설명 영상 한국어판과 영어판 총 4편, 유튜브를 이용해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이럴 영상 1편을 제작하였다. 홍보 소책자도 사전별 2종으로 제작하고, 각 소책자를 영어로 번역하여 총 4종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사전에 참여하고, 사전에 대한 소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했다.

□ 홍보 동영상

○ 《우리말샘》 개통 홍보 영상

내용	《우리말샘》 탄생 배경과 의의, 주요 특징과 사용자 반응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설명
분량	5분 5초

《우리말샘》 개통 홍보 영상 개요



○ 사용자 설명 영상(총 4종)

내용	- 《우리말샘》 사용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분량	각 6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사용자 설명 영상



○ 바이럴 영상

내용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소개
분량	1분 7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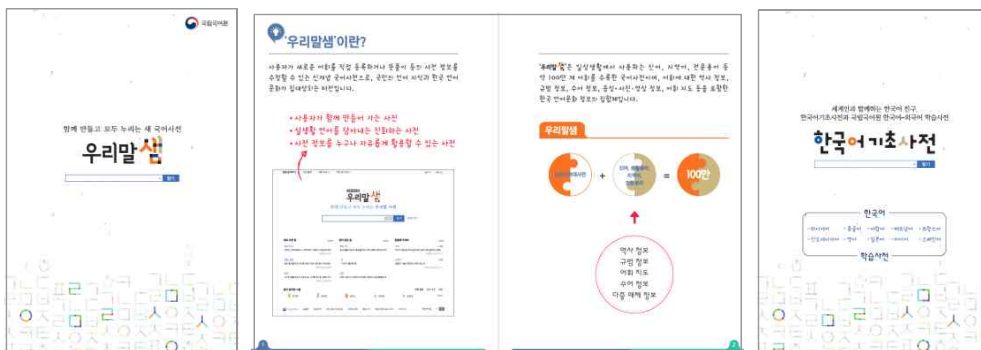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바이럴 영상



□ 홍보 소책자(총 4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샘》에 대한 특징과 장점 소개, 사용법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특징과 장점 소개 및 사용법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부수 (총 4,00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샘》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1000부), 영어판(800부)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1000부), 영어판(900부) -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합본 홍보 소책자: 300부(개통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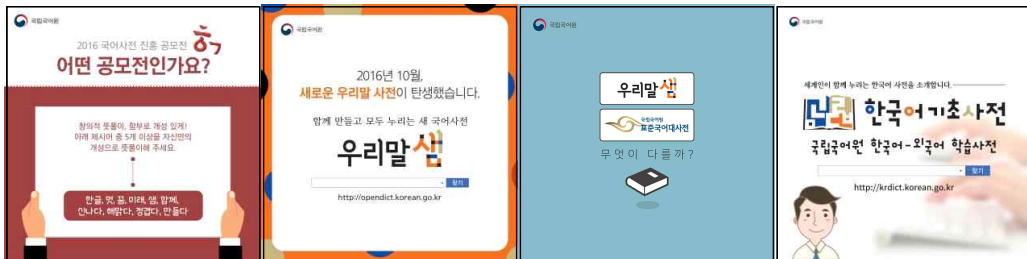
홍보 소책자 내용 및 제작 부수



□ 누리소통망(SNS) 카드뉴스 제작

○ 카드뉴스 (‘쉽표, 마침표.’ 페이스북 페이지 탑재)

- 1차: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 인가요?
- 2차: 《우리말샘》이 어떤 사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3차: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두 사전은 무엇이 다를까요?
- 4차: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어떤 사전인지 알아볼까요?



□ 누리소통망(SNS)·온라인 행사

(페이스북 페이지 탑재, 《우리말샘》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

1차	10. 5~10. 12.	《우리말샘》개통 축하 글 남기기
	조회: 7,778명	참여: 2,147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2차	10. 14~10. 23.	《우리말샘》사용 인증 사진 남기기
	조회: 51,193명	참여: 1,14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3차	10. 20~11. 20.	《우리말샘》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하기
	조회: 69,392명	참여: 1,284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행사 내용 및 결과

□ 누리소통망(SNS) 광고

(『섬표, 마침표.』 페이스북 페이지)

1차 광고 (7.29.~8.5.)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소개 (카드뉴스 홍보 광고)	조회: 107,646명
		참여: 7,71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2차 광고 (10.14.~10.20.)	《우리말샘》 소개 (카드뉴스 홍보 광고)	조회: 156,827명
		참여: 1,56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3차 광고 (10.14.~10.18.)	《우리말샘》 사용 인증 사진 남기기 (행사 참여 홍보 광고)	조회: 156,827명
		참여: 1,56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4차 광고 (10.20.~10.26.)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차이 안내 (카드뉴스 홍보 광고)	조회: 168,736명
		참여: 522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5차 광고 (10.21.~10.26.)	《우리말샘》 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하기 (행사 참여 홍보 광고)	조회: 69,392명
		참여: 103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6차 광고 (10.28.~10.31.)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 소개 (카드뉴스 홍보 광고)	조회: 162,556명
		참여: 586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누리소통망(SNS) 광고 집행 내용 및 결과

(4)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개최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는 크게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과 시상식·수상작 전시회로 구분하여 준비하였다. 공모전은 제시어 10개 중 5개 이상을 창의적으로 뜻풀이하는 내용으로,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300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점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10월 5일 《우리말샘》 개통식의 2부 행사로 치러졌다. 그리고 전시회는 총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10월 5일 개통식장에서 실내 전시를 진행했으며,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6 한글문화큰잔치 행사의 일부로 개최되었다.

□ 전문가 간담회

- 1차 전문가 간담회(국어사전 진흥 행사 기획 자문)
 - 2016년 4월 26일(화) 오후 14:00~16:00 / 국립국어원
 - 공모전 주제: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말 사전”



○ 2차 전문가 자문(공모전 추진위원회)

- 2016년 4월 27일 ~ 5월 18일
-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공모전 주제에 부합한 어휘 3~5개 제안

○ 3차 전문가 자문회의(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심사)

- 2016년 8월 19일(금) 14:00~18:00 / 국립국어원 3층 회의실
- 총 18점 선정

□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주최/주관: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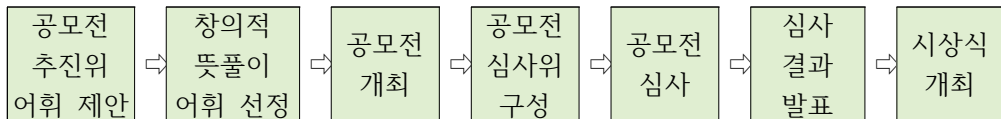
○ 주요 행사 내용

구분	일시	장소	내용	비고
공모전	6. 13. ~8. 15.	온·오프라인 공모	창의적 뜻풀이 (10개 제시어)	
시상식	10. 5.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수상자 16명(팀) (장관상 1명/ 원장상 15명)	《우리말샘》개통 행사의 일부로 진행
전시회	10. 9.	1차: 《우리말샘》개통식장 2차: 2016한글문화큰잔치 (광화문광장)	수상작 16점 (대상~단체상)	한글 주간 행사의 일부로 진행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내용

□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 운영

○ 공모전 운영 단계



○ 공모전 접수 결과: 총 1,300점(단체 255점, 개인 1,045점)

○ 공모전 수상작(대표: 대상 수상 작품)

한글	인간과 자연의 이치가 뿌리 깊이 아로새겨진 우리 고유의 문자로, 한국인의 얼과 생각의 터전을 다지는 소중한 벗.
미래	오늘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때.
샘	힘의 시작점으로부터 솟아나와 온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보배로운 생명의 요람.
함께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난 든든한 마음결이 어우러져
만들다	어렵스러운 생각의 밑그림에 살을 붙여, 생동하는 실체로 세상에 내놓다.

○ 공모전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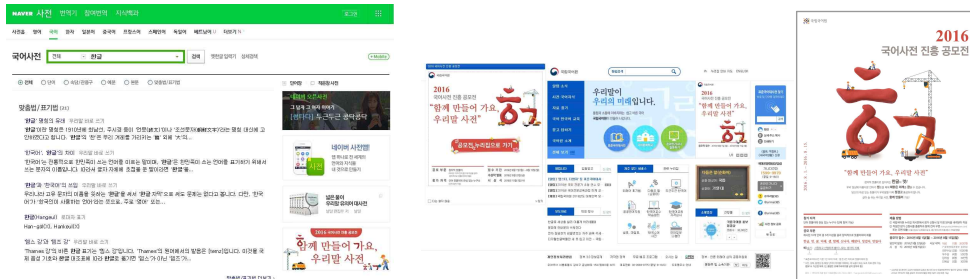
- KBS 우리말 겨루기 (2회)

퀴즈 문제(2015년 창의적 뜻풀이)를 통한 공모전 홍보



- 인터넷·SNS 홍보

네이버 사전 우측 웹 배너, 페이스북 카드뉴스 및 광고



□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운영

○ 전시회 개요

- 일시/장소: (1차) 2016. 10. 5.(수) / 《우리말샘》 개통식(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2차) 2016. 10. 9.(일) / 2016 한글문화큰잔치(광화문 북측 광장)

- 전시 내용: 공모전 수상작 18점

- 추진 방향: ① 한글날 당일 이루어지는 전시회로 새롭고 의미 있는 디자인 부스 구성

② 국어 문장의 부호 중 하나인 [대괄호]를 사용.

③ ‘창의적인 뜻풀이를 담다’를 포괄적인 형태의 이미지로 형상화

- 전시 디자인 방향: 창의적 뜻풀이를 [대괄호]에 담다.

○ 수상작 전시물



○ 전시회 현장 운영

- 유동 인구가 많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활용, 약 2,000여명 관람



(5) 백서 제작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된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편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였다.

목 차

국문 초록	1
영문 초록	3
요약 보고서	5
1. 홍보 전략 수립	15
홍보 전략	15
전문가 간담회	19
기자 간담회	21
2. 《우리말샘》 개통 행사 개최	36
행사 개요	36
주요 인사 사전 간담회	38
참가자 등록	39
개통식 1부	40
개통식 2부	43
동선 및 자리 배치	46
홍보 제작물	48
개통식 시스템 장비 운영	54
《우리말샘》 개통 언론 홍보	55
3. 홍보물 제작	87
홍보 영상	87
홍보 소책자	98
누리소통망(SNS)·온라인 콘텐츠	100

4.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개최	115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115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 운영	116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운영	132
5. 백서 제작	140
백서	140
6. 홍보 정책 제언	141
<붙임 1> 보도자료: 《우리말샘》 개통	143
<붙임 2> 보도자료: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공모전 개최	147
<붙임 3> 보도자료: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 수상 발표	150
<붙임 4> 《우리말샘》 개통식 시나리오	15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홍보

1

홍보 전략 수립

□ 사업 배경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 유통이 급속히 증가하고, 우리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출간된 종이 사전으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말 정보를 제때 담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말을 제 모습대로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국립국어원은 2010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말 사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신개념 국어사전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편찬 과정을 거쳐, 2016년 10월 5일에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과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 10개 외국어의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등 총 3종 12개 사전을 개통하였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을 앞두고, 3종 12개 사전의 성공적인 개통과 지속적인 사용자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개통 행사 개최 등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 사업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사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개통을 전후하여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개통 행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개통 이후 단계적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국민이 어휘 등록, 뜻풀이 수정 등 《우리말샘》에 활발히 참여하고 각 사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사전별 홍보 요점

○ 《우리말샘》

- 주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모두의 사전

- 홍보 전략

- ①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종이 사전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문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② 국민들(사용자)이 능동적으로 사전 집필에 참여하고, 세대별·지역별 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매일 진화하는 사전이야말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전 형식임을 나타낸다.
- ③ 기존의 사용자 참여형 사전과 달리, 국민이 등록·수정한 정보를 국립국어원의 전문가가 직접 감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닌 사전임을 강조한다.

- 사전의 특징

- ① 실생활어 사전: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지역어, 전문용어 등 다양한 실생활어 100만 항목을 수록한 사전으로 세대와 지역, 직종을 아우르는 소통의 도구가 될 것이다.
- ② 국민 참여형 사전: 누구나 어휘를 등록하고, 뜻을풀이를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웹사전이며, 축적된 사전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이다.
- ③ 한국어 지식 사전: 뜻을풀이 등의 기본적인 사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언어문화 정보(국어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음성·사진·영상 자료, 수어 정보, 어휘 지도 등)을 총망라한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다.
- ④ 진화하는 사전: 사회·언어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등록된 정보가 집단 지성을 통해 수정되는 사전으로, 변화하는 우리말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진화하는 사전이다.

○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 주제: 한국 문화가 담긴 한국어 학습의 필수 사전

- 홍보 전략

- ① “한국어 학습 시작”을 주제로 하여 ‘나와 ‘대한민국’을 잇는 친절한 선생님을 주제로 한다.
- ②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정보는 물론 한국 언어문화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제시한 사전이다.
- ③ 개통 이전에는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이슈화하고, 개통 시점에는 사전 성격 설명에 중점을 두고, 개통식 이후에는 사전 사용 확산에 중점을 두어 홍보한다.

- 《한국어기초사전》의 특징

- ① 학습자 맞춤 사전: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 어휘 5만 항목을 수록하고, 쉬운 뜻풀이와 실생활 예문 등을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의 필수 사전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 ② 학습용 자료 사전: 표제어에 한국어 수준별 어휘 등급을 표시하고, 다양한 다중 매체 자료(삽화, 사진, 동영상, 발음) 등 한국어 교수 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 ③ 웹사전: 언제 어디서나 사전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④ 고효율 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기반이 되는 사전으로, 현재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일본어, 타이어, 스페인어 등 10개 외국어로 번역되었으며, 2018년에는 중국어로도 번역되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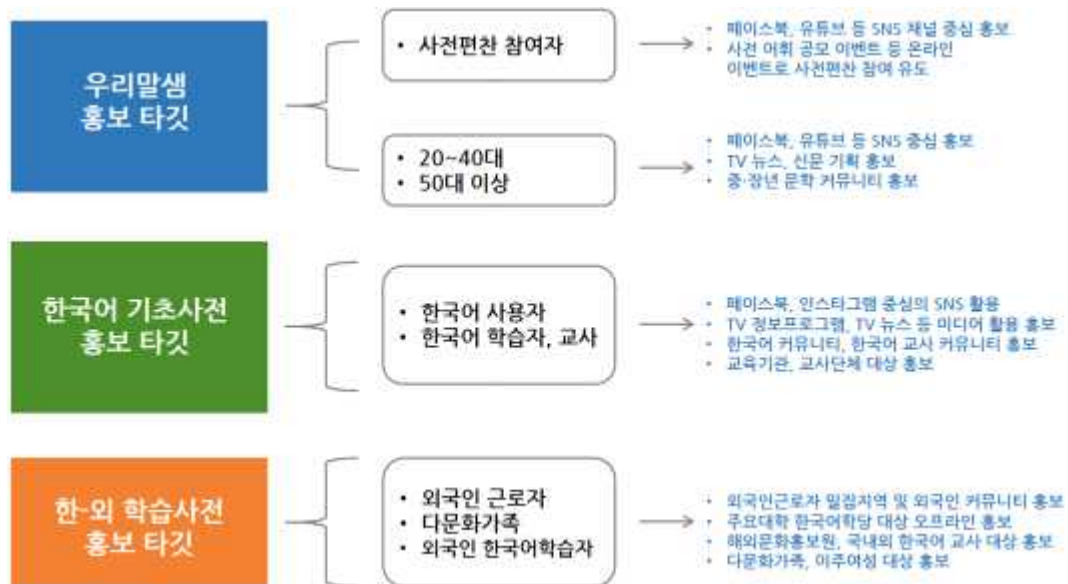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특징

- ① 이중 언어화 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10개 외국어(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일본어, 타이어,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외국어를 병렬로 제공하는 한국어 학습사전이다.

- ② 문화적 맞춤 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할 때 외국어별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 ③ 기능적 맞춤 사전: 외국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반영하여 사전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텍스트 위주의 필수 요소로만 내용을 구성하였다.

□ 홍보 대상별 전략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사전의 이용 대상을 특정하고, 대상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말샘》은 사전 편찬 참여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한국어기초사전》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상별 누리소통망(SNS), 언론 매체, 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 홍보 단계별 전략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단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다. 개통 이전에는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사전 개통을 이슈화시켰으며, 개통 시점에는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사전의 직·간접 체험을 유도하였다. 개통 이후에는 카드뉴스 및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사전 사용을 확산시키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우리말샘》 개통을 앞두고 《우리말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공모전, 시상식, 전시회)를 병행하였다.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1차 간담회: 공모전 주제 및 진흥 행사 추진 방향 수립
- 2차 간담회: 공모전 뜻풀이 어휘 선정
- 3차 간담회: 공모전 심사 진행

○ 1차 전문가 간담회(국어사전 진흥 행사 기획 자문)

- 일시/장소: 2016년 4월 26일(화) 오후 14:00~16:00 / 국립국어원 3층 회의실
- 참석자: 신새별(아동문학 시인),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목정수(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상규(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김선철(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등
- 논의 내용: 2015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평가,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추진

방향 설정, 공모전 주제·어휘 선정 기준 자문

- 논의 결과: 개인상과 단체상을 나눠서 시상,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협조를 받아 참여 독려, 《우리말샘》과 어울리는 공모전 주제 및 어휘 선정 기준 마련 등
- 공모전 제목: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말 사전



○ 2차 전문가 회의(공모전 추진 위원회)

- 기간: 2016년 4월 27일 ~ 5월 18일
- 어휘 제안자 및 기관: 고은(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문효치(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규성(한국기자협회 회장), 고영수(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성규(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고용우(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
- 논의 내용: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공모전 주제에 부합한 어휘 3~5개 제안 (7개 분야 30여개)

- 결정 어휘: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들다 등 총 10개

○ 3차 전문가 자문회의(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심사)

- 일시/장소: 2016년 8월 19일(금) 14:00~18:00 / 국립국어원 3층 회의실
- 심사위원: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심사위원장), 목정수(서울시립대 교수), 신재별(아동문학작가·시인), 박상규(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김태일(네이버 다국어사전실장), 전상훈(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내용: 예비 심사 통과 작품 62점에 대해 개인 및 단체상 심사
- 결과: 총 18점 선정(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8점, 단체상 3점)

□ 기자 간담회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을 앞두고 언론 매체를 활용한 사전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을 소개하고, 개통식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 일시/장소: 2016년 9월 28일(수) 10:30~13:00 / 정부 서울청사 별관 203호

○ 참석자: 언론 매체 문화체육관광부 출입처 기자 20여명

- 언론 매체: KBS, 연합뉴스TV, 채널A, 연합뉴스, 국민일보, 서울신문, 뉴스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11개 매체
- 문체부: 이정미 국어정책과장, 이운영 연구관, 홍선옥 홍보 담당관
- 국어원: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정희원 어문연구실장, 김선철 언어정보과장, 이현주 연구관, 박정아 연구관, 위진 연구사

○ 주요 내용

-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 소개(사전 개요 및 시연, 운영 계획 등)
-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홍보
- 보도 자료: 붙임 1. (《우리말샘》 개통: 진화하는 국어사전, 나도 집필자)

○ 주요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30 ~ 10:35 (5')	국립국어원장 인사 말씀	국립국어원장
10:35 ~ 10:4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샘》 등 3종 사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개요 설명 - 개통 이후 운영 계획 ○ 《우리말샘》 개통식 홍보 	언어정보과장
10:45 ~ 11:00 (15')	○ 사전 시연	이현주 연구관
11:00 ~ 11:30 (30')	질의응답	문화부 기자단
11:30 ~ 13:00 (90')	간담회의	평가옥(식당)

○ 언론 보도 결과(총 39건 보도)

방송 6건, 지면 신문 10건, 인터넷 신문 23건 등 총 39건이 게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조어가 사전에 등재되며,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이라는 점이 주요 논점으로 보도되었다.

- 방송(6건)

9. 28.	KBS (4시 뉴스집중)	참여형 웹 사전 '《우리말샘》'...정식 서비스 10월 5일부터
9. 28.	YTN	'꽃중년' '그루밍족' 《우리말샘》 사전에서 찾으세요
9. 28.	연합뉴스TV	개방형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다음 달 개통
9. 28.	채널A	길냥이·꿀피부? 신조어 사전 떴다
9. 29.	KBS (뉴스광장)	'꿀피부'·'꽃중년'도...개방형 온라인 사전 구축
9. 29.	MBN (굿모닝MBN)	9월 29일 핫클릭 랭킹뉴스

- 지면 신문 (10건)

9. 28.	문화일보	생생한 한국말 사전 국민이 함께 만든다
9. 29.	서울신문	헬조선 뜻 내가 정의한다면?
9. 29.	경향신문	누구나 뜻풀이 참여하세요 개방형 국어사전 나온다
9. 29.	머니투데이	혈·대박·쩐다... 정부 공인 우리말사전 등재된다
9. 29.	서울경제	한국판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만들었다
9. 29.	파이낸셜	진화하는 국어사전, 누구나 단어 검색 가능
9. 29.	한국경제	국립국어원, 개방형 온라인 '《우리말샘》' 내달 5일 개설
9. 29.	국민일보	꽃청춘·꿀피부·K팝스타 등 새로 등재
9.30	한겨레	9월 30일 학술 지성 단신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서비스)
10.4	조선일보	'꽃청춘' '딸바보'도 辭典에 실립니다

- 인터넷 신문(23건)

9. 28.	YTN	일반인 참여하는 국어사전 다음 달 5일 개통
9. 28.	중앙일보	시민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5일 개통
9. 28.	뉴스1	"100만 어휘 콘텐츠 보물창고"…참여형 웹사전 '《우리말샘》' 개통
9. 28.	뉴스스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100만 어휘 수록 진화한 새 국어사전"
9. 28.	아주경제	국민참여형 국어사전 뜬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개통
9. 28.	연합뉴스	'국어사전 뜻풀이, 내가 해볼까'…한국형 위키피디아 등장
9. 28.	연합뉴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다음달 개통
9. 28.	연합뉴스	《우리말샘》 소개하는 국립국어원 관계자
9. 28.	연합뉴스	《우리말샘》 소개하는 국립국어원 관계자
9. 28.	연합뉴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다음달 개통
9. 28.	연합뉴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다음달 개통
9. 28.	연합뉴스	《우리말샘》 소개하는 국립국어원 관계자
9. 28.	이데일리	6년간 220억 투입 '개방형 국어사전' 10월 개통
9. 28.	이투데이	국립국어원, 위키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다음달 개통
9. 28.	인터뷰365	함께 만드는 우리말 사전,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오픈
9. 28.	일간스포츠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100만 어휘 수록 진화한 새 국어사전"
9. 28.	코리아닷컴	국립국어원, 위키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다음달 개통
9. 28.	헤럴드경제	국어사전 나도 써볼까·개방형 '《우리말샘》' 5일 개통
9. 29.	아시아뉴스통신	진화하는 국어사전 12개 나온다
9.29	재외동포신문	함께 만들고 누리는 '참여형 국어사전' 개통
9.29	매일경제	한국형 위키피디아 '《우리말샘》' 등장…'꽃중년', '힐링' 실린다
9.30	에듀동아	[초등사자 교과상식] "나도 사전 제작자!"
10. 4.	이데일리	가대보다 우려 앞서는 '우리말샘'

지면 기사 모음

- 문화일보(9.28.) 생생한 한국말 사전 국민이 함께 만든다

문화일보

2016년 09월 28일 수요일 028면 문화/교육

생생한 한국말 사전 국민이 함께 만든다

한국판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우리말 샘' 내달 5일 개통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해
꽃중년·꿀피부·핑거푸드 등
실생활서 사용되는 용어 수록

■ 일반인 누구나 참여해 어휘를 첨가하고 뜻을풀이를 수정할 수 있는 한국판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우리말샘'이 오는 10월 5일 개통된다.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28일 이같이 발표하고 "지난 2010년부터 준비한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어휘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지만 빈번하게 사용 중인 50만 어휘를 더해 100만 어휘가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말 샘'은 개통과 함께 사전 만들기 다시 시작된다. 일반인 누구나 '우리말 샘'에 오르지 않은 어휘를 새로 첨가할 수 있고, 설명을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국립 참여형 사전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첨삭한 정

보는 표현, 표기 감수를 거치면서 '참여자 제안 정보'로 표시되고 이 정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 절차를 거치면 '전문가 감수 정보'가 된다. 물론 그 결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의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위진 국립국어원 연구사는 "일반 참여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사전이며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말샘'에 새로 오른 50만 어휘에는 꽃중년, 꿀피부, 힐링하다, 핑거푸드, K POP 스타 등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 표준어는 되지 못한 신어 4만 5000 항목, 생활어 3만 항목과 지역어 9만 항목, 전문용어 35만 항목 등이 포함됐다. 이들 50만 어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사회 변화와 분화에 따라 전문용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 대사전'이 방송, 교육 등 공적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공하는 엄격히 관리되는 사전이라면, '우리말샘'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쓰임과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사전이라고 비교했다. 따라서 한국어의 규범이나 표준적인 쓰임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고 생생한 한국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말 샘'을 보면 된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샘'과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한국어 기초 사전'(<http://krdict.korean.go.kr>)도 개통한다. 이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뜻을풀이를 쉽게 하고,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거나 특별히 공부해야 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만든 사전이다. 한국어 기초 사전은 한국어-영어 학습 사전, 한국어-일본어 학습 사전, 한국어-베트남어 학습 사전 등 10개 언어로 개통됐고, 앞으로 한국어-중국어 학습 사전 등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최현미 기자 chm@

- 경향신문(9.29.) 누구나 뜻풀이 참여하세요 개방형 국어사전 나온다

경향신문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022면 문화

“누구나 뜻풀이 참여하세요” 개방형 국어사전 나온다

실생활 쓰임새 답는 게 목적
전문가 감수 거쳐 정보 공개

시민들이 누구나 뜻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국어사전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사진)을 10월5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말샘은 뜻풀이·발음·방언·용례 등 어휘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관용구, 속담, 수어 정보, 삽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수록된다.

우리말샘 표제어는 100만여개로, 표준국어대사전 50만개 단어에 신어·생활어 7만5000개 단어, 지역



어 9만개 단어, 전문용어 35만개 단어를 다뤘다. 반대말·높임말·바스한 말 등 관련 어휘를 그물망처럼 표시한 ‘어휘 지도’, 사용자들의 개인별 단어장, 검색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가 감수 절차가 마련됐다. 참여자 제안정보와 전문가 감수 정보, 편집 이력도 공개한다.

우리말샘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과 별도로 운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연구 등 공적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말샘은 실생활에서의 쓰임새를 답는 게 목적이다. 김선철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은 “한국어 규범이나 표준적 쓰임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다양하고 생생한 한국어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말샘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은 아외에 ‘한국어 기초사전’(krdict.korean.go.kr)과 이 사전을 10개 외국어로 번역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k@kyunghyang.com

- 국민일보(9.29.) 꽃청춘·꿀피부·K팝스타 등 새로 등재

국민일보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002면 종합

신조어·유행어 망라 100만 어휘 웹사전 내달 5일 개통

꽃청춘·꿀피부·K팝스타 등 새로 등재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일반인도 어휘 첨가하면

전문가 감수 거쳐 수록

‘꽃청춘’ ‘힐링하다’ ‘그루밍하다’ ‘꿀피부’ ‘핑거푸드’ ‘K팝스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이 같은 단어들이 국립국어원의 웹 사전에 오른다.

국립국어원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반인 누구나 신조어나 유행어 등을 보태고 수정할 수 있는 한국판 위

키피디아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국민의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하고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웹 국어사전 ‘우리말샘’은 오는 10월 5일 개통된다.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7만5000개), 지역어(9만개), 전문용어(35만개) 등 50만 어휘를 더해 모두 100만 어휘가 수록된다. 실제로 이번호에 새로 오른 50만 어휘에는 ‘꽃청춘’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 표준어는 되지 못한 단어들이 포함됐다.

‘우리말샘’은 개통과 함께 사전 만들기 개방형으로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새로운 어휘를 첨가할 수 있고, 설명을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사전과 다른 점은 전문가의 감수를 거친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첨삭한 정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감수한 다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말샘’에 등록된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표준국어대사전이 방송, 교육 등 공적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공하는 사전이라면, ‘우리말샘’은 생생한 한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이

라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샘’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개통한다. 한국어 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가 실렸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과 어휘별 사진·동영상을 제공한다. 한국어 기초사전은 한국어 수

요를 고려해 미래 한국의 동력이 될 10개 언어(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를 대상으로 했다.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해 번역했고, 외국어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여건에 맞춰 외국어별 화면 자판 기능, 글자 중심의 화면을 구현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iee@kmb.co.kr

- 한국경제(9.29.) 국립국어원, 개방형 온라인 ‘《우리말샘》’ 내달 5일 개설

한국경제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A29면 문화

국립국어원, 개방형 온라인사전 ‘우리말샘’ 내달 5일 개설

국립국어원이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해 누구나 뜻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을 다음달 5일 개설한다. 우리말샘에서는 뜻풀이, 발음, 방언,

용례 등 어휘 정보를 사용자가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단어에 신어 및 생활어 7만5000 단어, 지역어 9만 단어, 전문용어 35만 단어를 더해 100만개 이상의 단어가 표제어

로 제시된다. 반대말, 동의말, 비슷한 말 등 관련 어휘를 그물망처럼 표시한 ‘어휘지도’와 개인별 단어장, 지모·초성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제안된 정보를 전문가가 검수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우리말샘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과

별도로 운영된다. 교육·언론 등 공적인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실생활에서 국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게 우리말샘의 개설 목적이다. 우리말샘에서 제안된 정보는 관련 절차를 거쳐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어문규범을 보완하는

태 확충을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뜻·어저의 기본 어휘를 담은 한국어기초사전(krdict.korean.go.kr)과 이 사전에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함께 개설한다.
정병훈 기자 hnp@hankook.com

- 서울신문(9.29.) 헬조선 뜻 내가 정의한다면?

서울신문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024면 문화

헬조선 뜻 내가 정의한다면?

국립국어원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 개통
사용자가 뜻풀이·발음 등 정보 수정 가능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지역어, 전문용어, 옛말 등 100만 단어를 등재하고, 일반 국민들도 단어의 뜻풀이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단어 등목을 청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국어사전이 인터넷에 개통된다.

국립국어원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을 새달 5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테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헬조선’ 같은 단어를 등재하거나 뜻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꽃청춘’이나 ‘식감’처럼 방송을 통해 등장한 일부 새로운 단어들은 이미 우리말샘에 등재됐다.

이번 개방형 국어사전의 특징은 사용자가 뜻풀이·발음·방언·용례 등 어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국립국어원이 최대한 많은 실생활 단어들을 사전에 등재할 수 있게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단어에 신어·생활어 7만 5000 단어, 지역어 9만 단어, 전문용어 35만 단어를 더해 모두 100만어 단어가 표제어로 제시된다. 반대말·동의말·비슷한 말 등 관련된 어휘를 그물망처럼 표시한 ‘어휘지도’와 개인별 단어장, 지모·초성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해당 단어가 언제, 어떤 문헌에 나왔는지 기록한 역사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위키피디아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제안된 정보를 전문가가 검수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참여자 제안정보와 전문가 검수정보를 따로 보여주고 편집이력도 공개한다.

우리말샘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과 별도로 운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언론 등 공적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말샘은 실생활에서 국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게 목적이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 규범이나 표준적 쓰임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다양하고 생생한 한국어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말샘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은 5만여 기본 어휘를 담은 ‘한국어기초사전’(krdict.korean.go.kr)과 이 사전을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스페인어·아랍어·영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태국어·프랑스어 등 10가지 외국어로 번역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함께 개통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 서울경제(9.29.) 한국판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만들었다

서울경제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A35면 문화

한국판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만들었다

일반인 참여형 '우리말샘' 등
국립국어원 12개 사전 내달 개통

일반인 누구나 참여해 어휘를 첨가하고 뜻을 풀이할 수 있는 개방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이 만들어졌다. 국립국어원은 살아 움직이는 한국어

를 제 모습대로 파악해 기록하는 것과 함께 한국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포함해 '한국어기초사전', 10개 언어의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등 3종 12개 사전을 오는 10월 5일에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별 웹 주소는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 한국어기초사전(<http://kr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한-영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eng>) 등이다. 특히 '우리말샘'은 온 국민의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판 위키피디아 국어사전인 셈이다. 개통 시점에는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지역어·전문용어 등 100만 어휘가 수록된다. 뜻풀이·예문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어휘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섹션, 사진, 동영상, 어휘 지도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와 지식, 문화를 담는다.

송철호 국립국어원장은 "'우리말샘'이 다양하게 활용돼 다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수문기자 chsm@sedaily.com

- 머니투데이(9.29.) 혈·대박·쩐다... 정부 공인 우리말사전 등재된다

머니투데이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023면 사회

혈·대박·쩐다... 정부 공인 우리말사전 등재된다

국립국어원 웹사이트 '우리말샘' 등 3종 12개사전 개통

'혈' '대박' '쩐다' 같은 생활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도 정부가 공인하는 우리말사전에 등재된다.

국립국어원(원장 송철호)은 오는 10월5일 개통하는 참여형 웹사이트 '우리말샘'에 시대와 함께 사는 현재 우리말을 열린 시각으로 수용키로 했다. 우리말샘은 전국민의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하고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이다.

국립국어원은 개통 당일 우리말샘(개방형 국어사전)과 함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10개 언어) 등 3종, 12개 사전을 선보인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우리말샘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 50만 어휘가 더해져 총 100만 어휘가 수록된다. 차별점은 사전에 누구나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참여형 도구라는 것. 2010년 작업을 시작한 이 사전에 수록된 가장 최신 실생활 단어는 '식감' '팬덤' 'K팝' 등 정도지만 앞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제안해 직접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첨삭 정보는 표현·표기감수를 거쳐 '참여자 제안 정보'로 표시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절차를 거치면 등록된다. 다른 사용자에 의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은 한류 확산의 새로운 동력을 위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맞는 사전이다.

송철호 국립국어원장은 "완벽히 구축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비표준어도 우리 유산이란 시대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란 점에서 사전의 제약과 한계를 극복했다"며 "사전 정보의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축적의 기재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고금 기자 danny@

- 파이낸셜(9.29.) 진화하는 국어사전, 누구나 단어 검색 가능



2016년 09월 29일 목요일 028면 문화

국립국어원 '참여형 웹사전' 3종 12개 사전 10월 5일 개통

진화하는 국어사전, 누구나 단어 검색 가능

국립국어원은 살아 움직이는 국어를 재 모습대로 파악하고 기록해 한국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대중들 역할을 담당할 참여형 웹사전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등 3종 12개 사전을 오는 10월 5일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방형 한국어 대사전인 우리말샘은 국민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사회 및 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이다. 개통 시점에는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 100만 어휘가 수록되며 뜻풀이, 예문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어휘의 역사정보, 규범정보, 다중대체자료, 어휘 지도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와 지식, 문화를 담는다.

이 사전은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이다.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는 표현 및 표기 감수를 거쳐 참여자 제안 정보로 표시되고 이 정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 절차를 거쳐

면 전문가 감수 정보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의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가 실린 한국어 학습사전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공하고 어휘별로 다중 매체 자료와 관련어 정보를 연결해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 수업을 고려해 미래 한류의 동력이 될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국립국어원 김선철 언어정보과장은 "이번 사전의 정보는 누구나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사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윤희 기자

- 한겨레(9.30.)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서비스

한겨레

2016년 09월 30일
B05면 (문화/출판)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서비스

국립국어원이 위키피디아와 같은 형태의 '개방형 국어사전'을 지향하는 <우리말샘>(opendicr.korean.go.kr) 서비스를 내달 5일 시작한다. 이 사전은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으로, 참여자가 제안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감수받은 뒤 등재하고, 이를 다시 다른 참여자가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어원은 또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기본 어휘 5만개를 담은 <한국어기초사전>(krdict.korean.go.kr) 서비스와 이 사전을 주요 10개 언어로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서비스도 같은 날 개통하기로 했다.koreango.kr

(6.6*8.4)cm

- 조선일보(10.4.) '꽃청춘' '딸바보'도 辭典에 실립니다

朝鮮日報

2016년 10월 04일
25면 (인물)

‘꽃청춘’ ‘딸바보’도 辭典에 실립니다

‘우리말 전문가’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5일 개방형 웹사전 ‘우리말샘’ 개통
일반인이 제안하고 전문가 감수
“표준·현실語 틈새 좁히려는 시도”

“실생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용 되는 단어들을 담으려면 신개념 사전이 필요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한국어 규범이 들어 있다면 ‘우리말샘’은 현재 한 국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한글날을 앞두고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을 5일 개통한다. 사용자가 어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관용구·속담·역사·수어(手語) 정보는 물론 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된다. 송철의(64) 국립국어원장은 “누구나 정보를 제안하고 형식한다는 점은 위키피디아와 같지만 전문가 감수를 거친다는 점은 다르다”며 “일반인과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전”이라고 말했다.

우리말샘은 2010년부터 준비해온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단어 외에 신어(新語)·생활어·지역어·전문용어 등을 보태 모두 100만여 단어가 표제로 제시된다. 이를테면 ‘기러기야배’ ‘캥거루족’ ‘대



한글날을 앞두고 5일 개방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개통하는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우리말을 가꾸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말이 인격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다.

인배’ ‘갑질’ ‘딸바보’ ‘꽃청춘’ ‘힐링하다’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지만 우리말샘엔 수록돼 있다.

“몇 해 전에 ‘버카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무슨 발레인가 했어요. ‘버스 카드 충전’을 줄여 쓰는 말이었습니디. 생활에서 자주 쓰는 줄임말을 우리말샘에 제안할 수 있어요. 적절한지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언어 파괴나 지나친 비속어,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은 물론 걸러내야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지낸 송

원장은 언어생활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을 교통 신호등에 빗댔다. 그는 “표준은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 언어와 괴리가 생기고 불편이 따르면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말샘 개통은 교통량 변화로 신호 체계를 바꾸듯이 현실 언어와의 틈새를 좁히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은 올해부터 ‘잇새’ ‘이브다’ 등 11개 항목을 새로 표준어로 인정했다. 오랫동안 많이 쓰여 표준어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원장은

“사전 전문가는 제한된 소수이고 잘 모르는 분야도 많다”며 “국민들이 우리말샘에 참여하면 신어가 쌓이고 다듬어지면서 한국어가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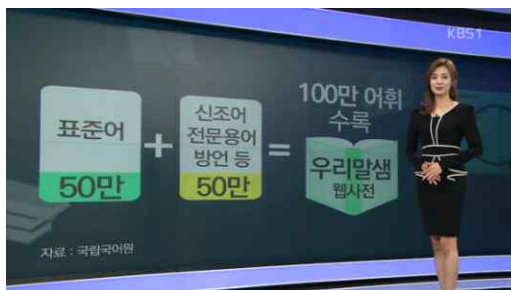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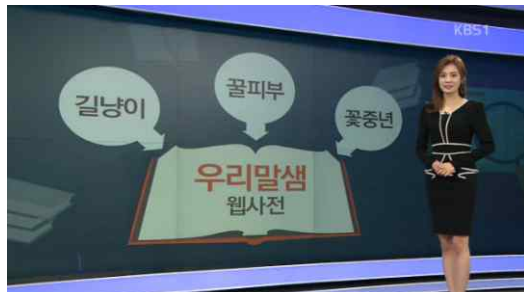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5일 우리말샘 외에도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한국어기초사전’ (5만 어휘)과 이것을 번역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10종(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프랑스어)을 함께 개통한다. 저작권은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 ‘사전 찾기’에서 우리말샘을 다룰 수 있는지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송 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줄임말이나 표기법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에 흔히 나오는 ‘축알못(축구 알지도 못하는 사람)’ ‘추카추카(축하축하)’ 등을 지적했다. ‘당근(당연하지)’ ‘안습(안구에 습기 찬다. 불쌍해 눈물 난다)’ ‘옥떨매(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처럼 몇 년간 사용되다가 사라진 신어도 많다. 그는 “국어원이 자체 수집한 자료로 편찬하다 보니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만 우리말샘 개통 시점에서 빠진 어휘도 있다”며 “아직 오르지 않은 어휘 중에 ‘돌직구’ ‘불금’ ‘단복’ ‘웃프다’ 등은 제안이 들어오면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돈규 기자
(22.8×17.7)cm

○ 방송 보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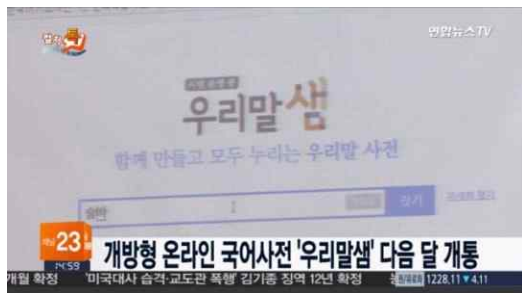
- KBS뉴스집중(9.28) 참여형 웹 사전 ‘《우리말샘》’...정식 서비스 10월 5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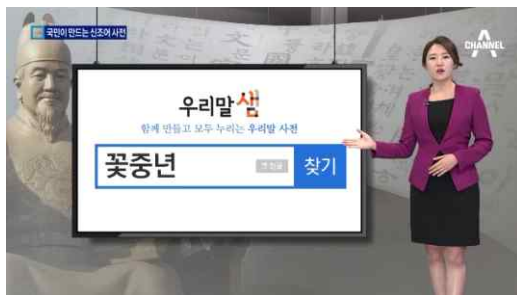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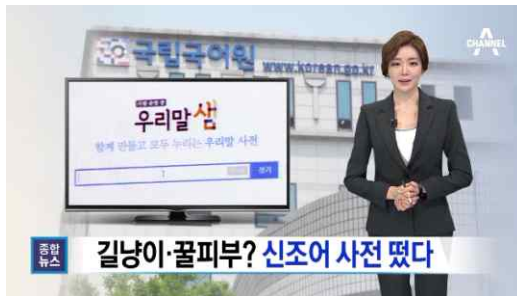
- YTN(9.28.) '꽃중년' '그루밍족' 《우리말샘》 사전에서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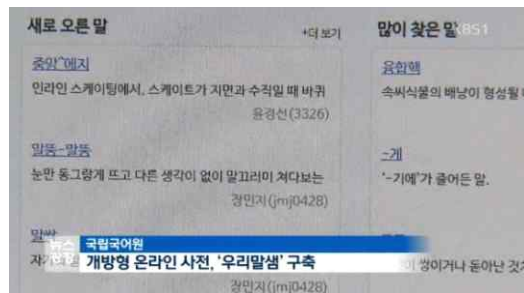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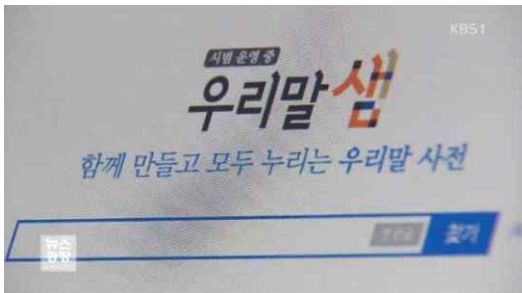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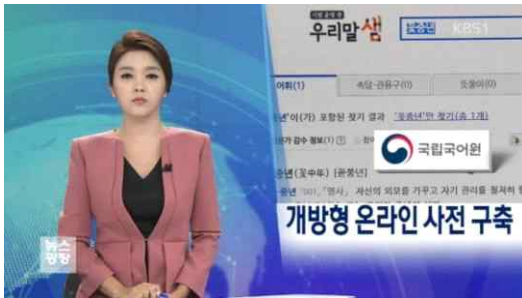
- 연합뉴스TV (9.28.) 개방형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다음 달 개통



- 채널A (9.28.) 길냥이·꿀피부? 신조어 사전 뒀다



- KBS뉴스광장 (9.28) '꿀피부' '꽃중년'도...개방형 온라인 사전 구축



○ 기자간담회 사진



2

《우리말샘》 개통 행사 개최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 행사는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이란 제목으로 2016년 10월 5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비롯한 국립국어원장, 8개 유관기관장,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통식은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통 및 시연,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 한글 멋글씨 공연,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통식에서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개통하여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고,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대상 수상자가 《우리말샘》에 ‘재능 나눔’이라는 첫 어휘를 등록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의 의미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개통 행사 제목인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을 한글 멋글씨(캘리그라피) 공연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사전의 개통을 축하하였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 일시/장소: 2016. 10. 5(수) 14:00~16:0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유관기관장(8명)*, 부내 인사**, 언론사(10개 매체)***,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50명 등 총 250여 명
- * 서정목(국어심의회 위원장),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김광호(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이시형(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향근(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김성곤(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태석(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민현식(전 국립국어원장)
- ** 국립국어원장, 문화정책관, 어문연구실장, 국어정책과장, 언어정보과장 등

*** SBS, JTBC, KTV, 조선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 내용: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 개통 및 소개,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 진행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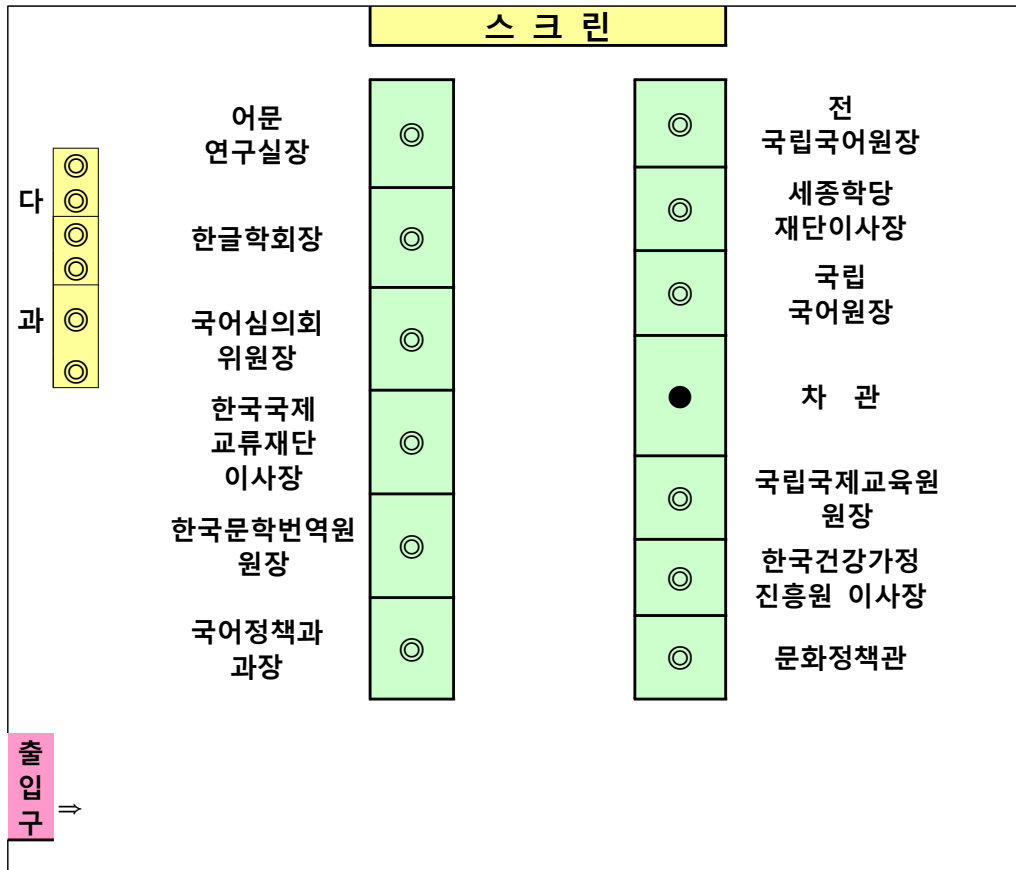
구분		시간	내용
식전	참가자 등록	13:30~14:00 (30')	참가자 입장
	간담회	13:40~13:57 (17')	주요 인사 간담회
	주요 인사 입장	13:57~14:00 (03')	주요 인사 입장
1부	개회	14:00~14:01 (01')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개통식
	국민의례	14:01~14:04 (03')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1절
	주요 인사 소개	14:04~14:07 (03')	주요 인사 소개
	개회사	14:07~14:11 (04')	국립국어원장
	축사	14:11~14:16 (05')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진화하는 사전	14:16~14:21 (05')	홍보 영상 상영
	어휘 등록 시연	14:21~14:25 (04')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
	개통식 공연	14:25~14:42 (17')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공연
	기념 촬영	14:42~14:45 (03')	한글 멋글씨 뒤에서 기념 촬영
	휴식	14:45~15:00 (15')	휴식
2부	사전 시연	15:00~15:15 (15')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시연
	질의응답	15:15~15:25 (10')	참가자 질의응답
	시상식	15:25~15:50 (25')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폐회	15:50~16:00 (10')	폐회 및 참가자 퇴장

《우리말샘》개통식 진행 순서



□ 주요 인사 사전 간담회

- 일시/장소: 2016. 10. 5(수) 13:40~14:0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무궁화실
- 참석 인사 자리 배치(안)



○ 간담회 사진



□ 참가자 등록

○ 참석자 구분

- 사전 간담회 참석자(주요 인사)
- 학계, 유관 기관 관계자
- 공모전 수상자(가족·지인)
- 일반 참가자

○ 등록 운영

- 방명록 작성 후 자리 안내
- 배포물(쇼팽백): 홍보 소책자(《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합본), 질의응답 질문지, 개통 행사 기념품, 전시회 안내서

○ 문의 응대

- 행사장 위치, 좌석, 편의 시설 및 물품, 행사 순서 문의 등 질문 응대



□ 개통식 1부

개통식 1부는 《우리말샘》 개통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3종 12개 사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송철의 국립국어원 원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였다. 잠시 후, 《우리말샘》을 개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가 《우리말샘》 최초 어휘 ‘재능 나눔’을 등록하여 국민 참여형 사전의 의미를 살렸다. 그리고 행사명인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적는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

- 송철의 국립국어원 원장



○ 축사

-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홍보 영상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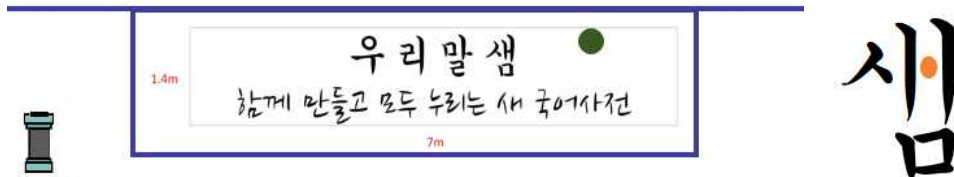
○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

- 등록자: 허성문(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대상 수상자)
- 등록 어휘: 재능 나눔(타인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
- 진행 방식: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대상 수상자가 연단 위의 컴퓨터(《우리말샘》 직접 집필하기)에서 최초 어휘와 뜻풀이 등록 후 퇴장



○ 한글 멋글씨 공연

- 공연자: 강병인(한글 멋글씨 작가,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부회장)
 - * 주요 작품: 미생·정도전 드라마 타이틀, 인천아시안게임 주제 문구 등
- 내용: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 진행 방식: ① 작가가 대형 한지에 붓으로 행사명을 한글 멋글씨로 씀
 - ② 한글 멋글씨 완성 직전, 정관주 차관이 마지막 획(‘샘’의 ‘·’)을 화룡점정하여 완성
 - ③ 완성 문구와 함께 차관, 원장 등 주요 인사 단체 사진 촬영



□ 개통식 2부

개통식 2부에서는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시연 및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수상작 전시회는 부스 형태로 제작하여 개통식장 내부에 전시하였다.

○ 사전 시연

- 발표자: 김선철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 내용: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개념 및 장점, 활용법 소개, 질의응답
- 진행 방식: 발표 자료(프레지 구성)를 중심으로 발표 후 질의응답



○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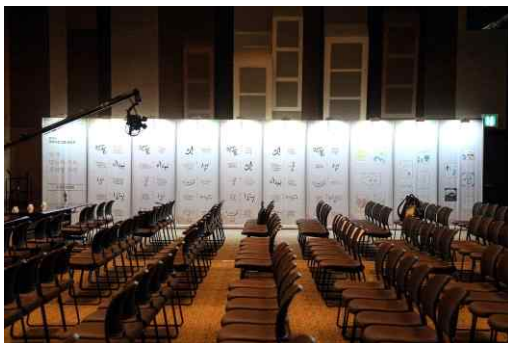
- 시상자: 송철의 국립국어원 원장
- 수상자: ①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 허성문·김유나·성주연(단체)
② 최우수상(국립국어원장상 2점) 윤도흠, 염선일(오산원일초 6-5 대표)
③ 우수상(국립국어원장상 4점) 김정열, 박두환, 김유빈(부모님 대리 수상), 윤태원(불참)

- ④ 장려상(국립국어원장상 8점) 김순모, 이상실, 유가은·장희정·이혜진·강정연·김혜정(단체), 원희상·오정민·표재희(단체), 신영숙·이순이(단체), 조민지(불참), 정영석(불참), 박정언(불참)
- ⑤ 단체상(국립국어원장상 3점) 조옥현(장파초 독서논술부 대표), 이수미(아름고등학교 이수미 외 11명), 고봉초 5-2반(불참)



○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개통식장)

- 일시/장소: 10. 5.(수) 13:00~16:3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전시 내용: 공모전 수상작 총 18점 전시(창의적 뜻풀이 90개 한글 멋글씨)
- 전시 방법: ① 수상작 18점을 한글 멋글씨로 제작
② 옥타부스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여 전시



□ 동선 및 자리 배치

○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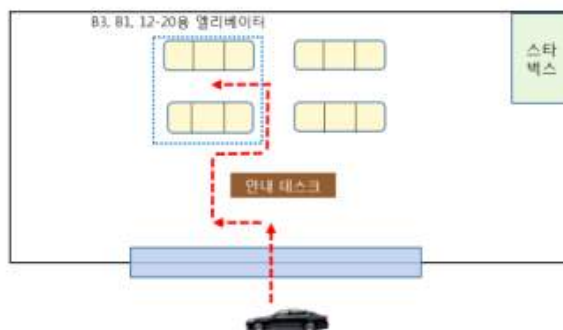
- 차관 및 주요 인사 동선
- 20층 행사장



-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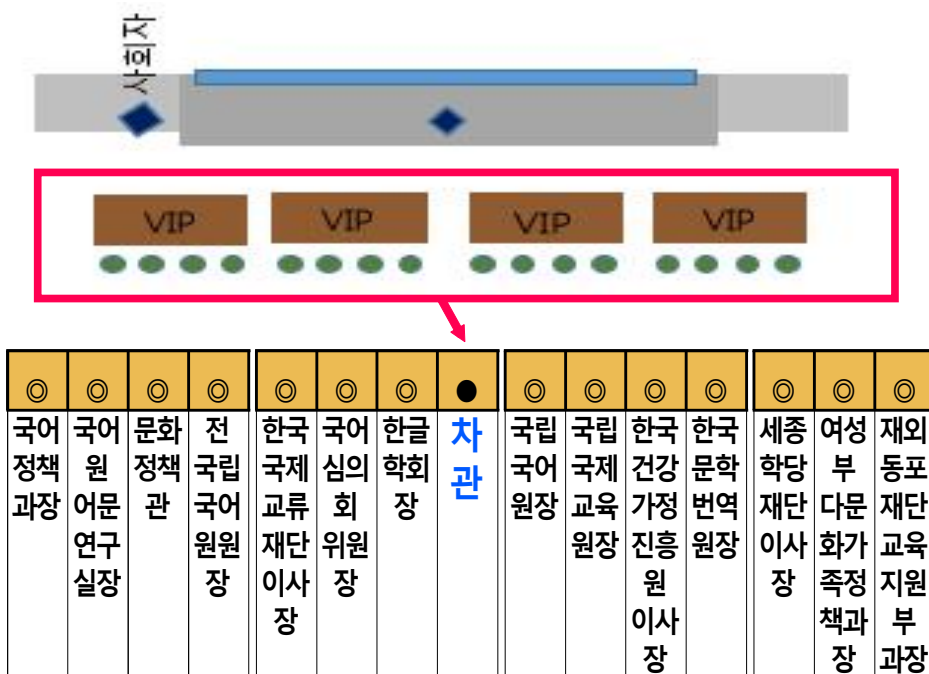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 빌딩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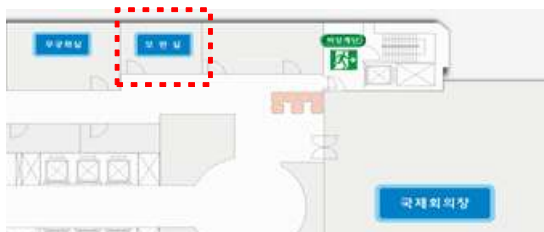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 1층 로비 이동 동선

○ 행사장 주요 인사 자리 배치



○ 프레스룸 운영

- 기간/장소: 10. 5.(수) 12:00~15:3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모란실
- 대상: 문체부 출입 기자, 사진 기자, 방송국 촬영 기자
- 운영: 미디어 취재 지원 및 편의 제공, 주요 인사 인터뷰 요청 시 응대
보도 자료, 각 사전 홍보 소책자, 전시회 안내 책자 등 제공



○ 개통식 시나리오

- 행사 전체 시나리오: [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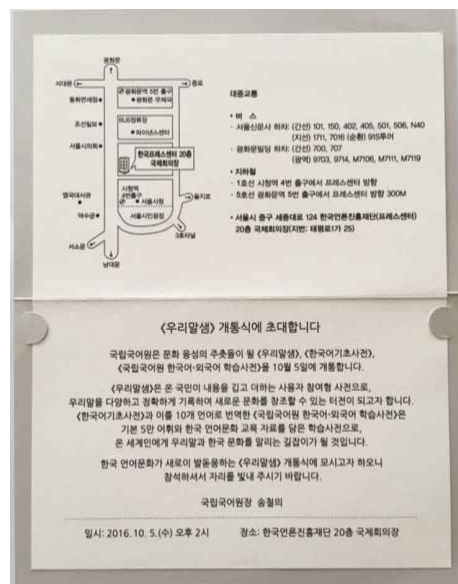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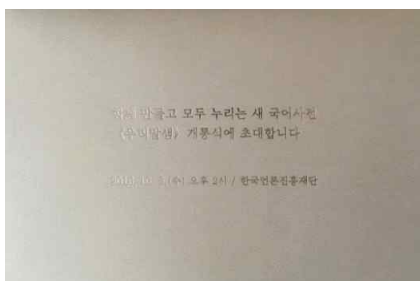
□ 홍보물 제작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에서 사용된 홍보물의 디자인은 《우리말샘》 개통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안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말샘》의 상징(로고) 아래에 검색창을 삽입하여 소통하는 온라인 사전의 특징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글 자음을 다양한 색으로 형상화하여 하단에 배치한 후, 《우리말샘》의 자음인 ㅁ, ㄴ, ㄷ, ㄹ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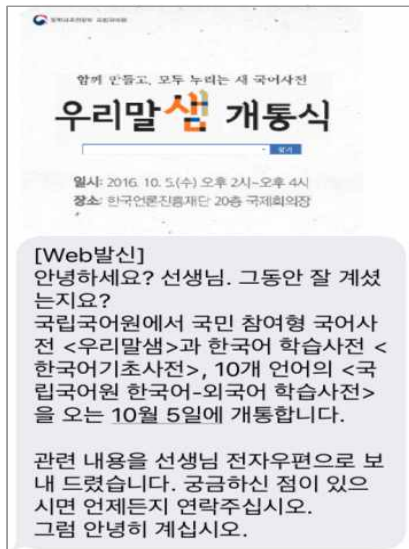
개통 전 홍보물로는 우편 초대장, 문자 메시지 초대장, 전자우편 초대장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개통식에서는 무대 배경, 엑스 배너, 기념품 등을 제작하였다.

○ 초대장

- 초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 국회 교문위원장, 사전편찬위원, 국어심사위원, 규범정비위원, 한글 관련 학회, 전국 국어문화원, 각 대학 국제교류센터, 한글박물관장, 겨레말사전 이사장, 한국기자협회장, 어문기자협회장, 아나운서협회장, 한국문인협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장, 한글관련 단체장, 역대 국어원장 및 부장, 말다듬기 위원, 외래어심의위원,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 학술단체장, 국어사전진흥공모전 심사위원, 언론사 문화담당 데스크 부장, 등 주요 참석 대상 인사 (약 750여명)
- 우편 초대장(160매 발송)



- 문자 메시지 초대장(220건 발송)



문자 메시지 초대장

- 전자 우편 초대장(개인 689명, 기관 214개소 총 903건 발송)



전자우편 초대장

\-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

- 누리집 팝업 배너



- 누리집 게시판 공지

알림-소식

알립니다

입찰공고

보도자료

학회/행사/기타 안내

국어 관련 기사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정보공개 목록

정보공개 자료실

사전 정보 공표

알림-소식

알립니다

목록

이전

다음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에 초대합니다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6. 9. 28.

조회

4485

첨부자료

우리말 샘 개통식 공고(최종)_160928.jpg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에 초대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문화용성의 주춧돌이 될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10월 5일에 개통합니다.

한국 언어문화가 새로이 발돋움하는 <우리말샘> 개통식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우리말샘》개통식에 초대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문화용성의 주춧돌이 될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10월 5일에 개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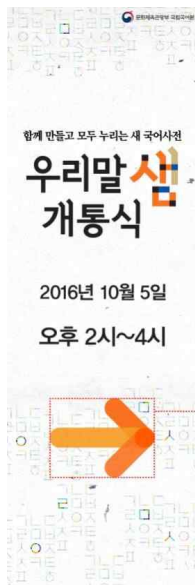
《우리말샘》은 온 국민이 내용을 깊고 다하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으로, 우리말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어기초사전》과 이를 10개 언어로 번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기본 5만 어휘와 한국 언어문화 교육 자료를 담은 학습사전으로, 온 세계인에게 우리말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50 -

○ 무대 배경(6.6m*5m)



○ 엑스 배너(행사장 위치 안내용)



○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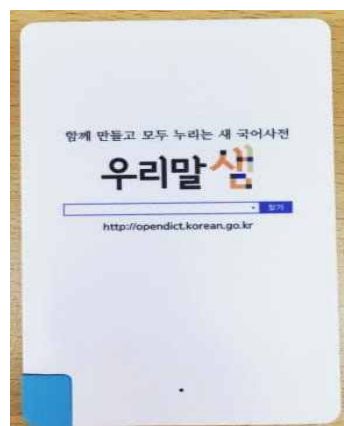
- 종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슬림형, 2500mAh)
- 수량: 400개



앞



뒤



실물 이미지

○ 코사지

- 사전 간담회 참석 주요 인사 의전용(20개)



○ 수상자 상장, 상금패



□ 개통식 시스템 장비 운영

○ 중계

- HD 카메라 3대 운영(메인 카메라, ENG 카메라, 지미집 카메라)
- 실시간 현장 생중계로 무대 양쪽 스크린과 LCD 모니터를 통해 영상 전송
- 중계 영상을 녹화 후 편집해 기록 영상물로 보관

○ 음향, 조명, 영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의 음향 및 조명 장비 시스템 운영
- 유·무선마이크, 믹서 채널, 빔프로젝터(2개), HMI 및 스포트라이트 조명 등 장비 임대

○ 콘솔 부스 운영

- 중계, 영상, 음향, 조명 등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 구성
- BGM 등 음향 효과, 조명 효과, 실시간 중계 컨트롤
- 발표 자료, 홍보 영상, 진행 순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HD(16:9) 사이즈로 제작



□ 《우리말샘》 개통식 언론 홍보 결과

방송 10건, 지면 신문 23건, 인터넷 신문 55건 등 총 88건이 게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조어가 사전에 등재되며,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이라는 점이 주요 논점으로 보도되었다.

○ 개통식 주요 언론 보도

- 방송(10건)

일시	매체	제목
10. 6.	MBC(우리말나들이)	오늘의 우리말 '《우리말샘》'
10. 6.	KTV	신조어가 국어사전에..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개통
10. 7.	SBS(뉴스브리핑)	'570돌' 한글날, 하지만 한글 파괴·신조어 범람 시대?
10. 7.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국립국어원,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10. 7.	MBC 라디오 (그건 아릅답습니다 아재용입니다)	'우리말샘 사전, 어떤 우리말이 올라가 있나요?'
10. 7.	MBC(우리말나들이)	오늘의 우리말 '《우리말샘》'
10. 9.	연합뉴스TV	신조어로 인한 '소통의 벽'...『《우리말샘》』이 허물까
10. 10.	SBS(모닝와이드)	[화제] 언어소통, 제대로 하고 있나요?
10. 10.	YTN라디오(수도권투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제목, 틀렸습니다”
10. 11.	KTV(정책 오늘)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탄생 [인터뷰 이 사람]

《우리말샘》 개통식 방송 보도

- 지면 신문(23건)

일시	매체	제목
10. 6.	동아일보	국립국어원, 개방형 웹사전 '《우리말샘》' 개통
10. 6.	매일경제	온국민이 만드는 국어사전 나온다
10. 6.	조선일보	역대급·대인배·갑질 이제 대놓고 써도 되나요?
10. 6.	문화일보	한글 새 공간 '《우리말샘》'
10. 7.	매일경제	“문화까지 옮겨야 번역 느낌 제대로 살죠”
10. 7.	한국경제	'우리말 장터'가 열렸다
10. 7.	헤럴드경제	[특별기고-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우리말이 달라졌다

10. 7.	문화일보	<오후여담> 갑질, gabjil
10. 7.	문화일보	<기고> 진화하는 우리말 사전
10. 7.	경향신문	내가 만드는 사전 ‘《우리말샘》’
10. 7.	아시아경제	언어는 현실의 거울…신조어 확산은 '빠박캔트'
10. 7.	건설경제	[세상만사] 한글날
10. 8.	동아일보	<특별기고> 아름다운 말 ‘한글’
10. 9.	울산매일	《우리말샘》
10. 10.	국민일보	‘신어(新語)’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10. 10.	한국경제	국어사전에도 등록된 ‘甲질’의 기원은…
10. 11.	서울경제	‘아재개그’ 올리자… ‘국민참여’로 뜻풀이 결정
10. 11.	동아일보	슴슴하다
10. 13.	동아일보	진화하는 국어사전 ‘《우리말샘》’ 사용법
10. 13.	서울신문	올려라 올려라 《우리말샘》
10. 13.	조선일보	[양해원의 말글 탐험] 입소문과 소문의 차이
10. 14.	서울신문	정보화 시대의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14.	한국일보	[우리말 톺아보기] 《우리말샘》

《우리말샘》 개통식 지면 보도

- 인터넷신문 (55건)

일시	매체	제목
10. 5.	연합뉴스	'우리말 샘' 개통식
10. 5.	연합뉴스	개방형 온라인 국어사전 첫 등록 어휘는 '재능 나눔'
10. 5.	연합뉴스	참여형 온라인 사전 '우리말 샘' 개통
10. 5.	한국일보	사용자 참여형 사전,우리말샘 개통
10. 5.	일간스포츠	개회사 하는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10. 5.	일간스포츠	함께 만들고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5.	일간스포츠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10. 5.	일간스포츠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매일경제	온국민이 만드는 '국어사전' 나온다…한국판 위키 '우리말

		샘` 개통
10. 5.	조선비즈	국립국어원,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10. 5.	뉴시스	개회사 하는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10. 5.	뉴시스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뉴시스	화룡점정
10. 5.	뉴시스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뉴시스	개회사 하는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10. 5.	뉴시스	우리말샘 개통 축하하는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10. 5.	뉴시스	함께 만들고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5.	뉴시스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5.	뉴시스	축사하는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10. 5.	뉴시스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뉴시스	'한글 멋글씨' 완성하는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10. 5.	뉴스1	송철의 원장 '우리말샘을 개통합니다'
10. 5.	뉴스1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뉴스1	참여형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10. 5.	뉴스1	개회사 하는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10. 5.	뉴스1	축사하는 정관주 1차관
10. 5.	뉴스1	함께 만드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뉴스1	송철의 원장, 우리말샘 개통식 개회사
10. 5.	뉴스1	송철의 원장 '우리말샘을 개통합니다'
10. 5.	뉴스1	국립국어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등 사전 3종 개통
10. 5.	뉴스1	국민의례 하는 내빈들
10. 5.	뉴스1	신발 벗고 붓 든 정관주 1차관
10. 5.	뉴스1	'우리말샘' 첫 등록 어휘는 '재능 나눔'
10. 5.	뉴스1	우리말샘 개통식
10. 5.	뉴스1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10. 5.	뉴스1	함께 만들고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10. 5.	내외 뉴스통신	[사회]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5일 개통...효용성은?

10. 5.	행복세종 타임즈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10. 5.	뉴스포스트	진화하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드디어 개통
10. 6.	매일경제	훈민정음 반포 570돌 맞은 ‘한글날’ 당신이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10. 7.	중부일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개통, 갑질·꿀피부… 신조어 뜻풀이 내가 해볼 까?
10. 7.	건설경제	[세상만사] 한글날
10. 7.	아시아경제	언어는 현실의 거울…신조어 확산은 '빼박캔트'
10. 9.	조선비즈	[한국어와 인공지능] ④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한국어 AI 시대의 기초는 말뭉치...제2의 세종계획 추진해야"
10. 9.	대한민국 정책포털	‘꽃중년’, ‘힐링하다’가 국어사전에?
10. 9.	수도권일보	570돌 ‘한글’ 고마움·소중함 깨달아야
10. 10.	이뉴스 투데이	한글문화큰잔치, 우리말샘 … 문화포털, 570돌 한글날 기념행사 소개
10. 10.	경남일보	1967년 10월 10일 ‘한글날 기념식’
10. 12.	헤럴드경제	‘우리말샘’ 개통 1주일…등록어휘 70개 보니
10. 13.	조선닷컴	[양해원의 말글 탐험] 입소문과 소문의 차이
10. 17.	정책뉴스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19.	서울시정일보	[문화]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20.	내일신문	[우리말 기관 릴레이 인터뷰 ①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우리말샘, 국민들 국어지식 집대성"
10. 21.	경남도민일보	[바튼소리]진화한 국어사전 '우리말샘'
10. 21.	이투데이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당신들의 우리말샘’은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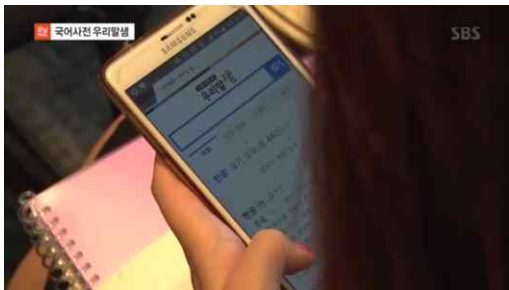
《우리말샘》개통식 온라인 보도

○ (개통식 보도) 방송 뉴스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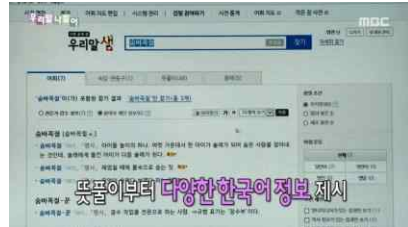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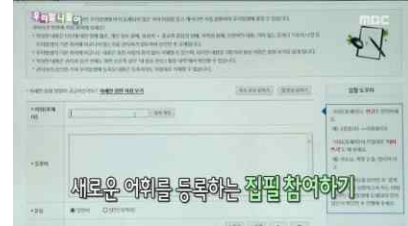
- SBS 모닝와이드 방송

일시	10. 10.(월) 7:30~8:30 (SBS 모닝와이드 3부)
제목/분량	'언어소통, 제대로 하고 있나요' / 4분 02초
내용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소개, 개통식 소개
형태	제작 지원 (예산: 1500만원)
구성(안)	<p>1. 신조어, 얼마나 알고 계세요?</p> <p>#.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신조어들(혼밥, 궁물, 개이득, 복세편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어 단어들 이미지 CG. 이 중에 얼마나 알고 계세요? <p>#. 학부모, 학생들에게 신조어 단어 테스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모르는 어른들과, 척척 맞추는 학생들 - 어른들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Q. 무슨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Q. 평소 집에서 아이들이 신조어 잘 쓰는지? Q.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 아이들이 쓰는 단어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 학생들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Q.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건가? Q.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인가? Q. 이 단어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쓰게 됐는지. <p>2. 일상생활 속 신조어, 뜻을 알고 싶을 땐?!</p> <p>#. 신조어 뜻 찾아보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보는데, 국어사전엔 없고 - 인터넷 검색해 보는데, 찾기 쉽지 않고 <p># 《우리말샘》 개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인터넷 사전! 《우리말샘》 -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사전이지? (사전 장점 및 사용법) - 《우리말샘》에서 단어 검색해 보고, 등록 시연, 사용자들 반응 인터뷰 <p>#. 국립국어원 원장, 개발자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사전인가요? -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나요? 어떤 단어든 등록 가능한가요?

SBS 모닝와이드 개통식 관련 보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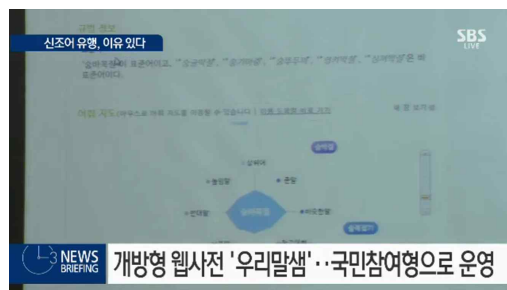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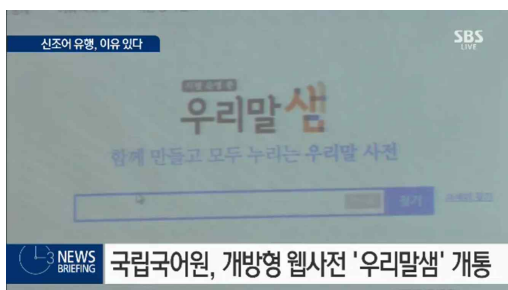


- MBC 우리말나들이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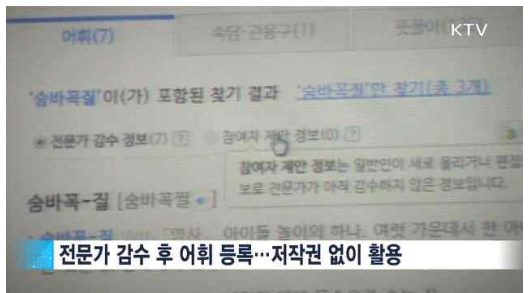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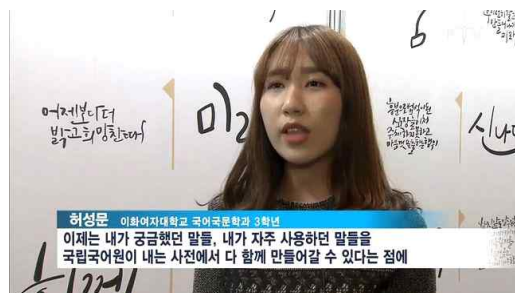
일시	10. 6.(목)~7.(금) / 10:55~10:56, 16:55~16:56
내용/분량	1부: '《우리말샘》' 소개(특징) / 1분 2부: '《우리말샘》' 활용(검색, 집필 참여) / 1분
구성(안)	<p>1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뜻이 더해지는 언어!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하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소개</p>     <p>2부: 국민이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개방형 국어사전 《우리말샘》 활용법 소개</p>    

MBC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샘》관련 보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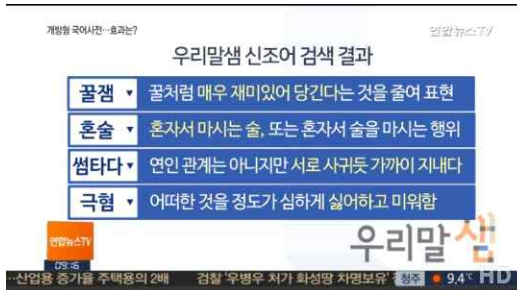
- SBS 뉴스브리핑(10.7.) '570돌' 한글날, 하지만 한글 파괴·신조어 범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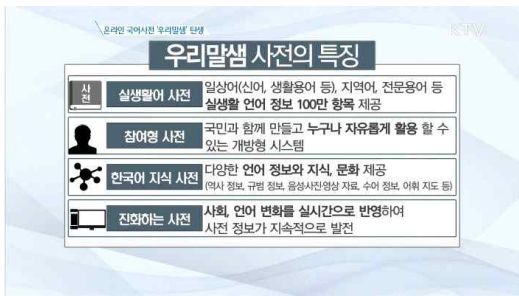
- KTV(10.6.) 신조어가 국어사전에..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개통



- 연합뉴스TV(10.9.) 신조어로 인한 '소통의 벽'... 《우리말샘》이 허물까



- KTV(10.11.)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탄생 [인터뷰 이 사람]



○ (개통식 보도) 지면 기사 모음

- 동아일보(10.6.) 국립국어원, 개방형 웹사이트 ‘《우리말샘》’ 개통

東亞日報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A28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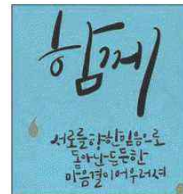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개방형 웹사이트 ‘우리말샘’ 개통

위키피디아식 국민참여형 운영
‘꽃청춘’ ‘힐링하다’ 등 신조어도 수록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이 5일 국민참여형 개방형 웹사이트인 ‘우리말샘’을 비롯해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등 3종 12개 사전을 개통했다.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돼 있는 50만 어휘와 새로 구축한 일상어휘가 수록된 사전이다. 예를 들어 일상어로는 ‘꽃청춘’ ‘힐링하다’ ‘그루밍하다’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다. ‘우리말샘’은 일반 참여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

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사전이다. 일반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는 표현·표기 감수를 거쳐 ‘참여자 제안 정보’로 표시되고, 이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검토한 후에는 ‘전문가 감수 정보’로 표기된다. 또 이 결과는 다른 사용자가 재수정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와 함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내놓았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가 실린 한국어 학습사전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공한다.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미래 한류의 동력이 될 10개 언어(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리말 샘’ 공모전 대상작

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으로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인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의 수상작 18점에 대한 시상식을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수상작은 9일 제570돌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6 한글문화큰잔치’에서 전시한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우리말샘’이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콘텐츠 생산의 보물창고로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 조선일보(10.6.) 역대급·대인배·갑질, 이제 대놓고 써도 되나요?

朝鮮日報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A21면 문화

역대급·대인배·갑질, 이제 대놓고 써도 되나요?

5일 개통 국립국어원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 살펴봤더니

“오늘 사전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임지인 아나운서의 소개말과 함께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국어사전인 ‘우리말샘(online.korean.go.kr)’ 개통식이 열렸다. ‘우리말샘’은 사용자들이 직접 어휘의 뜻과 정보를 더하거나 고칠 수 있고, 관용구·속담·역사 정보는 물론 사전·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이다. 국립국어원은 570돌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

앞두고 이날 개통식을 열었다. 시범 등록자로 나온 대학생 학생문씨는 “재는 나눔”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이라는 뜻을 직접 입력했다. 허씨는 “모든 국민이 ‘우리말샘’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어 지식을 많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는 나눔’을 골랐다”고 말했다.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단어에 신어(新語)와 생활 용어, 지역어와 전문용어 등을 보아서 모두 100만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에서 참가자들이 사전을 촬영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사전
新語·지역어 등 100만 단어 실려
발 빠른 현실 반영 취지 좋지만
잘못된 표현·語法 부추길 우려도

단어를 담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우리말샘’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10개 언어)’ 편찬 사업 등에 예산 220억원을 투입했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우리말샘’이 우리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통한 ‘우리말샘’에 들어가 보니, “개방형 온라인 사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새로운 단어가 많이 보였다. “그루밍(grooming)”쪽은 “자신의 패션이나 미용에 애착심이 투지하는 남자들을

이르는 말”, “굴피부”는 “굴을 바른 듯 윤기가 흐르고 촉촉해 보이는 피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갑질(상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것)”, “꽃청춘(다시 돌아오지 못할 인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젊은 남녀들)”처럼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도 적지 않았다.

“우리말샘”을 통해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이 사전에 실린 단어들은 모

두 표준어’라고 사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인배’의 반대말로 올라온 ‘대인배(大人輩)’와 ‘역대에 남을 만한 등급’이라는 의미로 쓰는 ‘역대급(歷代級)’이라는 단어도 ‘우리말샘’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무리’를 뜻하는 ‘배(輩)’라는 말이 폭력배·불량배·모리배·시정잡배처럼 주로 부정적인 말에 쓰이기 때문에 ‘아무리 넓고 관대한 사람’이란 뜻으로 ‘대인배’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급’ 역시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代)’라는 뜻의 ‘역대’와 ‘계급이나 등급’을 뜻하는 ‘급’이 합쳐진 것으로, ‘역대에 남을 등급’이란 뜻의 신조어이지만 말 자체로는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우리말샘’에 실린 100만 단어 가운데 절반인 50만 단어만 표준어에 속한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표준어로 인정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반영한다. 송철의 원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한국어의 규범이 담겨 있다면, ‘우리말샘’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매일경제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A31면 사람과사람

온국민이 만드는 ‘국어사전’ 나온다

한국판 위키 ‘우리말샘’ 개통

국립국어원이 개방형 국어사전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을 5일 개통했다. 2010년부터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이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은 한국형 위키피디아를 표방한다. ‘우리말샘’에서는 뜻풀이·발음·방언·용례 등 어휘 정보를 사용자가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단어에 신어·생활어 7만5000단어, 지역어 9만단어, 전문용어 35만단어를 더해 모두 100만여 단어가 표제어로 제시된다. 관용구 2234개, 속담 652개, 삽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도 수록된다. 반대말·높임말·비슷한 말 등 관련된 어휘를 그물망처럼 표시한 ‘어휘 지도’와 개인별 단어장, 자모·초성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단어가 언제, 어떤 문헌에 나타났는지 기록한 역사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제안된 정보를 전문가가 감수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참여자 제안 정보와 전문가 감수 정보를 따로 보여주고 편집 이력도 공개한다. 개별 어휘를 놓고 사용자들이 토론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사전의 수록 정보는 저작권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말샘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과 별도로 운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교육·언론 등 공적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말샘은 실생활에서 국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게 목적이다. 우리말샘에서 제안된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어문규범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슬기 기자

- 매일경제(10.7.) “문화까지 옮겨야 번역 느낌 제대로 살죠”

매일경제

2016년 10월 07일 금요일 A33면 사람과사회

“문화까지 옮겨야 번역 느낌 제대로 살죠”

온라인 ‘韓-외국어 사전’ 편찬 이끈 정호정 외대 교수…英·日 등 10개 언어 서비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을 외국어로 옮길 때 제일 좋은 건 영어로는 ‘생선에게 수영 가르친다’. 중국어로는 ‘목수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친다’ 같은 그 나라 속담으로 옮기는 거죠. 이처럼 문화적 맥락까지 옮겨야 제대로 살죠.”

국내 최초로 외국어 학습사전을 만드는 4년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지난 5일 국립국어원이 개통한 100만 표제어의 ‘우리말샘’ 사전과 함께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krdict.korean.go.kr)’도 문을 열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다국어 사전이다. 포함 언어권의 인구만 28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편찬을 이끈 정호정 한국외국어대 영어통번역학부 교수(56)를 6일 만나 편찬에 얹힌 사연을 들었다.

K팝과 드라마 등으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면서 한국어 학습사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 교수는 2013년 국립국어원에서 사전 편찬 제안을 받았다. 한국통역번역학회 회장으로 편찬을 이끌게 됐지만 처음엔 막막했다. 기존 외국어 사전은 한국어 뜻을 1대1로 옮기는 대응어



‘한국어 학습사전’ 사용법을 설명하는 정호정 교수.

〈이승환 기자〉

사전밖에 없었다. 각 나라말로 한국어를 설명하는 학습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선 대규모 인력을 꾸리는 작업부터 필요했다. 8개 언어의 통·번역학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외대 교수진과 현장에서 통·번역을 하고 있는 통역사, 태국어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학부 교수진을 섭외했다. 4년간 전문번역사와 교수만 234명이 투입돼 사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국말의 기초 어휘 5만1000여개를 10개 언어로 설명하는 이 사전에 실린 뜻풀이는 84만개에 달한다. 정 교수는 “언어적 치환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옮기는 작업이라 전문 번역자로 꾸린 팀이 아니면 할 수 없

는 험난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종이 사전이 아닌 온라인 사전이라 제약도 있었다. 구체적 학습 목적을 가진 종이 사전 독자와 달리 웹은 단순한 관심이 있는 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했다. 독자의 범위를 고학력자가 아닌 학생과 한류팬 정도로 낮추고 최대한 친절한 설명을 담았다. 지면 제한이 없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발음을 알려주는 음성과 이미지도 더했다.

“학습사전이 생겼다는 건 한글과 우리말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후 번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학습어 사전은 번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대표 언어학자와 교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번역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좋은 사례가 가득하니까요.”

고충을 겪은 건 ‘김치’ ‘한’ ‘재벌’과 같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뜻을 가진 문화소(cultureme)의 번역이었다. 예를 들어 ‘서방님’은 남편을 뜻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형제를 뜻하기도 한다. 서구에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없다. 이런 경우 ‘서방님’이란 음성을 그대로 옮긴 단어를 만들고 뜻풀이를 더했다. 사전에는 한국어를 그대로 옮긴 이 같은 단어만 1400여 개가 엄선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무언가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번역의 큰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편찬에는 10개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도 대거 참여했다.

정 교수는 마라톤과 같은 작업을 마치면서 ‘번역이야말로 국력’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자각했다고 털어놨다. “한국어만이 아니라 문화와 국력, 기술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알리는 데 있어 번역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슬기 기자

(메드 비드 모비 (mob))


전문가들은 신조어에 대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면이 공존한다고 판단한다. 국립국어원 김형배 박사는 “신조어는 많은 용어가 필요할 경우 신조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용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필요하게 한다”고 얘기했다. 이경원 한양대학교 대표장은 “신조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신조어와 같은 신조어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속치, 램프차지 등 용어를 함의하거나 공격하는 다른 사용자를 지칭하는 한다”고 “청소노동의 언어 사용에 비하면 신조어라는 용어만 있어 사용자들이 오해하고, 방송과 같은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하영·금보영 기자 hmk@

이처럼 신조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기
도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에
비속어와 외국어를 제멋대로 합성한 신조
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

동작구에 사는 주부 이모(57·여)씨는 "10대들이 쓰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하철에서 연애인 얘기를 하며 '존에보스', '귀찮이'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하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놴다. 반면 중학생 김모(18)은

최근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근에는 긍정적이지도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진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신조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실용과 같은 신조어는 형용사까지가 하나"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식속, 맘충처럼 남을 혐오하거나 공격하는 말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을 바꿀기보다는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방송과 같은 언론에서 남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하영·조보현 기자 



- 국민일보(10.10.) '신어(新語)'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국민일보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012면 사회

'신어'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新語〉

570돌 한글날... 국립국어원 내부방침 세워

성차별적 단어·비속어 등
발표 때마다 지적 잇따라
'헬조선' 등 사회 비판 단어
정치적 부담 느낄 수도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키로



국립국어원이 1994년부터 매년 발표했던 '신어'를 올해부터 외부에 발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신어에 성차별적인 단어와 비속어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신어 발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사회 비판적인 신어들을 발표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9일 "신어가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매년 신어 목록을 발표했지만, 정치적인 오해와 논란이 많아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전 의원은 신어 등록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신어 가운데 '된장녀'처럼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많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등록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

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3월 '일자리 절벽' '늬프족'(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비용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 등 334개의 '2014년 신어'를 발표했다.

2007년에도 신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국립국어원이 2003년 신어로 등록한 '놈현스립다'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었다. 단어는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는 뜻으로 당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것에서 유래했다.

일각에서는 신어발표 중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헬조선' 'N포 세대'와 같이 사회 비판적인 단어들을 신어로 발표하기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헬조선'은 경제난과 취업난 등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든 청년들이

'우리말샘' '신어' '표준어'의 차이점

구분	뜻	비 고
우리말샘	사용자 참여형 사전	누구나 새로운 어휘와 뜻을 올릴 수 있는 우리말샘 홈페이지에 올리면 국립국어원 승인을 거쳐 등재
신어	새로 등장한 낱말	-국립국어원이 매년 자체 프로그램(자동 신어 조사기)을 이용해 대중매체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을 수집 -우리말샘에 새로 등재된 어휘가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해 발표하는 신어에 반드시 포함되진 않음
표준어	공용어로 쓰이는 언어	신어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쓰이면 국립국어원 심사를 거쳐 표준어로 등재

(자료:국립국어원)

한국을 지옥에 빙뚫던 단어로 올해 크게 유행했다. 'N포 세대'는 2011년 신어로 등록된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와 2014년 등록된 '오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주택구입 포기)의 확장판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사회비판적인 단어들이 신어로 언급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선정 기준 등을 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제기될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제기된 '신어 논란'이 신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어는 말 그대로 '새로 등장한 단어'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인데 마치 곧 표준어로 등록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신어 조사 연구를 맡고 있는 남길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신어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신어 수집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1년 동안 공신력 있는 온·오프라인 대중매체 140여개를 대상으로 '자동 신어 조사기'라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신어를 수집한다. 이 가운데 특정인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경우 등은 논의를 거쳐 제외하고 매년 신어 목록을 발표한다. 이후에도 신어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국립국어원은 심사를 거쳐 신어를 표준어로 등재할 수 있다. 신어가 표준어로 등록되기까지는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 김정선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신어는 대중의 사회의식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며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매년 하던 발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립국어원은 신어 조사와 별도로 지난 5일부터 '우리말샘'이라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 사이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 한국경제(10.10.) 국어사전에도 등록된 ‘甲질’의 기원은...

한국경제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A04면 기적

국어사전에도 등록된 ‘甲질’의 기원은...



첫째 이르는 甲 + 부정적 접미사 ‘질’ ... 해외선 마땅한 표현 없어 ‘gabjil’로

‘갑(甲)’은 유교 경전인 《주역》에서 다루는 10간(干)의 첫 자다. 사주에 갑이 들면 우두머리, 관직의 필자를 타고난다고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선 ‘저래나 등급을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말’ 등으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에 부정적인 접미사 ‘-질’이 붙어 ‘갑질’이란 단어가 생겼다.

국립국어원이 지난 5월 개통한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선 ‘갑질’을 신조어로 등록했다. 우리말샘은 위키피디아처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국어사전이다. 여기서 갑질을 ‘상대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법에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계약서상 갑을관계 횡포서 비롯
상명하복 문화 강한 H도 심하지 않아
사회적 경쟁 치열할수록 많이 나타나**

풀이했다.

역사적으로 갑과 을(乙)의 관계는 항상 존재했다. 유교권인 동양에서는 갑을 관계가 상명하복, 장유유서 등과 같은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상징했다.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 갑을 관계는 세롭게 바뀌었다. 산업화가 급진전하면서 사장과 종업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사회적 갑과 약자’가 나타났다. 법률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지칭한다.

대개 ‘갑’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회사), ‘을’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갑을관계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던 시대에서 공급이 수요를 재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때 올이던 소비자가 갑으로 바뀌었다.

선진국에서 갑질은 낮은 표현이다. 갑질에 딱 들어맞는 영어 표현도 마땅치 않다. 2014년 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땀퐁회화’를 두고 해외 언론에선 갑질을 ‘gabjil’이라고 표현하고,

‘high-handedness(고압적인 행태)’로 부연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갑질을 경계한다. 한국 못지않게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도 갑질은 심하지 않다. 일본에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다.

갑질은 한국에서 유독 심하다. 박근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존중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랫사람은 자신이 당한 갑질을 대물림하면서 수직적인 갑질문화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함정환기자 jung@hankyung.com

- 서울경제(10.11.) ‘아재개그’ 올리자... ‘국민참여’로 뜻풀이 결정

서울경제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A35면 문화

개방형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 써보니

국문 찾기

‘아재개그’ 올리자... ‘국민 참여’로 뜻풀이 결정

누구든지 회원가입해 어휘 등록
뜻풀이·용례 입력후 수정도 가능
전문가는 최대2주내 감수 마무리

‘뇌섹남’ 등 신조어 등록은 저조
“적극적 대국민 홍보 필요” 지적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라는 뜻으로, 재미가 없는 농담을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이 최근 개통한 참여형 우리말 웹사이트 ‘우리말샘’에 신조어 ‘아재개그’라는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다. 우리말샘에 기자가 참여해 이들 만에 얻어진 뜻풀이 결과이기도 하다.

기자는 기존 사전에 등록돼 있지 않은 신조어 아재개그에 대한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말샘에 올렸다. “아저씨의 낯춤같은, 아직 결혼 안 한 남자를 부르는 강요도 화천지방의 사투리인 아재와 개그의 합성어다. 아재의 원뜻과는 달리 재미없는 농담을 지칭하게 됐다.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세대와 상관없이 ‘썰렁’한 농담은 모두 아재개그라고 부른다.”

이후 이들과의 적절성 검사와 전문가 감수를 거쳐 우리말샘의 아재개그에 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등 한글 관련 주요 인사들이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뜻풀이는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라는 뜻으로, 재미가 없는 농담을 이르는 말’로 결정됐다. “‘전화기로 세운 건물은 폴로세움’ 같은 썰렁한 농담이 ‘아재 개그’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기몰이 중이다”라는 용례도 덧붙여졌다.

우리말샘은 개방형 사전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어휘 등록, 뜻풀이 수정을 할 수 있다. ‘우리말샘’이 개통하면서 그간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사전의 집필진으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달리 과도한 비속어, 욕설,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집단을 비난

하거나 찬양하는 말 등이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적절성 검사를 거친다. 국어원은 등록 적절성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 감수는 최대 2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기자가 등록한 ‘아재개그’ 또한 등록 적절성 검사를 거쳐 하루 뒤 참여자 제안 정보가 됐고, 그 다음 전문가 감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우리말샘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 ‘떡방(떡는 방송의 줄임말)’ 등 새로운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조어가 많이 등록돼 있지 않은 점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

힌다. 또한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돼 있는 50만 어휘와 지역에 전문용어까지 더해 총 100만 개의 어휘가 수록돼 있지만 일상어는 7만5,000개에 불과하다.

5일 개통 이후 10일까지 열세 동안 참여자 제안 정보가 276건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적극적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등록 건수 등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면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받는 등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오피니언) 기고·칼럼 지면 기사 모음

- 중앙일보(8.25.) 100만 단어창고 ‘《우리말샘》’

중앙일보

2016년 08월 25일 목요일 031면 사설/칼럼

100만 단어창고 ‘우리말샘’



분수대

박 정 호

논설위원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1990대 중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활(弓) 부위 명칭을 기술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꽤 난감했다. 이런저런 사전을 참고했지만 책마다 뜻풀이가 조금씩 달라 고생했다. 『17세기 국어사전』을 만들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말(馬) 관련 지식이 달려 말의 부위를 설명하는 데 애먹었다. 국어학자로서 한계를 느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닭도리탕 논란도 흥미롭다. 한국어 닭에 일본어 도리(새·鳥)가 결합한 단어로 알려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순화어로 ‘닭볶음탕’이 제시됐다. 반면에 권대영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장은 닭도리탕이 순수 우리말이라고 주장했다. ‘도리’가 우리말 ‘도려내다’ ‘도리치다(잘게 자르다)’ 등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제법 설득력이 있다. 국어사전 뜻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언어는 생명체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새 뜻이 추가된다. 그런데 사전은 보수적이다. 원칙과 규범을 지킨다. 둘 사이의 충돌은 속

명과 같다. 오는 10월 한글날에 맞춰 찾아오는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그런 창고 방패의 모음집이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처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99년 나온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신어·방언·전문용어 50만 단어를 합해 표제어 100만의 방대한 ‘날말창고’가 탄생한다. 17년 만의 대변화다.

‘우리말샘’에는 일반인도 참여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립국어원 검토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오류도 잡아낼 수 있다.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7년, 210억원이 들었다. 만만찮은 기간, 무시 못할 돈이다. 개통 초기에는 혼란도 예상된다. 새로 올라온 단어를 표준어로 오해하는 일도 빚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 언어 생활을 망라한다는 의미는 크다. 어차피 집단지성 시대 아닌가.

일례로 ‘착하다’가 있다. 요즘엔 ‘값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로도 쓰인다. 젊은 주부들 SNS 용어인 ‘섬니(시아머니)’ ‘#G(시아버지)’ ‘얼집(어린이집)’ 같은 언어 파괴가 아닌 한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다. 다변화된 시대 ‘편민(便民·백성을 편하게 함)’ 원칙이다. ‘우리말샘’에도 많은 오류가 포함됐을 것이다. 뜨거운 설전이 기다려진다. 잘못된 건 고쳐 나가면 된다. 애들처럼 언어도 닦두며 커 가는 걸 테니까... 세대 불통의 시대, ‘우리말샘’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문화일보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030면 오피니언

오후여담

한글 새 공간 ‘우리말샘’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 사회적 기부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재능 나눔’의 국민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의 풀이이다.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통식을 가진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사전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에 참여자 제안 정보 제1호로 등록됐다. 그렇다고 이 말이 바로 표준어가 된 건 아니다.

전문가의 감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앞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 집단 지성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한글판 위키피디아 우리말샘은 100년 가 몸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처럼 새로운 어휘와 풀이말

이 끊임없이 판올림 되면서 언중(言衆)의 갈증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말샘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지역어·전문용어 50만 어휘 등 모두 100만 어휘를 담고 이날 첫 장을 열었다. 1999년 10월 9일 두산동아에서 인쇄·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50여만 어휘, 7327쪽에 8년 동안 112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됐다. 하지만 정제된 표준어를 중심으로 만들 어졌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왕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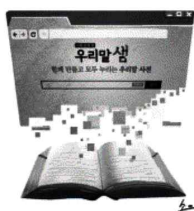
쪽방, 홈페이지(누리집) 같은 말이 신조어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3~4년은 살아 있어야 하고 모든 계층이 거부감 없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사전 표제어로 오르려면 그 이상이 걸린다. 사투리나 새 외래어, 일상어, 전문용어, 신어 등 비표준어는 바른 쓰임새와 풀이말을 즉시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 단점을 우리말샘이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것이다. 빠른 풀이와 비슷한말·반대말

및 참고 사진 등을 누군가 계속 판올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류바로잡기와 새로운 쓰임 및 활용·변화 반영은 물론 속어와 지역어 등재 등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우리말샘에 표제어로 올랐다고 해서 바로 표준어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혼란도 우려된다. 또, 누군가의 조작·왜곡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말샘이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점들이다.

국어사전은 모든 언중의 스승이다. 동시에 한글의 공간이요 도서관이다. 사전이 분명 책이지만 사전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찾는다고나 본다고 하는 까닭이다. 사용자 참여형 우리말샘이 날마다 진화해 한류 확산의 새 동력이자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황성규 논설위원



새언각비

‘우리말 장터’가 열렸다

“요즘 ‘(병)따개’라고 쓰는 말을 예전엔 ‘오프너’나 일본말 ‘첸누키’라고 했습니다. 애초 정부에서 순화 작업을 하면서 제시한 말은 ‘마개뽑이’였는데, 그리 호응받지 못했어요. 대신 누군가가 쓰기 시작한 따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2004년 남기십 당시 국립국어원장은 한글날을 맞아 한 인터뷰에서 우리말 순화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순화작업이 성과도 컸지만 때론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패 사례는 많다. “놀이(희곡), 노래(시), 이야기(소설) 같은 것을 싸잡아 ‘문학’이라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말의 예술’인데 ‘말로써 피워낸 꽃’이니 ‘말꽃’이라 할 만하다. 일본에서 만든 문학이란 말 대신 말꽃을 써보자.” 평생을 우리말 살리기 위해 이바지한 국어교육학자 김수업 선생(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2009년 저서 《우리말은 서럽다》에서 ‘말꽃’이란 말의 탄생을 세상에 알렸다. 일부 호응도 있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다. ‘100년 동안 써온 말을 생판 낯선 말로 바꿔도 되느냐’, ‘사라진 줄 알았던 국수주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게 비판의 요지였다.

우리말을 갈고 닦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국어 순화 부문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

러다 보니 너무 기계적이고 이상적으로 흐르는 한계가 있었다. 짜장면이 당연히 표준어 대접을 받은 것은 2011년이 돼서였다. 북한에선 한때 아이스크림 대신 얼음보숭이를 쓰도록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결국 1992년 《조선말대사전》을 폐내면서 얼음보숭이를 버리고 다시 아이스크림을 문화어로 올렸다.

570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립국어원이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을 지난 5일 개통했다. 우리말샘은 위키피디아식으로 운영한다.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해 새로운 말을 올릴 수 있고, 뜻을 깊고 더할 수도 있다. 자유로운 경쟁과 정반합 과정을 거쳐 최적의 우리말을 찾아가는 게 목표다. ‘언어의 자유시장’이 마련된 셈이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국민 참여의 장(場)을 통해 진정한 언어 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통 첫날 허성문 씨(이화여대 국문과 3년)가 ‘재능나눔’을 1호 제안으로 등록했다. 재능나눔은 재능기부와 함께 쓸 수 있는 말이다.



홍성호 이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우리말이 달라졌다



특별기고

조현웅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우리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휘나 문법, 음운의 변화를 하나하나 느끼게 된다. 이런 변화 과정을 탐색하면서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그런데 언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후세의 언어학자들이 요즘의 한국어를 연구한다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말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세대 간에도 말이 안통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일에 따라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정말 우리말이 달라졌다.

나 역시도 어릴때 쓰던 말 중에서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 많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한 세대도 안 돼서 언어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또는 사라져감으로 인해 생긴 일인 경우도 많다. 휴대전화, 스마트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어휘는 내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하는 말이었다.

반대로 국민학교, 교련북, 다이얼, 회수권 등은 이제 사라진 말이 됐다. 어릴때 쓰던 수많은 일본어 어휘도 이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많은 유행어나 신어도 쏟아지고 있다. ‘쏟아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 속으로 확산되며 들어온다. 사람에 관한 어휘 중에 왕따, 훈남, 꽃미남, 꽃중년, 돌싱, 골드미스 같은 말 역시 없었다. 말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간호원은 간호사가 됐고, 불구자는 장애인

인이 됐다. 요즘엔 운동권이란 말도 잘 안보인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범위도 훨씬 늘어나고 있다. 예전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재외동포의 수는 훨씬 증가했다.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외동포는 해외 한국어 공동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민자의 수도 놀라운 속도로 늘었다.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외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방문해 보면, 그 열기에 놀라게 된다. 세종학당은 우리나라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한국어로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한국어로 된 글을 읽고 번역하는 사람의 숫자는 급증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들의 한국어 능력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지난 5일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사전 ‘우리말 샘’이 개통됐다. 기존에 표준어만 실는 사전을 넘어 현재 실제로 쓰이는 어휘를 포함하고 언중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전이다.

우리말 샘을 통해 한국어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담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생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어의 모습을 담은 사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을 통해 우리말은 다시금 달라질 것이다.

“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사전 ‘우리말 샘’이 개통됐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담기게 될 것이며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통해 우리말은 다시금 달라질 것이다.

”

문화일보

2016년 10월 07일 금요일 038면 오피니언

오후여담

갑질, gabjil

■ ‘갑(甲)질’ 도 결국….

국립국어원이 5일 개통한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은 ‘갑질’을 올려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 ‘(명사) 상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짓.’

저 자신만 잘난 줄 알고, 을(乙)이라면 말부터 놓는 ‘갑질’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근간 ‘상류의 탄생’ (김명훈 저, 비아북·2016.6.3)은 미국 주간지 ‘애틀랜틱’ (The Atlantic)이 ‘땡콩 회항’ 사건의 여파를 다룬 적 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 “기자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gabjil’이라 표기하고 영어로 대략 ‘하이핸디드니스(high-handedness)’ 정도 되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고압적인 행태’쯤 되겠다.”

그렇다. 인간적으로 영 돼먹지 않은 짓거리가 ‘갑질’이다. 저자는 ‘gabjil’로부터 사회를 구하고 지킬 상류의 10대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 배려·책임·통찰·원칙·예의·절제·청렴·전통·박애·품위.

이 10대 덕목을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딱 한 가지, ‘책임’으로 압축하고 있다. 근간 ‘특혜와 책임’ (가디언·2016.8.22)의

부제(副題)를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달고 그 머리말도 옥스퍼드사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의에서 빌렸다 -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 (Privilege entails responsibility).

“고위직층은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질정(乚正) 못지않게 법에도 ‘갑질’이 있다고 지적인 대목 또한 재독할 만하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제2조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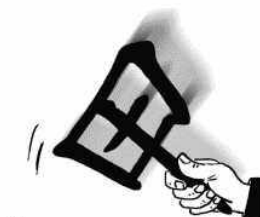
에서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번드르르, 번지르르해 하기

쉽고 듣기 좋은 이 법에 대해 송 교수는 “인성을 어불성설(語不成說) 법으로까지 묶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곧 천민성(賤民性)”이라고 손사래 치고 있다.

김영란법 입법자의 ‘인성’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은 안 되지만 직접 만든 종이꽃은 괜찮다던가. 법으로 이렇게까지 미는 것이 아니다. 법원 판례 기다리지는 말도 그렇다. 듣기 그럴듯해 판례이지, 결국 누군가가 얼마나 혼나고 당하는지 지켜보자는 천민성 gabjil이니....

홍정기 논설위원



문화일보

2016년 10월 07일 금요일 037면 오피니언

진화하는 우리말 사전



기고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한때 ‘남녀 학생들이 사교를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미팅’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의 종류로서 ‘소개팅, 고고팅, 뽀빠팅, 등산팅’과 같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 단어들은 ‘미팅’에서 ‘-팅’을 떼어 내어 접미사처럼 사용해서 만든 신조어들이었다. 1970,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대개 알 만한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는 ‘소개팅’ 뿐이다. 나머지 단어들은 잠시 쓰이다가 사라져 버렸다. 고고장이 없어졌으니 ‘고고팅’을 할 수 없게 됐고, 뽀빠도 사라졌으니 ‘뽀빠팅’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이런 말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등산팅’이 사라진 것은 등산을 통한 미팅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새로이 만들어지는 많은 말(단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오래 살아남아 표준어의 지위 예까지 오르지만 어떤 것들은 잠시 유행하다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을 지향하는 사전이니 잠시 유행하다 사라지는 단어들까지를 담아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 최근 들어 윗뜨다(웃기면서 슬프다), 혼밥(혼자 먹는 밥, 또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 혼술(혼자 마시는 술, 또는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 식감(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같은 단어들이 실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어떤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르려면 폭넓은 조사 과정과 몇 단계의 논의 및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로 든 네 단어는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 사회 언어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말의 표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이다. 그러나 규범 사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살아 숨 쉬는 실생활 어휘들을 폭넓게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잠시 쓰이다가 사라지는 유행어까지 담아내기는 어려웠고, 새로이 나타난 신조어를 그때그때 담아내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570돌 한글날을 앞두고 신개념 사전인 ‘우리말샘’을 편찬해 지난 5일 개통했다. 우리말샘은 웹 기반 사전인데, 눈부시게 발달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우리말 어휘를 총체적으로 담으면서 국민의 국어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사전이다. 일단 100만 항목을 담아 개통했는데, 이 사전은 완성된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나하나 길고 더하여 완성해 나가야 할 사전이다. 따라서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 있고, 사전의 뜻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추가한 단어나 수정한 뜻풀이가 곧바로 사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들만 사전에 반영된다.

우리말샘이 풍요롭고 알찬 사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시도된 이 국민 참여형 사전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말, 우리 문화의 보물창고가 될 이 사전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말도 아낌없이 보내 주기를 바란다. 물론 국립국어원도 나름대로 이 사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유행어도, 신조어도, 나아가 방언까지도 실릴 수 있는 우리말샘 사전의 개통을 계기로 우리말 어휘의 총체적인 정리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세상만사

한글날

오는 9일은 한글이 세상에 나온지 570돌이 되는 날이다. 한글날을 맞아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글문화큰잔치’에 이어 경축식이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다.

최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와 한국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설치한 세종학당이 지금은 57개국 143곳으로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 등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신조어와 은어, 비속어 등이 넘쳐나면서 건전한 한글 문화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SNS에서는 축약어나 합성어가 늘어날 뿐 아니라 비하나 차별 등 부정적 의미의 언어를 사용해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단상황이 길어지면서 남북 사이의 한글 이질화도 심화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본식 용어가 많이 남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영어 등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브랜드만해

도 외국어나 국적 불명의 언어 일색이다. 산업현장에서도 각종 용어들을 한글로 순화시켜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으로 새로운 단어나 표현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외래어를 변형하거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최근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웹사이트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들을 개통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말의 쓰임과 현상을 담아낼 이 사전이 많이 활용돼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축적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사용 실태와 언어생활에 불편이 없는지를 꾸준히 점검해 그 결과를 표준어 선정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한글을 사용할 때 더욱 만족하고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 품격있는 언어문화를 확산시켜 아름다운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한철(논설실장)

(16.5*13.7)cm

경향신문

2016년 10월 08일 토요일 026면 오피니언

내가 만드는 사전 ‘우리말샘’



조운찬의
들숨날숨

경향 후마니타스연구소장

베이징 특파원 시절, 나는 업무의 많은 시간을 <현대중국어사전(現代漢語辭典)>을 옆에 두고 중국의 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찾아 읽으며 보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새롭게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나 신조어의 뜻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망홍’(網紅·인터넷 스타)이나 ‘화성문’(火星文·문자와 부호 등을 조합해 뜻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글자)과 같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난감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땅에 사는 외국인들도 한국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신조어나 유행어를 만나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헬조선’에서 조선시대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심쿵’이라는 어휘를 만나 정말로 ‘마음이 쿵’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어휘를 접하면 ‘대략 난감’해진다. 신문 기사나 블로그를 검색해 뜻을 유추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정확한 의

미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개정판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고, <신조어사전>이 발간되기도 하지만 사전 편찬이나 증보 작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언어생활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새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소식을 들었을 때 베이징 생활이 떠오르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인터넷용어 같은 새로운 어휘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샘’은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신개념의 웹사전이다.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50만 어휘에 웹상에 새로 구축한 신조어, 방언, 전문용어를 포함해 모두 109만7259개의 표제어로 시작했다. 이 사전은 종이사전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표제어가 늘어난다. 개통 이틀이 지난 7일 현재 27개의 새로운 단어가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매년 수천개의 새로운 단어가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말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시민이 사전 편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어사전 편찬은 국어학자나 사전 전문 편집자 등 전문가들의 몫이었다. 일본영화 <행복한 사전>을 보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두고 편집자들이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어휘의 뜻을

이는 그만큼 지난한 일이다. 당연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언어 사용자만큼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또 단어의 뜻은 시기와 장소, 사용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휘 풀이는 수학 문제와 달리 언제,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언어생활을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조어의 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글’을 예로 들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로,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명칭’이다. 그런데 최근 ‘2016 국어사전 진흥공모전’에서는 이것 이외에 ‘한글’에 대한 다양한 뜻풀이가 제시되었다. 대학생 응모자는 ‘인간과 자연의 이치가 뿌리 깊이 이로새겨진 우리 고유의 문자로, 한국인의 얼과 생각의 타전을 다지는 소중한 빛’이라고 풀었고, 고등학생은 ‘분단된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글자’라고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은 ‘세종대왕님이 정성껏 만드신,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이라고 풀이했다. 누가 <표준국어대사전>만 맞고 초등학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

을까. 단어의 뜻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사전 집필자가 될 수 있다.

일반인이 웹사전의 필자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말샘’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몇해 전부터 ‘위키피디아’라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국내의 한 포털사이트는 ‘오픈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웹국어사전을 운용 중이다. ‘우리말샘’이 이들 사전과 다른 점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협업을 거쳐 어휘의 뜻을 정의한다는 점이다. ‘우리말샘’에 선보인 ‘새로 오른 말’ 27개는 모두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토대로 전문가의 감수와정을 거쳐 등재됐다. ‘흙수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재개그’는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라는 뜻으로 재미가 없는 농담을 이르는 말’로, ‘극혐’은 ‘어떠한 정도도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함’이라고 풀었다. 어떠한가. 이 정도 작업이라면 용기를 내어 사전 만들기에 도전할 만하지 않은가.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은 국어사전이면서 웹상에서 사전을 만들어가는 공작소이다. ‘헬조선’, ‘심쿵’, ‘대략난감’...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새로운 말의 뜻풀이 작업에 참여해 보자. 이것만큼 한글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있을까?

東亞日報

2016년 10월 08일 토요일 A26면 오피니언

|| 특별기고 ||

아름다운 말 ‘한글’

“어머니 뺏속에서부터 벌써 배어 가지고 나온 그 아름다운 말... 영주(英主) 세종께서 만드사 널리 서민에게까지 퍼주신 ‘가나다라’의 그 가락한 문자.”(김동환의 시 ‘읽은 것 얻은 것’)

한글은 조선시대에 언문이라 멸시당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글이라 탄압받았다. 1911년 조선광문회 주시경, 최남선, 현채, 김두봉이 최초로 한글사전 편찬을 시작했으나 일제 탄압 속에 중단되고 만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29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이극로에게 조선어사전 편찬은 독립운동 문화운동 계몽운동이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인도네시아가 짜아짜아족이 토착어를 지키려 한글을 사용키로 한 뉴스를 전했다.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국어는 그리스어와 함께 우수한 알파벳 표기체제를 갖춘 매우 경제적 민주적인 문자이다.” 그리스 아테네대 요르고스 바비니오티스 총장은 감탄했다. 1963년 미국 학자들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조어 방식을 그림으로 추상화한 문자인 ‘보이는 음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학자들은 한글이 ‘보이는 음성’에서 제시한 착상보다 400년 앞섰다고 경탄했다. 필벽도 한글 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단순글자이며 자음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언어와 음성이라도 표기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인은 79%만 글자를 읽고 쓴다. 우리 문맹률은 0%에 가깝다. 쉽고 간결한 한글 덕분이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인 이유는, 역동적 국민성과 함께 발음 그대로 표기하며 자음 모음을 환상적으로 조합해 빠르게 언어를 정보화할 수 있는 한글 덕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어 실력이 빈약해 보고서조차 제대로 못 쓰는 사회인들과 대학생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영어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시달리

는 학생들. 우리는 먼저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한민족 자유이고 사상이며 정신임을 잊은 게 아닐까. “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도 멸망한다.” 주시경 선생은 가르쳤다.

훈민정음 반포 570년, 한글날 90년, 광복 71년을 맞은 오늘날 왜 우리는 국어를 홀대하는가. 어린시절 읽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떠오른다. “그날, 교실에는 대장간집 아저씨, 물방앗간집 아주머니, 푸줏간집 영감을 비롯해 마을 어른들이 뒤쪽에 서 있었다. ‘오늘이 우리 국어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 프랑스 만세!’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학생 학부모 모두들 눈물을 글썽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자기 세계의 한계라고 했다.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한국 독서 인구는 전체의 6%뿐이라고 한다. 일본 독서 인구 75%와 비교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문제는 6%와 75%라는 이 숫자가 그대로 과학기술과 문화와 국력 차이를 말한다는 점에 있다. 신문과 책을 읽지 못한다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광복 이후 수많은 대학이 생기고 그 주변에 서점도 많이 들어섰다. 그러나 4·19를 고비로 서점이 하나둘 줄어들다가 EBS 교재 수능연계 출제율 75% 때부터 서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서점 없는 대학가’라는 현상에 맞닥뜨린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샘”을 개통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콘텐츠 생산 보물창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함부로 만들어내는 ‘힐링하다’ ‘그루밍’ 등 인터넷의 경박한 유행 조어들이 제발 한글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정 일

소설가·동서문화 발행인



東亞日報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A29면 오피니언

습습하다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다. 시간을 기다리며 마시는 ‘개암 커피’ 향이 요즘 따라 기막하다.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가을 풍경에 취해서일까.

개암 커피라고?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이 많을 줄 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셨을 법한, 부드럽고 향긋한 헤이즐넛(hazelnut) 커피가 바로 개암 커피다. 헤이즐넛의 우리말이 개암이고, 헤이즐(hazel)은 개암나무다. 왜 있잖은가. 개암은 도깨비들이 그 깨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방망이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전래 동화 속의 바로 그 열매다. 모양은 도토리과 비슷하지만 맛은 밤보다 고소하다. 개암과 개암나무를 깨금과 깨금나무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둘 다 강원 전북 충청 지방의 사투리다. 자, 오늘부터 헤이즐넛 커피를 개암 커피로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마시고 먹을 때 가끔 ‘습습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맛 좀 볼래. 내 입에는 습습한데” “나물은 습습하게 무쳐야지” 등에서 보듯 습습하다는 ‘조금 싱겁다’는 뜻으로 많이 쓴다. 한데 우리 사전은 습습하다를 ‘심심하다의 잘못’

이라고 고집한다. 습습하다의 세력도 만만찮은데 말이다. 습습하다는 말은 싱겁다거나 심심하다와는 또 다른 감칠맛이 있다. 이쯤이면 습습하다를 복수표준어로 삼는 걸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습습하다는 물론이고 ‘무습습하다’도 문화어로 삼고 있다. 무습습하다는 ‘아무 맛도 없이 습습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니 습습하다보다 더 찬밥 신세인 낱말도 있다. ‘음식 따위가 싱겁다’거나, ‘본래의 맛과 느낌에서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 때’ 쓰는 ‘닝닝하다’다. 언중은 멍멍하다, 땡땡하다와 함께 닝닝하다도 입길에 올리지만 ‘멍멍하다’와 ‘느끼하다’의 경남 지역 사투리 신세다. 그마저도 ‘우리말샘’을 통해 겨우 알려졌다.

국민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이 5일 개통한 사실을 아시는지.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 있고 사전의 뜻을 수정할 수도 있는 웹 기반 사전이다. 우리말 위키피디아 사전이라고나 할까. 사실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 사전이어서 실생활 어휘들을 때맞춰 폭넓게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말샘에 표제어로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표준어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말의 공간이 더 풍성해질 것임은 틀림없다. ‘닝닝하다’가 새삼 주목을 받는 것처럼.

songbak@donga.com

東亞日報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A33면 오피니언

진화하는 국어사전 ‘우리말샘’ 사용법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은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지은 ‘큰사전’(1947년) 머리말에서 “말이 문화의 표상이며 제 사전을 갖지 못하면 문화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큰사전’은 일제 암흑기에 선열들의 준비와 희생이 있었기에 사전 편찬에 이어 ‘한글맞춤법’ 규정이 제정되고, 국어교육도 신속히 회복되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달 5일 국립국어원의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이 개통되었다. 100만 항목 규모에 어휘사, 음성·영상, 어휘 지도, 수어(手語) 정보까지 갖춘 한국어 문화정보의 집합체로서, 단일어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전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한데 모은 적이 없었기에 국가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어학계를 비롯한 각 전문 분야의 축적된 경험 덕분에 나온 것이며, 앞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양과 질이 날로 드높아지는 문화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말샘’에 날마다 올라올 수많은 제안의 검토와 감수를 신속하고도 내실 있게 하려면 정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감수단을 구성하고 그 권위를 높여야 양질의 사전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식 정보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전문용어의 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말샘’은 온 국민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의 샘이 되어 선진 한국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말도 안 되는 비속 유행어가만 들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거짓 정보를 진짜로 꾸며 올려 지식의 샘에 독을 타면 안 된다. 말샘에서 퍼 올린 시어가 상처받은 이들을 살리는 소통과 위로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 신세대에서 노인의 말까지 아울러 국민 소통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말샘’은 참여형 사전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여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국어 지식이 담뱃 쏟아지면 좋겠다. 그것이 이번에 등재어 1호가 된 ‘재능 나눔’의 참뜻일 것이다. 족보에 이름 석자 남기기보다 우리말 족보인 ‘우리말샘’에 어머니에게 들던 토박이말, 자기 분야 전문어 하나라도 실명으로 정성껏 올려서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 보자. 누구나 ‘우리말샘’ 약수터를 찾아 음미해 보고 ‘우리말샘’을 온누리 한국어 지혜와 소통의 약수터로 정성껏 가꾸어 보자.

민 현 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서울신문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029면 사설/오피니언

말빛 발견

올려라 올려라 우리말샘

연못은 물을 모아 놓은 곳이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샘은 물이 나오는 곳이다. 자연이 만든다. 샘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솟는다. 고여 있지 않으니 같은 물이 아니라 항상 새 물이다. 그래서 샘은 새롭고 끊임없이 살아 있다는 의미를 전한다.

말도 그렇다. 사람 사이에서 끝없이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사람 사이는 또 다른 자연이다. 기존의 말들도 상황에 따라 뜻이 변하며 의미를 덧붙여 간다.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때 뜻빛깔을 달리하기도 한다.

지난주 '우리말샘'이라는 국어사전이 선을 보였다. '사전'이라 하지 않고 '샘'이라 했다. '말샘'인 샘이다. 시대의 변화, 말의 변화, 말이 생겨나는 환경의 변화 같은 여러 사정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결과를 내놓았지만 진행 중인 사전이기도 하

다. 끝없이 잇고 기워 나가는 편찬 방식을 택했다. 사전 전문가들만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식이다. 종이사전이 아니라 웹사전이다. 누구나 '우리말샘'의 '집필 참여하기'에 들어가서 어휘를 등록하고 뜻풀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뒤에 감수를 하게 된다.

'우리말샘'은 국가가 만들어 가는 국어사전이다. 양도 만만치 않다. 약 100만 개의 어휘를 담아 출발했다. 어휘 수가 많은 건 반길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더 좋은 사전에 대한 대중의 간절함이 깊고 크다. 더 쉽고 선명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길 바란다. 국어사전을 찾는 이들의 희망이다. 모두의 힘이 있어야겠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경우 어문팀장 wlee@seoul.co.kr

양해원의 말글 탐험

입소문과 소문의 차이

머리 박박 깎인 꼬맹이들이 검정 교복에 싸여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책가방엔 교과서·공책, 양은도 시락에, 펜이나 만년필, 잉크병 따위를 담았다. 작으나마 옥편(玉篇), 영어 사전(辭典)도 빼놓지 않았다. 중학교 가서야 처음 배우는 abc며 ‘I am a boy’가 신기하기도 해서 재미삼아 사전을 들추곤 했다. 다른 녀석들은 얼마나 손때 묻혔는지 넋지시 살피기도 하고.

국어사전은 달랐다. 우리말이 그나마 익숙해서였을까, 아니면 대수롭잖게 여겨서였을까. 잘 있지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 하물며 이젠 인터넷 검색창에 타닥 치면 다 뜨는 세상 이거니. 게다가 ‘개방형 웹 사전’이라는 ‘우리말샘’이 새로운 흐름을 일으킬 모양이다. 사전도 시대를 반영하니 차츰 바뀌어야 마땅하다. 다만 정도(程度)가 문제인데. 국립국어원 인터넷 사전에 새로 오른 말에 명명해진 적이 있다.

‘한국 양말이 싸고 질(質)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양말 전문점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잡지(기자)는 바닥이 좁다 보니 말은 분야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냈는지 입소문이 중요하다.’

신문에서도 심심찮게 눈에 띄기에 설마 했는데 이 ‘입소문(所聞)’이 버젓이 올림말이 된 것이다. 1999년 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던 말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소문이다. 입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이라 풀이했다. 말 자체가 겹말이요, 풀이는 동어 반복이다. 그럼 소문이 달리 번지길라도 한다면.

‘맞대결’은 또 어떤가. ‘서로 맞서서 대결함.’이 ‘대결’ 풀이 또한 야릇하다. ‘양자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 겨루기·맞서기로 순화.’ 순화어까지 내놓고 정작 겹말인 맞대결은 왜 그냥 뒀는지.

물론 일찍이 표준어로 인정받은 겹말도 널렸다. 고목나무, 낙숫물, 단발머리, 생일날, 역전앞, 해안가... 오랏동안 입에 오르내리며 글로도 쓰임새가 굳은 탓이다. 한데 아직 운명을 알 수 없는 겹말에 애써 숨을 불어넣을 것까지야. 예외가 많이지면 틀이 망가질 수 있다. 살릴 건 살리되 속을 건 속아야 더 살진 발이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책장 꾸미게 대접도 못 받는 애꿎은 사전을 어쩔다. 매일 밤 사그락사그락 뒤적이기라도 해야 할까 보다.

글지기 대표

한국일보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A29면 오피니언

우리말 톺아보기 우리말샘

지난주에 국어사전의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일이 있었다.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이 개통된 것이다. 이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단어에 새로 일상어, 지역어, 전문어 등 50만 단어를 더해 약 100만 어휘를 수록한 방대한 웹 사전이다.

무엇보다 이 사전은 국민 참여형 사전으로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사전의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른바 한국판 위키피디아 사전인 셈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어휘가 폭넓게 수록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전에는 ‘꽃할배, 아재개그, 치맥, 심쿵, 금수저, 웃프다, 힐링하다’ 등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단어들이 올라 있다. 독자들도 사전 집필자가 되어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를 올릴 수 있다.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은 이 사전으로부

터 표준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것이다. 표준어는 보수적인 면이 강하여 어떤 말이 표준어가 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근래 새로 표준어가 된 예만 보더라도 ‘뜨락, 내음, 속앓이, 손주’ 등이 표준어 자격을 얻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다. 또 반대로 이미 가치를 잃은 말들이 계속 표준어 지위를 누리기도 한다. ‘게으르다, 게르다, 개으르다, 개르다’를 보면, ‘게으르다’만 주로 쓰이는데도 나머지 세 단어까지 모두 표준어이다.

이런 말들에 비하면, 오히려 새로 생겨나 쓰이는 말들 가운데 더 표준어 자격을 얻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개방형 사전에 오르면 좀 더 여전한 국어로 대접받고, 좀 더 활발히 표준어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말샘’으로부터 고여 있는 표준어에 새 물결이 일기를 기대해 본다. 허철구 창원대 국어국문과 교수

정보화 시대의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사회 환경이 변하면 언어 사용 양상도 변하게 된다.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가 아니라 말로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듯,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우편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듯, 하는 예들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카카오톡이 나타나면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자로 소통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사전이 이러한 말광인 사전(辭典)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종이사전이 시디(CD)사전으로 바뀌더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는 온라인 사전이 대세인 시대가 됐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웹 기반 사전 ‘우리말샘’을 편찬해 지난 5일 개통식을 가졌다. 2010년부터 7년 동안 편찬한 사전이다.

‘우리말샘’은 종이사전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국민 참여형 사전이다. 100만여 항목을 담아 출판하는 이 사전은 편찬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할 사전이다. 국민들이 사전을 이용하다가 실생활에서는 쓰이는데 사전에는 없는 말이 있다면 그 단어를 등록할 수도 있고, 뜻풀이 등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새롭게 제안한 정보는

In&Out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감수 과정을 거쳐 사전에 반영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신의 국어 지식을 보태 준다면 이 사전은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하는 사전이 될 것이다.

이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규범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가 아닌 말들도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다. 신어, 방언, 전문용어 등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쓰이는 모든 단어들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비속어라든가 욕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는 말 등은 실리지 않는다. 이는 우리말을 품위 있는 언어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 사전은 종이사전이나 시디사전과는 달리 용량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종이사전이나 시디사

전보다는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우리말샘’에는 기존 사전들에서 제공하던 정보(뜻풀이, 품사, 발음, 활용, 용례) 이외에도 해당 단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 주는 어휘 역사 정보를 제공하며, 표준어에 대한 다양한 지역어(방언) 정보도 제공한다. 또 해당 단어에 대한 수어(수화언어) 정보도 동영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단어에 대한 어휘 정보(상위어, 하위어,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등)를 어휘 지도로 보여 주기도 한다. 옛말 언해문에는 한문 원문도 제공한다. 기존 사전들보다 다층 매체(멀티미디어) 자료도 더 갖추었다.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많은 지식이 인터넷 등 정보화 기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말샘’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말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줄 것이다. 언어 사전으로서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된 이 사전 ‘우리말샘’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하고 알차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전으로 인해 우리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3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홍보 동영상과 홍보 소책자, 누리소통망(SNS)·온라인 홍보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홍보 동영상은 개통식에서 사용된 ‘《우리말샘》 개통 홍보 영상’ 1편과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2종의 사용자 설명 영상 한국어판과 영어판 총 4편, 유튜브를 이용해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이럴 영상 1편 등 총 6편을 제작하였다. 홍보 소책자는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2종으로 제작하고, 각 소책자를 영어로 번역하여 총 4종, 4,000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사전에 참여하고, 사전에 대한 소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했다.

□ 홍보물

○ 홍보 동영상

- 《우리말샘》 개통 홍보 영상

국민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을 쉽게 이해할 있도록 《우리말샘》 개통에 맞춰 제작하여 개통식에서 상영하였다. 《우리말샘》 탄생 배경과 의의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말샘》의 특징과 사용자 반응을 영상에 담았다.

내용	《우리말샘》 탄생 배경과 의의, 주요 특징과 사용자 반응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설명
분량	5분 5초

시나리오

우리말샘 개통 홍보영상 시나리오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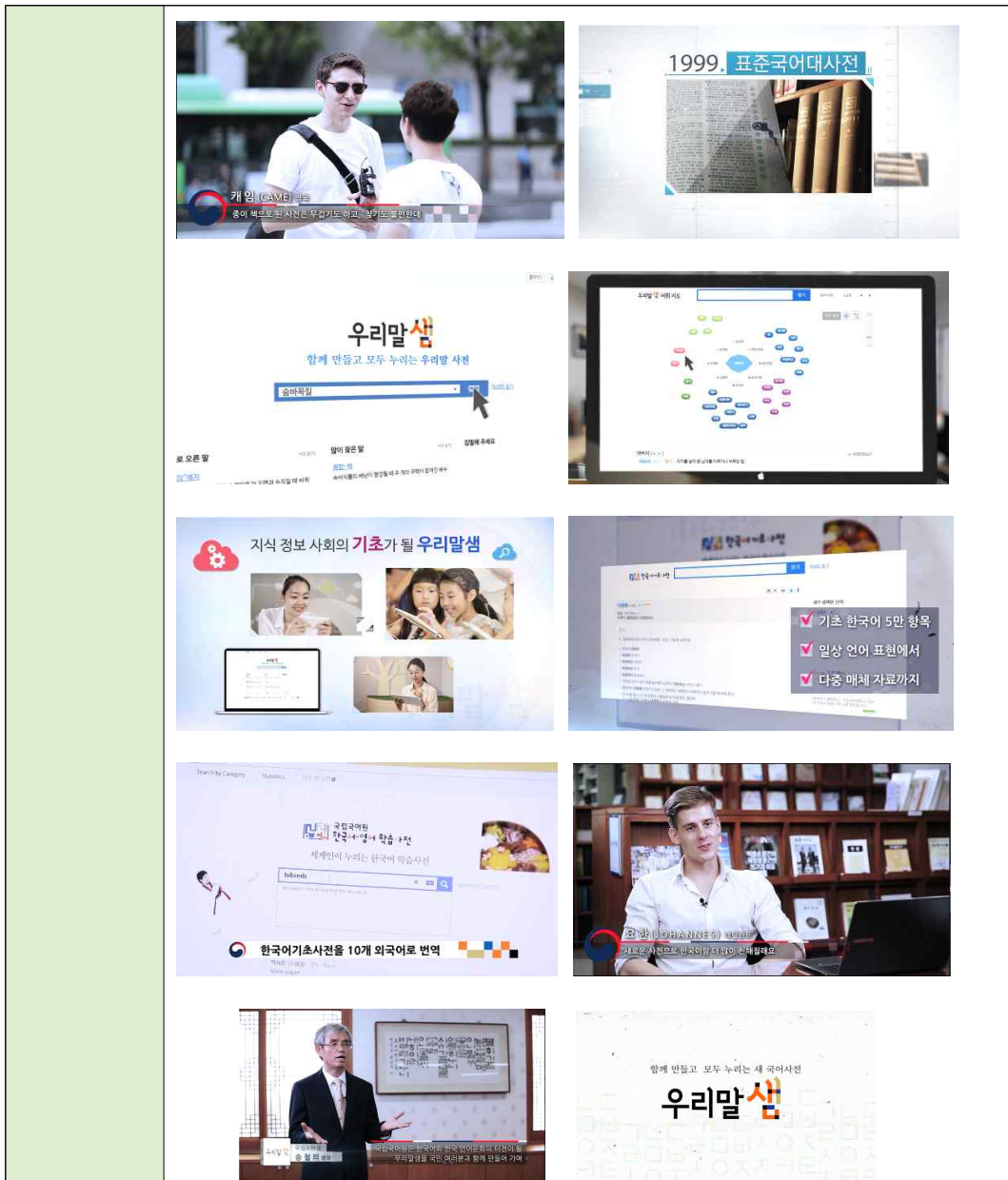
Ver. 2016. 8. 1

	비디오	자막	내레이션
INTRO (1분)	# 이미지 영상들 (감성적자)	말 한마디	세상과 소통하는 말 한마디
	-어린이가 엄마에게 말을 하는 표정	배우고	배우고
	-아이의 초롱초롱한 표정	느끼고	느끼고
	-아외에서 즐기워 하는 아이들	표현하는	표현하는
	-토론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생각 한 줄	생각 한 줄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문화들	문화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문화
	# 자막 Effect '사전' (키워드처럼 강조)	사전	이 모두가 사전 속 우리말에 녹아 있습니다.
	#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의 타임랩스		(BGM)
	# 문제제기 인터뷰		Intro
		Q (질 자막)	-한국인 인 Q. 사전에 실리지 않은 말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들도 사전에 담겨야 하지 않나요? 기록되지 않으면 말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잖아요?
		Q (질 자막)	-한국인 남 Q. 언어는 빠르게 변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는 없는 건가요? 갈수록 모르는 말들이 많아지거든요.
		Q (질 자막)	-외국인 Q. 종이 책으로 된 사전은 무감기도 하고, 찾기도 불편한데,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BODY (2) 새로운 사전 우리말 샘 (1분 30초)	#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변화하는 사전 이미지 빠르게 변화		지식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점점 다양해지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이 사전에서 전자사전, 인터넷, 컴퓨터사전까지		
	# 세계인들이 누리는 한국문화와 한국어		
	# 키워드 자막	개발 참여 공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립국어원이 새롭게 개통하는 우리말샘은 지식을 두루 담아내는 개방성과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신개념 국어사전입니다.
	# 개방형 통합사전 이미지 속에서 개발, 참여, 공유를 상징하는 장면들		표준어는 물론 지역어, 생활용어, 신조어 등 지금껏 사전에 잘 실리지 않았던 말들까지 다수 수록될 것이며, 우리의 다양한 언어를 사전에 반영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언어정보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인포그래픽적인 CG를 가미하여 우리말 샘 사전의 매뉴얼, 검색, 검색 등 주요 장면 소개	표준어, 지역어, 생활용어, 신조어 등 100만 항목으로 출발	
	어휘 역사 정보	어휘 역사 정보	
	어휘 지도	어휘 지도	
	수어 정보	수어 정보	
	다중 매체 정보	다중 매체 정보	
	집필 참여하기	집필 참여하기	

	비디오	자막	내레이션
INTRO (1분)	# 위 장면 속 말들이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페이지로 모여드는 영상그래픽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사전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열립니다.
	# 엔트로 타이틀	인트로 타이틀> 우리말샘	우리말샘
BODY (1) 새로운 사전의 의미 (30초)	# 1947년만 큰 사전 머리말 자막 Effect -조선어학회 이미지	"많은 문화의 표상이다.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하면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다. 우리말 대사전의 편찬은 우리 문화 향상의 발전을 장만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승만 회관백 선생의 1947년판 "큰 사전, 머리말 가운데 가려 함음 -	
	# 세계 속 한국어, 한국 문화		국어사전은 단순한 사전이 아닙니다.
	# 위 장면들이 사전 속으로 들어오는 CG	국어사전 문화 창조 뿌리 자부심	국어사전은 우리 문화창조의 뿌리이며 자부심입니다.
	# 브릿지 이미지 / 달라지는 시대상 (IT 연결)		국어사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말을 담아내기 위해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고 진화해야 합니다.

	<p>BODY (2) 새로운 사전 우리말 생 (1분 30초)</p>	<p># 일반 제1차 인터뷰 (인터뷰 - 체험 장면, 해당 논문) -대학생 -주부(여자) -직장인(남자)</p> <p># IT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사전과 결합되는 은유적인 CG</p>	<p>1분 "개방된 온라인 사전이라서 제가 직접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콘텐츠도 무제한 올릴 수 있어서 제가 가진 지식을 타인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참신하네요." "모든 편집 수정 내역이 기록되어 검색된다고 하면 결국 어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위키미디어하고 백과사전이 정확도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 우리말샘은 전문가가 오류를 골라 주셔서 정확도를 더 높인다고 하니 아주 기대가 큼니다."</p> <p>정보통신 기술의 웃을 일고 지식정보사회의 기초가 될 우리말샘</p>
	<p>BODY (3) 한국어기초& 다국어사전 (30초)</p>	<p># 인포그래픽적인 CG를 가미하여 한국어 기초사전과 다국어 사전들 소개</p> <p># 한국어기초 사전 매뉴얼, 검색 결과 활동</p> <p># 10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외국인들이 사전 사용하는 장면</p>	<p>기초 한국어 5만 항목 일상 언어 표현에서 다중 매체 자료 등 다양한 학습정보, 한국어기초사전을 10개 외국어로 번역</p> <p>국립국어원은 우리말샘과 함께 전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선보입니다. 한국어기초사전을 한국어 학습에 꼭 필요한 기초 한국어 5만 항목과 함께 일상에서 사용되는 표현부터 여러 다중매체 자료에 이르는 다양한 학습 정보를 담아냈으며, 한국어기초사전을 10개 외국어로 대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한국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p>
	<p>BODY (4) 가대 인터뷰 (30초)</p>	<p># 인터뷰 <방송작가> #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사용성 평가자) # 어린 아이들 단재 샷 (단체 방문 어린이)</p>	<p>"우리말샘 그 이름처럼 낱마다 새로운 낱말과 표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p> <p>"새로운 사전으로 한국어가 더 많이 친해질게요"</p> <p>"한국어 친구야-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자!"</p>
	<p>OUTRO 새로운 버전 (1분)</p>	<p># 사전과 국립국어원 이미지 결합된 효과 CG</p> <p># 국립국어원장님 인터뷰 "인터뷰 중 키워딩 강조 Effect"</p> <p># 이미지 영상 구성 + 사전 타이틀 CG</p> <p># 슬로전 표출</p> <p># 행사타이틀 표출</p>	<p>다양하고도 정확한 언어 정보를 담아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한국 언어문화 지식의 산실</p> <p>Q. 새로운 사전을 기점으로 국립국어원이 국민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한국어를 위해 어떤 비전(미래)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요?</p> <p>슬로건>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p> <p>엔딩타이틀> 우리말샘</p> <p>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p>
	<p>영상 주요 장면</p>	 	



《우리말샘》개통 홍보 영상 시나리오 및 내용 캡처

- 사용자 설명 영상

사전 개통 이후, 실제 사전 사용자들이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사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샘》사

용자 설명 영상 1편과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설명 영상 1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전 이용자를 고려하여 한국어판을 영어판으로 번역하여 총 4편을 제작하였다.

내용

- 《우리말샘》 사용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분량

각 6분

시나리오

《우리말샘》

IMAGE

VISUAL

- #. 상단 자막/ 자세히 찾기
- #. 우리말샘 첫 화면
 - '자세히 찾기'에 동그라미 표시 후 마우스 클릭
- #. 자세히 찾기 화면
 - '뜻'에 포함 문자에 동그라미 표시
 - '뜻'에 '어머니' 색연필로 쓰기
- #. 어머니가 포함된 뜻들이 검색 결과
 - '가모'에 동그라미 표시, 가모 결과 검색
- #. 상단 자막/ 어휘 지도로 찾기
- #. 우리말샘 첫 화면
 - '검색창'에 색연필로 '아버지' 쓰기
- #. 아버지 뜻들이 결과 중 어휘 고른 뒤 어휘 지도 확인
- #. 아버지 어휘 지도
 - '준부장' (뜻들이 보이게)에 동그라미 표시
 - '준부장'에 마우스 포인터 두면 뜻들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준부장으로 이동
 - 어휘 지도 새 창 보기

STORY(NA+TEXT)

이번에는 자세히 찾기를 해 볼까요?

먼저 '우리말샘' 검색창 옆의 자세히 찾기가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와 관련된 어휘를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의 '뜻'에 대상에서 '어휘(표제어)' 옆의 역상각형을 눌러서 어휘, 원어, 어원, 발음 등에서 어휘를 고르고, 포함 문자 옆의 역상각형을 눌러서 포함 문자, 시각 문자, 글 문자, 일지 등에서 포함 문자의 검색 조건을 고른 후, 검색창에서 '어머니'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포함된 뜻들이 검색 결과가 보입니다.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르는 어휘로 '가모'라는 말이 쓰이는군요.

이번에는 어휘 지도를 이용해서 관련된 어휘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말샘 첫 화면 '검색창'에 궁금한 어휘를 입력하고 찾기를 누릅니다.

만약 '아버지'와 관련된 어휘를 찾는다면, '아버지'의 검색 결과 중에서 궁금한 뜻들을 클릭해 보세요.
화면 아래 쪽의 어휘 지도에 '아버지'와 관련된 어휘들이 나타납니다.
찾고 싶은 어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뜻들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해당 어휘의 뜻들이 이동합니다.
새 창 보기를 누르면 어휘 지도에서 자신이 검색하고 싶은 어휘를



우리말샘 세부 구성안

INTRO


IMAGE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기초사전 세부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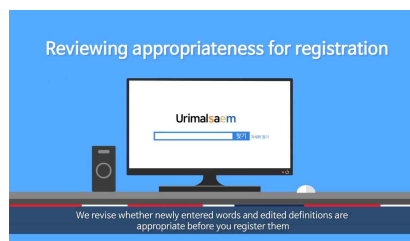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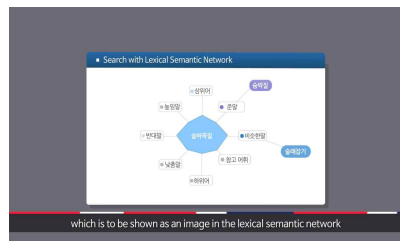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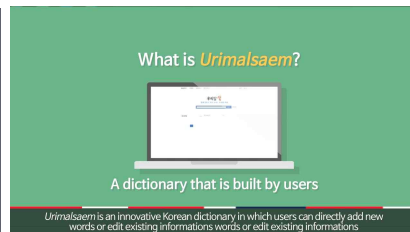
INTRO		
	<p>#. 상단 자막/ 검색</p> <p>#. 열 그림 (검색창 검색어 입력, 어휘 놀러 정보 확인)</p> <p>#. 열 그림 (나무 어휘에 해당하는 뜻풀이, 구, 문장, 대화 등)</p> <p>#. 문법·표현 검색 결과 예시 → 자세히 찾기 부분에서 문법 표현한 클릭</p> <p>#. 문법·표현 띄어쓰기 상관없이 결과 나옴</p> <p>#. 구 검색 결과 예시 → 자세히 찾기 부분에서 구만 클릭</p> <p>#. 구 띄어쓰기 상관없이 결과 나옴</p>	<p>STORY(NA+TEXT)</p> <p>그림 한국어 기초사전에서 어휘를 검색해 볼까요?</p> <p>'한국어기초사전' 검색창에 어휘를 입력하면 검색어 가 자동으로 완성되어 제시되는데요, 찾고자 하는 어휘를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나무'를 찾아볼게요.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가 이해하고 배우기 쉽게 뜻을 풀어놓았네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구, 문장, 대화 등의 예문을 색깔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파란색은 구, 노란색은 문장, 분홍색은 대화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반대말, 놀림말, 빗속말, 잠고어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p> <p>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문법·표현도 띄어쓰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p>
	<p>VISUAL</p> <p>#. 한국어 기초사전 첫 화면, 검색 결과 내용보기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들어가기 시연</p> <p>#. 상단 자막 / 기본 검색</p> <p>#. 언어 종류 선택하여 들어가기</p> <p>#. 열 그림처럼 한국어-베트남 사전에 연꽃 입력</p> <p>#. 외국어별 자판 이미지 추가</p>	<p>STORY(NA+TEXT)</p> <p>그림, 기본 검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p> <p>먼저, '한국어기초사전' 첫 화면에서 언어별 사전의 종류를 선택해야겠죠. 검색창에 알고 싶은 어휘를 한국어나 학습자의 언어로 쓰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p> <p>또한, 외국어별 화면 자판을 두어서 어떤 컴퓨터에서나 불편 없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IMAGE	VISUAL	STORY(NA+TEXT)
	<p>#. 상단자막/ 조건 검색</p> <p>#. 열 그림처럼 자세히 찾기 누르기</p> <p>#. 범주를 설정하여 자세히 찾는 방법</p>	<p>특히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세히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검색창 옆의 자세히 찾기를 눌러보세요</p> <p>단어로 찾기, 자소로 찾기, 주제 및 상황 범주별 찾기, 의미 범주별 찾기'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한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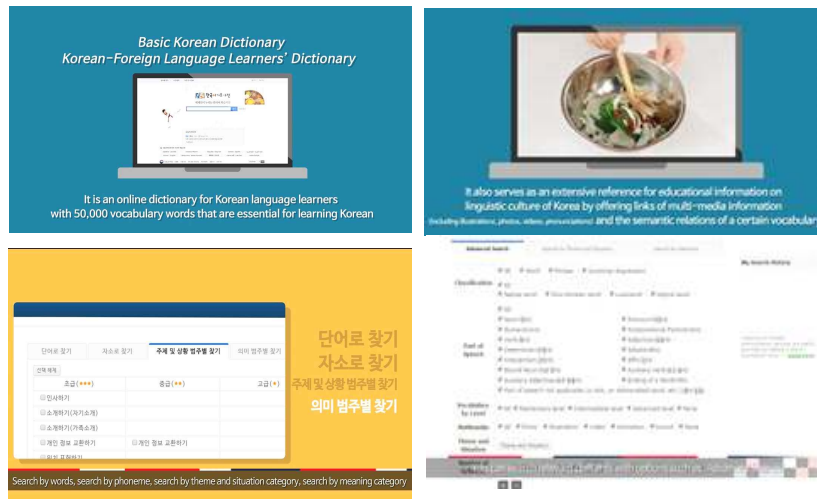
《우리말샘》 영어판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판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영어판



- 바이럴 영상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통 이후, 한국어 학습사전 이용자 확보를 위해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에서 사전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해당 교육 과정을 바이럴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① 사전 소개 교육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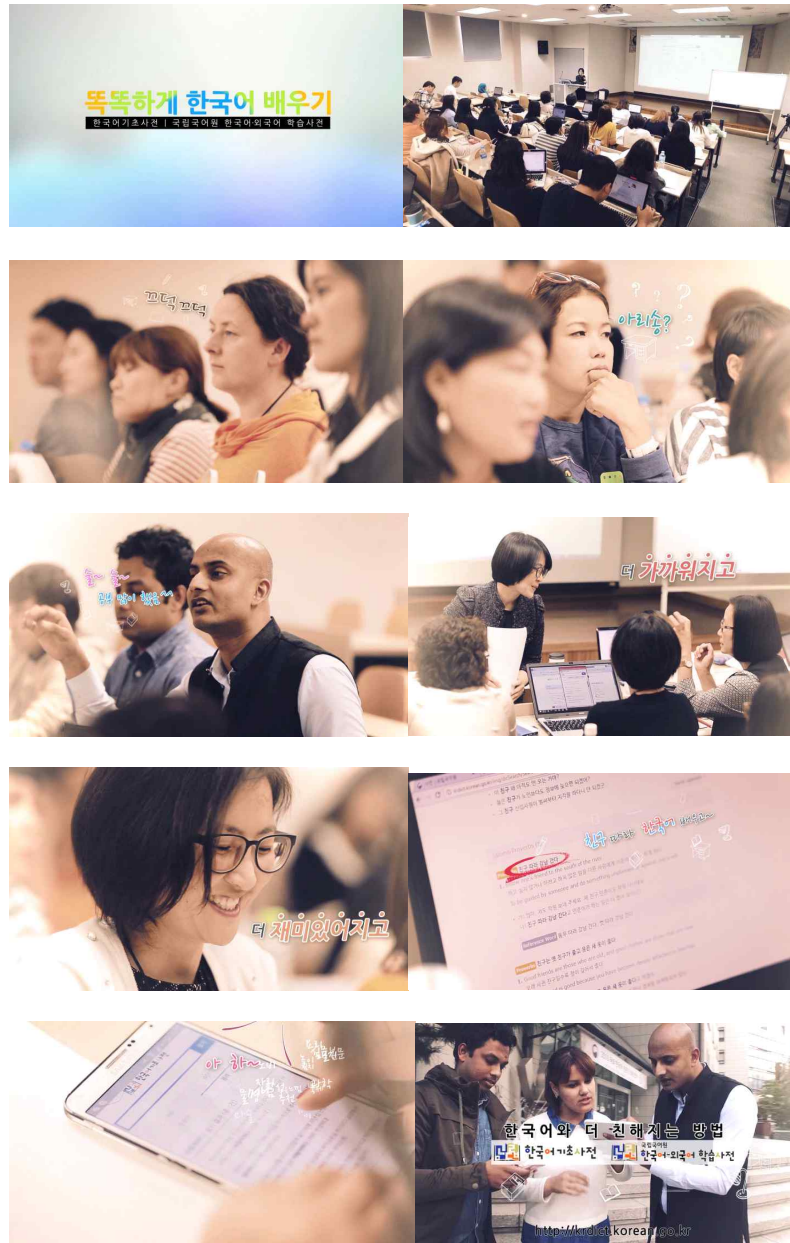
일시/장소	10. 13.(목) 15:00~18:00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행사명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언어권별 ‘한-외 학습 사전’ 체험 - 10개 사전 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게재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전 소개 교육 일정

② 바이럴 영상(유튜브를 통한 사전 이용 증대)

내용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소개
분량	1분 7초
자막	<p>00:00 스마트하게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p> <p>00:04 끄덕끄덕</p> <p>00:08 아리송?</p> <p>00:11 술-술- (공부 많이 했음^^)</p> <p>00:14 더 가까워지고</p> <p>00:16 더 빠져들고</p> <p>00:19 더 재미있어지고</p> <p>00:22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부분 줄 곳고) 친구 따라 한국어 배우고~~</p> <p>00:00 스마트하게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p> <p>00:04 끄덕끄덕</p> <p>00:08 아리송?</p> <p>00:11 술-술- (공부 많이 했음^^)</p> <p>00:14 더 가까워지고</p> <p>00:16 더 빠져들고</p> <p>00:19 더 재미있어지고</p> <p>00:22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부분 줄 곳고) 친구 따라 한국어 배우고~~</p> <p>00:25 (스마트 폰) 톡톡-</p>
영상	



주요
장면



바이럴영상 시나리오 및 캡처 이미지

○ 홍보 소책자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개통에 맞춰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특징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소책자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전 사용자를 고려하여 한국어판과 영어판을 각각 1,000부씩 제작하였다. 그중 300부는 사전별 홍보 소책자를 합본하여 개통식에서 배포하였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샘》에 대한 특징과 장점 소개, 사용법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특징과 장점 소개 및 사용법 안내(한국어판, 영어판)
부수 (총 4,00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샘》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1000부), 영어판(800부) -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1000부), 영어판(900부) -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합본 홍보 소책자: 300부(개통식용)
인쇄본	<p>《우리말샘》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p>  <p>《우리말샘》 홍보 소책자 영어판</p> 

(한국어기초사전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



(한국어기초사전 홍보 소책자 영어판)



(개통식 합본 홍보 소책자 한국어판)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홍보 책자 이미지

□ 누리소통망(SNS) 운영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민 참여형 사전’인 점을 강조하면서 누리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카드뉴스를 배포하였으며, 3차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사전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홍보를 위해 홍보 대상을 설정하고, 누리소통망 광고를 6차례 진행하여 빠른 콘텐츠 확산을 이루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카드뉴스

- (1차)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참여 유도 카드뉴스, 7쪽
- (2차)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우리말샘》 사전 소개 카드뉴스, 6쪽
- (3차) 《우리말샘》과 《표준대국어사전》: 두 사전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6쪽
- (4차)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전 소개 카드뉴스, 6쪽

○ 온라인 행사

- (1차) 《우리말샘》 개통 축하 글 남기기
- (2차) 《우리말샘》 사용 인증 사진 옮기기
- (3차) 《우리말샘》 집필하기 및 뜻풀이 수정하기

○ 누리소통망 광고

- (1차)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소개(카드뉴스 홍보 광고)
- (2차) 《우리말샘》 소개(카드뉴스 홍보 광고)
- (3차) 《우리말샘》 사용 인증 사진 남기기(행사 참여 홍보 광고)
- (4차)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차이 안내(카드뉴스 홍보 광고)
- (5차) 《우리말샘》 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하기(행사 참여 홍보 광고)
- (6차)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 소개(카드뉴스 홍보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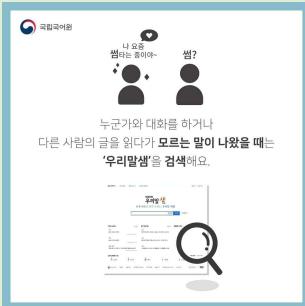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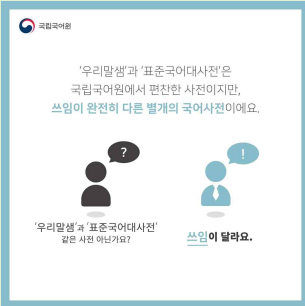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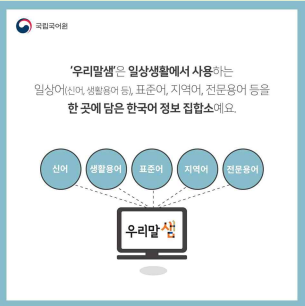





○ 카드뉴스(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페이스북 탑재)

<p>1차 (7. 29. 금)</p>	<p>"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 인가요?</p>	<p>조회: 114,569명 참여: 8,360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p>
--------------------------	--	--

카드뉴스 1차,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이미지

<p>2차 (10. 12 수)</p>	<p>"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우리말샘》이 어떤 사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p>	<p>소화: 156,827명 참여: 1,636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p>
		

카드뉴스 2차,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우리말샘》 이미지



<p>3차 (10. 20 목)</p>	<p>《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두 사전은 무엇이 다를까요?</p>	<p>조회: 168,736명 참여: 552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p>
<div data-bbox="237 407 539 711">  <p>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무엇이 다를까?</p> </div> <div data-bbox="237 721 539 1025">  <p>나 요즘 찾는 용어... 찾?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말샘'을 검색해요.</p> </div>		
<div data-bbox="558 407 861 711">  <p>'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사전이지만, 쓰임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국어사전이에요.</p> <p>'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사전 아닌가? 쓰임이 달라요.</p> </div> <div data-bbox="558 721 861 1025">  <p>'표준국어대사전'은 신문, 방송, 교육 등 공적인 언어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전이에요.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p> </div>		
<div data-bbox="882 407 1185 711">  <p>'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p> <p>신어, 생활용어,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p> </div> <div data-bbox="882 721 1185 1025">  <p>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p> <p>한국어에 관심과 다양한 욕구가 공감할 때는 '우리말샘'을, 규범적인 용법이 궁금할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 주세요!</p> </div>		
<div data-bbox="511 1044 911 1603"> <p>심표, 마침표,님이 새로운 사전 6장을 추가했습니다. 10월 20일 오후 3:23 ·</p> <p><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두 사전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더 보기</p>     </div>		

카드뉴스 3차,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비교 이미지

<p>4차 (10. 27 목)</p>	<p>《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어떤 사전인지 알아볼까요?</p>	<p>조회: 162,556명 참여: 586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p>
 <p>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한국어 사전을 소개합니다.</p> <p>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p> <p>http://krdict.korean.go.kr</p>	 <p>한국어 공부의 길잡이가 될 한국어기초사전</p> <p>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항목을 선정하고,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뜻풀이와 실용적 예문을 담은 한국어 학습용 필수사전</p> <p>한국어 공부의 기초! 여기에 모였다.</p> <p>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항목 선정 쉬운 뜻풀이 제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 문장, 대화문 제시 발음 정보와 사진, 삽화, 동영상 제공</p> <p>노선도?</p> <p>쉬운 뜻풀이 비즈니스 차이를 통해 다양한 뜻을 색깔로 구분하여 나타냄</p> <p>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p> <p>한국어와 학습자의 언어로 검색 가능 자세히 보기, 주제 및 상황 범주를 찾기, 의미 범주를 찾기 등 다양한 검색 방법</p> <p>사용자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해서 번역했어요!</p> <p>사용자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번역 외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영수료 무료 확인 가능, 외국어 지원 등) 제공</p> <p>선택 가능!</p> <p>오늘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아랍어 방식으로 사전을 만들었어!</p>	 <p>원표, 마침표,님이 새로운 사진 6장을 추가했습니다. 20시간 전</p> <p>한국어 공부의 길잡이가 될 한국어기초사전</p> <p>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항목을 선정하고,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뜻풀이와 실용적 예문을 담은 한국어 학습용 필수사전</p> <p>한국어 공부의 기초! 여기에 모였다.</p> <p>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항목 선정 쉬운 뜻풀이 제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 문장, 대화문 제시 발음 정보와 사진, 삽화, 동영상 제공</p> <p>3장+</p> <p>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항목 선정 쉬운 뜻풀이 제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 문장, 대화문 제시 발음 정보와 사진, 삽화, 동영상 제공</p>

카드뉴스 4차,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이미지

○ 온라인 행사(국립국어원 페이스북 탑재, 《우리말샘》·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

1차	10. 5~10. 12.	《우리말샘》 개통 축하 글 남기기	200명(커피 상품권)
	조화: 7,778명 참여: 2,147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p>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 축하 댓글 남기기 《우리말샘》개통을 축하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20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내진화券)을 드립니다. 함께 축하하고 싶은 친구에게 알리멘트(이웃에게 또는 게시물 공유) 당첨 확률이 두 배! 기간: 10월 5일(수) ~ 10월 12일(수) 당첨자 발표: 10월 13일(목) 상품: 커피 상품권(가액 5000원)</p>	
2차	10. 14~10. 23.	《우리말샘》 사용 인증 사진 남기기	100명(영화 관람권)
	조화: 51,193명 참여: 1,14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p>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사용 인증 사진 남기고 영화 보자! 《우리말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주첨을 통해 100명에게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은 친구에게 알리멘트(이웃에게 또는 게시물 공유) 당첨 확률이 두 배! 기간: 10월 14일(금) ~ 10월 19일(수) 당첨자 발표: 10월 20일(목) 상품: 영화 예매권</p>	
3차	10. 20~11. 20.	《우리말샘》 집필하기 및 뜻풀이 수정하기	100명(문화상품권)
	조화: 69,392명 참여: 1,284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p>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사전 집필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말샘》에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를 수정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기간: 10월 21일(금) ~ 11월 13일(토) 당첨자 발표: 11월 15일(화) 상품: 문화 상품권 1만원</p>	

온라인 행사 일정과 결과 및 이미지

○ 누리소통망 광고(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페이스북 활용)

1차 광고 (7. 29.~8. 5.)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소개 (카드뉴스 홍보 광고)	조회: 107,646명 참여: 7,71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div data-bbox="229 482 624 1044"> <p>한눈에 보기 홍보 수정</p> <p>1개 위치에 거주하는 18~65+세 남성 및 여성을 타게팅하고 있습니다.</p> <p>전체 요약 표시</p> <p>이 홍보가 7일 동안 게재됩니다.</p> <p>이 홍보의 총 예산은 ₩500,000입니다.</p> <p>7,711 참여 107,646 도달 [?] ₩500,000 총 지출 [?]</p> <p>행동 사람 국가</p> <p>사전 클릭 6,87%</p> <p>링크 클릭 155</p> <p>페이지 좋아요 79</p> <p>게시물 좋아요 239</p> <p>댓글 120</p> <p>공유 456</p> </div> <div data-bbox="229 1054 644 1589"> <p>쉽표, 마침표.님이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p> <p>Sponsored · 1%</p> <p>“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p> <p>국립국어원은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쉽고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되는 영광까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 http://goo.gl/LtRbu</p> <div> <div> <p>[신나다]</p> <p>국립국어원은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쉽고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되는 영광까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 http://goo.gl/LtRbu</p> </div> <div> <p>[만들다]</p> <p>국립국어원은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쉽고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되는 영광까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 http://goo.gl/LtRbu</p> </div> </div> </div>	<div data-bbox="634 646 1130 1015"> <p>행동 사람 국가</p> <p>66.3% 여성 33.7% 남성</p> </div> <div data-bbox="739 1054 1043 1589"> <p>쉽표, 마침표.님이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p> <p>Sponsored · 1%</p> <p>“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p> <p>국립국어원은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쉽고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되는 영광까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 http://goo.gl/LtRbu</p> <div> <div> <p>[신나다]</p> <p>국립국어원은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쉽고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되는 영광까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 http://goo.gl/LtRbu</p> </div> <div> <p>[만들다]</p> <p>국립국어원은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쉽고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되는 영광까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 http://goo.gl/LtRbu</p> </div> </div> </div>	

누리소통망 1차 광고 결과

2차 광고 (10. 14.~10. 20.)	《우리말샘》 소개 (카드뉴스 홍보)	조회: 156,827명 참여: 1,561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	------------------------	---

한눈에 보기 홍보 수정

- 1개** 위치에 거주하는 **18~60세 남성 및 여성**을 타게팅하고 있습니다.
- 전체 요약 표시
- 이 홍보가 **6일** 동안 게재됩니다.
- 이 홍보의 총 예산은 **₩218,995**입니다.

1,561 참여 [?] 156,827 도달 [?] ₩218,988 총 지출 [?]

행동 | 사람 | 국가

사진 클릭 | 22

게시물 좋아요 | 1,537

공유 | 2

행동 | 사람 | 국가

32.7% 여성 67.3% 남성

연령대	여성 (%)	남성 (%)
13-17	~1%	~1%
18-24	~8%	~18%
25-34	~14%	~29%
35-44	~8%	~12%
45-54	~3%	~5%
55-64	~1%	~2%
65+	~1%	~1%

(PC)

(모바일)

(인스타그램)

누리소통망 광고 2차 결과



누리소통망 광고 3차 결과

4차 광고 (10. 20.~10. 26.)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차이 안내 (카드뉴스 홍보)	조회: 168,736명
		참여: 522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한눈에 보기 홍보 수정

17개 위치에 거주하는 **18~60세** 남성 및 여성을 타
게팅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약 표시

이 홍보가 **6일** 동안 게재됩니다.

이 홍보의 총 예산은 **₩154,000**입니다.

522 참여 168,736 도달(1가) ₩154,000 총 지출(1가)

행동 사람 국가

동영상 조회 154
사진 클릭 333
페이지 좋아요 20
게시물 좋아요 15

행동 사람 국가

33.8% 여성 66.2% 남성

Age Group	Female (%)	Male (%)
13-17	~1%	~1%
18-24	33.8%	66.2%
25-34	~12%	~12%
35-44	~5%	~5%
45-54	~8%	~8%
55-64	~8%	~8%
65+	~2%	~2%

(PC) (모바일) (인스타그램) (데스크톱 오른쪽 칼럼)

설표, 마침표.님이 새로운 사진 6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stweb2.korean.go.kr

번역 보기

설표, 마침표.님이 새로운 사진 6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stweb2.korean.go.kr

번역 보기

Instagram Sponsored

설표, 마침표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말샘을 검색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신문, 방송, 교육 등 공식적인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진이에요.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tweb2.korean.go.kr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한국어원 #국어어원

설표, 마침표.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PC) (모바일) (인스타그램) (데스크톱 오른쪽 칼럼)

설표, 마침표.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말샘을 검색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신문, 방송, 교육 등 공식적인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진이에요.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tweb2.korean.go.kr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한국어원 #국어어원

설표, 마침표.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말샘을 검색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신문, 방송, 교육 등 공식적인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진이에요.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tweb2.korean.go.kr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한국어원 #국어어원

Instagram Sponsored

설표, 마침표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설표, 마침표.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어(신어, 생활용어 등), 표준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을 한 곳에 담은 한국어 정보 집합소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리소통망 광고 4차 결과

5차 광고 (10. 21.~10. 26.)	《우리말샘》 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 하기 (행사 참여 홍보)	조회: 69,392명
		참여: 103회 (좋아요 공유 댓글 등)



(PC)

원표, 마침표. Sponsored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직접 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하기'에 참여하세요. 《우리말샘》에서 참여 이력을 확인하여 100명에게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우리말샘》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우리말샘》바로 가기: <http://opendict.korean.go.kr>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사전 집필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말샘》에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를 수정하면,
주최를 통해 **100명에게 문화 상품권** 100원을 드립니다.

기간: 10월 21일(수) ~ 11월 13일(수)
당첨자 발표: 11월 13일(수)
상품: 문화 상품권(100원)

(모바일)

원표, 마침표. Sponsored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직접 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하기'에 참여하세요. 《우리말샘》에서 참여 이력을 확인하여 100명에게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우리말샘》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우리말샘》바로 가기: <http://opendict.korean.go.kr>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사전 집필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말샘》에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를 수정하면,
주최를 통해 **100명에게 문화 상품권** 100원을 드립니다.

기간: 10월 21일(수) ~ 11월 13일(수)
당첨자 발표: 11월 13일(수)
상품: 문화 상품권(100원)

(인스타그램)

원표, 마침표. Sponsored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직접 집필하기 또는 뜻풀이 수정하기'에 참여하세요. 《우리말샘》에서 참여 이력을 확인하여 100명에게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우리말샘》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우리말샘》바로 가기: <http://opendict.korean.go.kr>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샘》에 회원 가입하고, 사전 집필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말샘》에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를 수정하면,
주최를 통해 **100명에게 문화 상품권** 100원을 드립니다.

기간: 10월 21일(수) ~ 11월 13일(수)
당첨자 발표: 11월 13일(수)
상품: 문화 상품권(100원)

누리소통망 광고 5차 결과



표 49 누리소통망 6차 광고 결과

○ 누리소통망 연계 홍보물 배포

사전 인지도 제고 및 온라인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우리말샘》 누리집에 누리소통망(SNS)과 연계된 팝업 및 배너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 및 연계 기관에서 홍보물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작·배포하여 누리집 접속자가 사전에 다가가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 국립국어원 누리집(팝업 배너)



- 《우리말샘》 누리집(팝업 배너)



- 정부 및 연계 기관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물 게재



공직자 통합 메일(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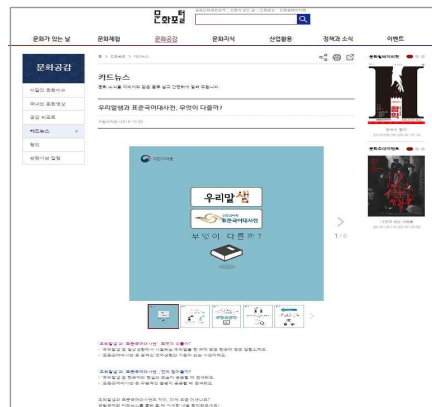
정책 브리핑 다정다감(10. 17.)



정책 브리핑(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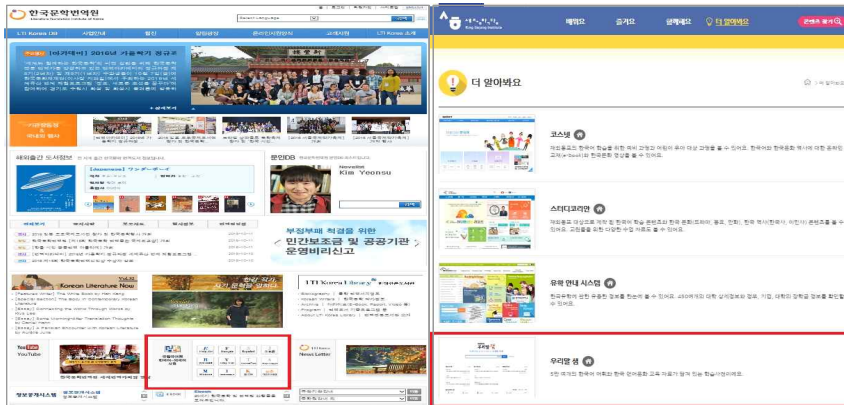
문화포털(10. 17.)



문화포털(10. 20.)



문화포털(10. 27.)



한국문학번역원(10. 17.)

세종누리학당(10. 17.)



전국국어교사모임(10. 17.)

4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개최

□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는 《우리말샘》의 개통을 앞두고, 낱말의 뜻을 풀이를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담은 사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기획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사명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으로 정하였다.

국어사전 진흥 행사는 제시어를 창의적으로 뜻풀이하는 공모전과 수상작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수상작 전시회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공모전은 제시어 10개 중 5개 이상을 창의적으로 뜻풀이하는 내용으로,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300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점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10월 5일 《우리말샘》 개통식의 2부 행사로 치렀다. 그리고 전시회는 총 2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10월 5일 《우리말샘》 개통식장에서 실내 전시를 진행했으며,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6 한글문화큰잔치 행사의 일부로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명: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 주요 행사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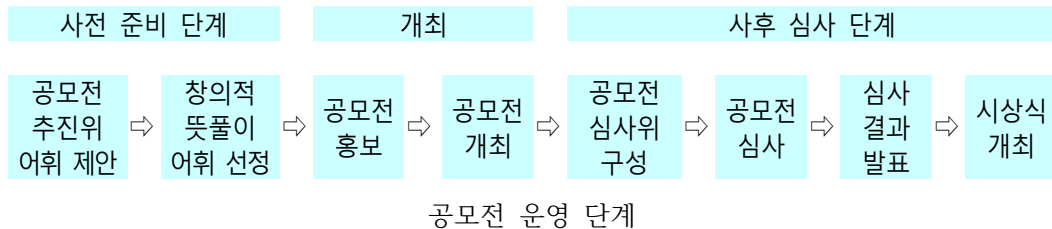
구분	일시	장소	내용	비고
공모전	6. 13. ~8. 15.	온·오프라인 공모	창의적 뜻풀이 (10개 제시어)	
시상식	10. 5.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수상자 18명(팀) (장관상 1명/ 원장상 17명)	《우리말샘》 개통 행사의 일부로 진행
전시회	10. 9.	1차: 《우리말샘》 개통식장 2차: 2016한글문화큰잔치 (광화문광장)	수상작 18점 (대상~단체상)	한글 주간 행사의 일부로 진행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행사 일정

□ 공모전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은 제시어를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 다르게 창의적으로 뜻풀이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2016년 10월 5일 개통하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전 행사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제도 ‘우리말 사전’으로 정하여 제시어를 선정하였고, 공모전을 홍보할 때에 대상 수상자가 《우리말샘》에 최초 어휘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말샘》과 공모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공모전은 사전 준비와 개최, 사후 심사의 3단계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공모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전 제시어 10개를 선정하였으며, 개최 단계에서는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후 심사 단계에서는 공모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작 심사 및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공모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모전 추진 위원회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에서는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에 쓰일 제시어와 배경을 제안하였다. 우선 우리말 사전과 관련한 분야를 ‘사전학, 문학, 언론, 출판, 교육, 국어학’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 역할: 창의적 뜻풀이 어휘 및 배경 제안
- 구성: 사전, 출판, 국어학계, 국어 교사, 언론, 출판 관련 기관

분야	기관명	대표
사전학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고은
문학	한국문인협회	문효치
언론	한국기자협회	정규성
출판	대한출판문화협회(사단법인)	고영수
교육	전국국어교사모임	고용우
국어학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김성규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추진 위원회 명단

○ 공모전 어휘 선정

기관별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주제에 부합하는 제시어 3~5개를 2016년 4월 27일~5월 18일(20일간)까지 서면으로 제안하여, 총 25개의 어휘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우리말 사전’에 부합하는 최종 제시어 10개를 선정하였다.

- 창의적 뜻풀이 어휘(제시어) 선정 기준
 - 2016년 공모전 주제(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 부합한 어휘 10개 선정
 - 기준: 사용 빈도가 높아서 일반인이 뜻풀이하기 쉬운 어휘
 - 어종: 고유어 위주로 선정
 - 품사: 명사 위주로 선정하되, 대명사, 형용사 또는 동사, 부사 등도 포함
- 어휘 선정 과정
 - 제안: 공모전 추진위원회 기관별로 3~5개 어휘 제안
 - 선정: 추진위에서 제안한 어휘 중 국어원 의견을 반영해 10개 확정
- 10개 어휘 선정 결과
 -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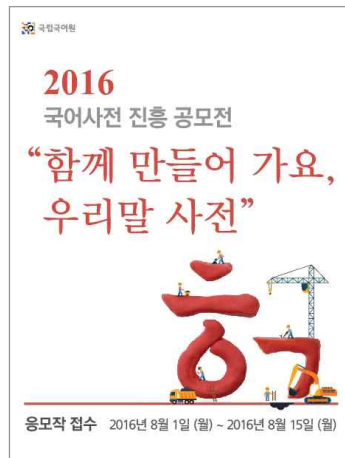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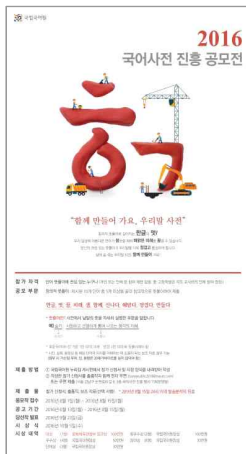
○ 공모전 홍보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의 홍보는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공모전을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온라인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국립국어원 누리집, 인터넷 포털, 누리소통망(SNS), 공문 등을 활용하였다. 보도 자료와 공고문 등은 공모전이 시작되는 6월 13일에 발표하였다. 보도 자료는 6월 13일 10시에 언론에 배포되었고, 7개 매체에서 소개되었다.

- 공모전 개최 보도 자료 배포
 - 보도 자료 제목: 멋, 꿈, 정겹다! 나도 한번 풀이해 볼까?” - 국립국어원, 제 2회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개최 -
 - 보도 자료 배포 시기: 2016년 6월 13일
 - 보도 자료 전문: [붙임2]
 - 배포 결과: 7개 매체 보도(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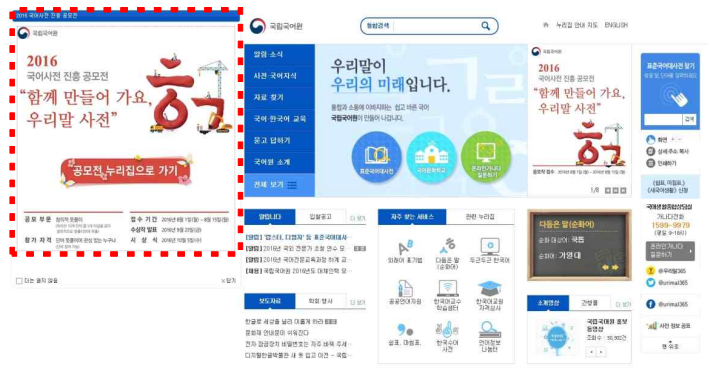
공고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알립니다’에 게재하고, 누리집 접속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배너를 제작하여 게재하고, 팝업창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배너를 게재하여 홍보하였다.

- 공모전 공고: 6. 13 ~ 8. 15 (공고문 하단 첨부)



공고문

배너



팝업창



네이버 배너

그리고 한국방송(KBS) ‘우리말 겨루기’에서 2015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활용하여 퀴즈를 내고,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안내해 주었다.

- KBS 우리말 겨루기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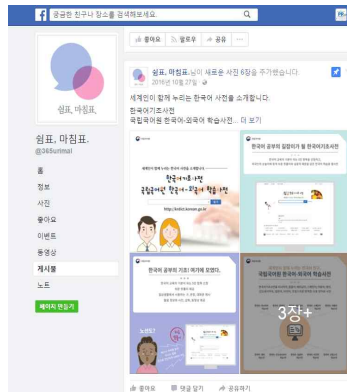
- 퀴즈 문제(2015년 창의적 뜻풀이)를 통한 공모전 홍보
- 1차: 7. 25. 방송



- 2차: 8. 1. 방송



또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광고를 하여 카드뉴스를 조회한 인원은 107,646명이었으며, 좋아요, 공유, 댓글 등으로 참여한 횟수도 7,711회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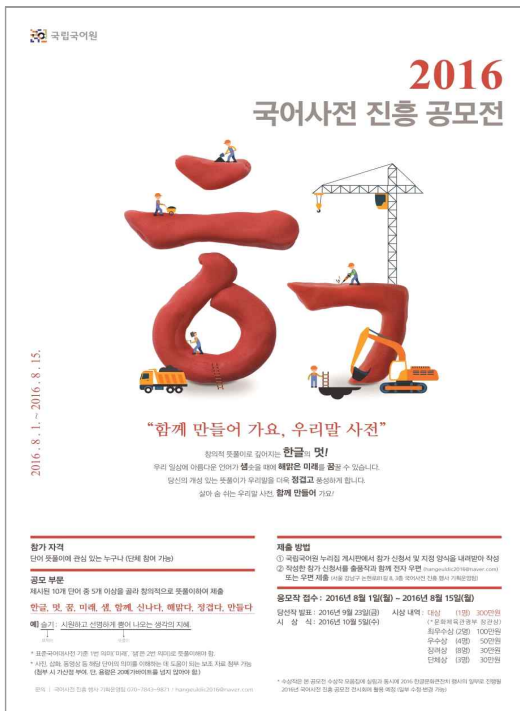


카드뉴스와 페이스북 광고

이 외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초에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공모전 포스터 1,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와 수도권 대학교, 관련 국어단체 등 764개소에 공문과 함께 배포하였다.

- 포스터



포스터

- 포스터 배포 (공문 포함)
- 대학교(서울·인천·경기) 33개소
- 한글국어단체 및 관련 기관 31개소
- 중·고등학교(서울 소재) 700개소

○ 공모전 개최 결과

공모전은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60일 동안 공고하였으며, 응모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로 총 1,300점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과 달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7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하였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단체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단체 응모자 중에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각자의 창의적 뜻을 모아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글 쓰는 엄마 모임, 대학 77학번 친구들 모임 등 일반 동호인 성격의 단체가 지원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공모전 개최 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공모 부문: 창의적 뜻풀이(제시어 10개 중 5개 이상 뜻풀이)
 - ※ 제시어: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나다
- 공고 기간: 2016년 6월 13일(월)~8월 15일(월)
- 응모 기간: 2016년 8월 1일(월)~8월 15일(월)
- 접수 결과: 총 1,300점(단체 255점, 개인 1,045점)

○ 공모전 심사

공모전의 심사는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문학, 교육, 국어학, 국어단체, 포털, 홍보 업체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가 창의적 뜻풀이임을 고려하여 창의성(40점), 명료성(40점),

재치성(20점)으로 설정하고, 전시회 등의 사전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공모전 심사 위원(6명)

구분	내용
남*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위원장
목*수	서울시립대 교수
신*별	아동문학작가, 시인
박*규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김*일	네이버 다국어사전실장
전*훈	(주)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심사위원단

-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세부 심사 기준
창의성 (40점)	① 뜻풀이가 기존 사전에 없는 독창적인 내용인가?
	② 독창적인 뜻풀이가 사전에 실기에 적절한가?
명료성 (40점)	③ 뜻풀이가 어휘 의미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④ 사전의 뜻풀이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가?
재치성 (20점)	⑤ 뜻풀이가 재치있는가?
보조 자료 가산점 (10점)	⑥ 첨부 자료가 적절하며, 사전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심사 기준

- 세부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아주 잘함---보통---아주 못함				
창의성 (40점)	① 뜻풀이가 기존 사전에 없는 독창적인 내용인가?	20	17	14	11	8
	② 독창적인 뜻풀이가 사전에 신기에 적절한가?	20	17	14	11	8
명료성 (40점)	③ 뜻풀이가 어휘의 의미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20	17	14	11	8
	④ 사전의 뜻풀이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가?	10	8	6	4	2
재치성 (20점)	⑤ 뜻풀이가 재치있는가?	30	26	22	18	14
총점		/ 100				
※ 홍보 보조 자료 가산점(10점)	첨부 자료가 적절하며, 사전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가?	10	8	6	4	2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세부 심사 평가표

심사는 응모작이 1300점인 관계로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우선 국어원 직원과 홍보 업체 직원이 심사 기준에 따라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 62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심사인 공모전 심사위원회에서는 62점을 심사하여 수상작 18점을 선정하고, 순위를 확정하였다.

- 예비 심사

구분	내용
일시	2016. 8. 17.(수) 10:00 ~ 18:30
장소	국립국어원 3층 회의실
심사 위원	김*철 언어정보과장, 박*아 연구관, 위* 연구사, 유*은 연구원, 고*무(주)이지스 부장), 한*정((주)이지스 직원)
심사 대상	응모작 전체
심사 결과	62점 선정(상급 31점, 중급 31점)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예비 심사 일정

- 본 심사

구분	내용
일시	2016. 8. 19.(금) 14:00 ~ 18:00
장소	국립국어원 3층 회의실
심사 대상	- 예비 심사 통과 작품 62점 - 단체상 심사를 위한 단체 지원 작품
심사 결과	총 18점 선정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8점, 단체상 3점)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본 심사 일정

- 시상 내역

종류		상금	작품 수
대상	문체육관광부 장관상	300만원	1점
최우수상	국립국어원장상	100만원	2점
우수상		50만원	4점
장려상		30만원	8점
단체상		30만원	3점
합계		1,030만원	18점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시상 내역

○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공모전 심사 결과는 2016년 9월 21일에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보도 자료로 발표하였다. 수상작은 총 18점으로, 개인 작품 8점과 단체 작품 8점이 고르게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은 허성문 외 2명(이화여자대학교)이 선정되었고, 국립국어원 원장상인 최우수상에는 윤*흠(개인)과 오산원일초등학교 6학년 5반(단체)이 선정되었다.

-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배포

- 보도 자료 제목: 우리말 사전을 함께 만들다 - 국립국어원, 2016년 국어사

전 진흥 공모 행사 결과 발표-

- 보도 자료 배포 시기: 2016년 9월 21일
- 보도 자료 전문: [붙임3]
- 배포 결과: 7개 매체 보도(재외동포신문, 아시아뉴스통신, 국제뉴스 등)

-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립국어원 누리집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당 선 작 발 표 및 전 시 회 안 내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의 당선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5일(수)에 개최하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계통을 기념하여 치러졌는데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창의적으로 뜻풀이한 작품이 무려 1300점이나 접수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류	수상작 수	창의적 뜻풀이 부문
대상	1	허상*, 김유*, 성주*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상	2	오산원일초등학교 6학년 5반 윤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상	4	김유* (화성고등학교) 김정* (광주광역시 남구) 박두* (인천대학교) 윤태* (연초중학교)
장려상	8	김순* (서울시 성동구) 박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신영*, 이순* (77빛남동) 원희*, 오정*, 표재* (고려대학교) 유기*, 장희*, 이해*, 강정*, 김혜* (글쓰는 엄마 모임) 이삼* (서울시 마포구) 정영*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조민* (필교여자중학교)
단체상	3	고봉초등학교 5학년 2반 장파초등학교 독서논술부 박민*, 박시*, 심현*, 윤여*, 이다*, 임준*, 장진*, 전상*, 한예*, 홍효*, 이수* (아름고등학교)
합계	18점	

■ 시상식은 2016년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열리는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과 함께 치러집니다. 수상자에게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 전시회는 제570돌 한글날을 맞아 2016년 10월 9일에 2016 한글문화큰잔치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많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식 전시회 관련 문의는 국어사전 진흥 행사 담당자(02-2669-9755, 02-2669-9754)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전 수상자 명단

종류	작품	대표자/연령	개인/ 단체	소속 / 공동 참가자
대상	1점	허*문, 김*나, 성*연	단체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상	2점	윤*흠	개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산월일초등학교 6-5(28명) (지도교사 염*일)	단체	
우수상	4점	김*빈	개인	화성고등학교
		박*환	개인	인천대학교
		윤*원	개인	연초중학교
		김*열	개인	이만삼안경원
장려상	8점	조*지	개인	별교여자중학교
		원*상, 오*민, 표*희	단체	고려대학교
		박*언	개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유*은, 장*정, 이*진, 강*연, 김*정	단체	글쓰는 엄마 모임
		김*모	개인	서울시 성동구
		정*석	개인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이*실	개인	마포구 상암동
		신*숙, 이*이	단체	77벗님들
단체상	3점	파주 장파초등학교 20명 (대표 학생 이*모)	단체	
		박*석, 박*현, 심*석, 윤*진, 이*인, 임*영, 장*호, 전*아, 한*림, 홍*림, 이*미(지도교사)	단체	아름고등학교
		고봉초등학교 5-2 25명 (지도 교사 이*선)	단체	
합계	18점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자 명단

- 공모전 수상작

한글	인간과 자연의 이치가 뿌리 깊이 아로새겨진 우리 고유의 문자로, 한국인의 열과 생각의 터전을 다지는 소중한 벗.
미래	오늘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때.
샘	힘의 시작점으로부터 솟아나와 온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보배로운 생명의 요람.
함께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난 든든한 마음결이 어우러져
만들다	어렴풋한 생각의 밑그림에 살을 붙여, 생동하는 실체로 세상에 내놓다.

대상 수상작 (허*문, 김*나, 성*연)

한글	하늘 아래 우리민족을 하나로 맺어 주는 말과 글.
꿈	꾸물꾸물 자라는 생각의 씨앗을, 잠든 머릿속에서 싹 틔우는 일.
미래	아직 알 수 없어 누구든 자유롭게 바라고 경쾌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샘	세상을 만드는 재료가 담긴 맑은 주머니.
함께	하나 된 마음끼리 어깨동무하여.

최우수상 수상작(윤*흠)

한글	세종대왕님이 정성껏 만드신,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과 글.
꿈	사람들이 침대라는 비행기를 타고 자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
샘	물 부족 국가에서 희망하는 곳.
함께	운동회할 때 박을 터트리듯 것처럼 협동하는 것.
만들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생기게 하는 것.

최우수상 수상작(오산원일초등학교 6-5)

멋	오직 하나뿐인 아름다움.
미래	꿈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답의 시간.
함께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착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영차영차.
신나다	기쁨에 차서 신발이 날아갈 정도로 들뜨다.
해맑다	생각과 행동에서 톡 쏘는 상큼함이 싱그러움을 자아내다.

우수상 수상작(김*빈)

미래	다가올 나날의 합. 그 모습.
샘	흙속을 비집고 뚫 뚫 피어오른 물이 싱그럽게 머무는 곳.
함께	내딛을 걸음걸음 안에서 동시에 나란히.
신나다	즐거운 상황에 스며들어 몸과 마음이 가뿐하다.
정겹다	애뜻한 마음들이 어우러지는 사이 다사로운 분위기가 번지다.

우수상 수상작(박*환)

한글	한없이 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글.
멋	내면과 외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 없는 아름다움.
꿈	안개처럼 내면에 아스라이 가려져 있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드러나는 내면의 울림.
함께	흩어져 있던 모두가 더불어 하나의 믿음으로 뭉치는 행위.
신나다	내 몸에 새롭고 향기로움이 들어와 뿜어져 나오는 신명나는 몸짓.

우수상 수상작(윤*원)

멋	사람을 사람되게 하며, 물건을 물건되게 하는 아름다운 눈높이.
샘	깊은 곳으로부터 두근거리며,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물의 숨결.
신나다	온몸에 잠자던 세포가 눈을 쓰고 기뻐 뛰며 휘파람을 불다.
해맑다	새벽 이슬 같은 순수로 빛은 어린아이의 웃음보따리를 풀다.
정겹다	마음의 밑바탕에 따뜻함이 넘쳐나서 가슴앓이를 하다.

우수상 수상작(김*열)

꿈	원하고, 또 원해서 부지런히 갈고 닦아 만들어 나가려는 미래.
미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에, 입 안 가득 용기를 한 아름 머금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곳.
신나다	흥분으로 범벅이 된 심장을 미쳐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껏 표출하는 행위.
해맑다	푸르른 하늘 아래, 춤을 추고 있는 꽃잎들을 따라 환히 짓는 미소.
정겹다	붉게 노을 진 햇빛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반가움의 조각.

장려상 수상작(조*지)

멋	당신의 존재를 비추는 조명.
미래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가능성.
샘	방울방울 솟아나는 새로움의 원천.
함께	너와 내가 우리 되어.
신나다	마음속에서 간지러움이 요동치다.

장려상 수상작(원*상, 오*민, 표*희)

한글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깃들여 만들고 겨레의 역사를 함께 담아 온 우리의 말과 글.
멋	훌륭하고 좋은 모습과 기운이 풍겨 눈길을 끌게 만드는 것.
꿈	훗날 펼치기를 기대하며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씨앗.
미래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믿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세상.
정겹다	살가운 마음이 느껴지고 웃음이 있는 좋은 사이의 모습.

장려상 수상작(박*연)

멋	고유한 아름다움이 매력적으로 드러나 세련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나 분위기.
미래	현재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다가올 날.
샘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힘의 시작점.
신나다	날개 달린 신을 신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
해맑다	욕심이 없어 햇살처럼 밝고 물처럼 투명하며 깨끗하다.

장려상 수상작(유*은, 장*정, 이*진, 강*연, 김*정)

멋	역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스며 나오는 매력.
미래	어제보다 더 밝고 희망찬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나다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음이 즐거워지다.
만들다	마음으로 틀을 세우고 몸으로 행동한다.

장려상 수상작(김*모)

멋	내면의 기품과 외면의 매력이 일치할 때 터져 나오는 빛나는 분위기.
꿈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피로 회복제.
미래	흰 도화지에 하나씩 채우며 완성해나가는 내 인생의 모든 그림들.
해맑다	아무도 밟지 않은 이른 아침의 눈발처럼 티없이 깨끗하고 순수하다.
만들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여 손으로 빚어낸다.

장려상 수상작(정*석)

한글	나와 세상을 모으고 잇는 우리글.
샘	새로움이 솟는 티 없이 맑은 터.
신나다	내킨 마음이 제 흥에 들썹거리다.
정겹다	개나리 옆 진달래의 속삭임.
만들다	생각을 가꾸어 물씬하게 새로 짓다

장려상 수상작(이*실)

한글	온갖 뜻과 소리를 마음껏 풀어 담아내는 우리글.
멋	모양이나 품새가 잘 어우러져 조화롭고 썩 훌륭함.
꿈	1. 날마다 살아갈 힘을 솟구치게 하는 마음자리. 2. 마음가짐을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드는 알맹이.
신나다	흥이 솟아 우쭐우쭐한 기운이 넘쳐나다.
해맑다	맨 햇살처럼 산뜻산뜻하다.

장려상 수상작(신*숙, 이*이)

○ 시상식 개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은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개통식”의 2부 행사로 진행하였다.

- 일시: 2016. 10. 5. 15:20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 국립국어원장, 유관기관장,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일반인 등 약 250명
- 진행 방식: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단체상 수상자 부문별 시상
 - 시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패를 전달 후 부문별 사진 촬영
- 시상자: 송철의 국립국어원 원장
- 수상자: ①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 허*문·김*나·성*연(단체)
 - ② 최우수상(국립국어원장상 2점) 윤*흠, 염*일(오산원일초 6-5 대표)
 - ③ 우수상(국립국어원장상 4점) 김*열, 박*환, 김*빈(부모님 대리 수상), 윤*원(불참)
 - ④ 장려상(국립국어원장상 8점) 김*모, 이*실, 유*은·장*정·이*진·강*연·김*정(단체), 원*상·오*민·표*희(단체), 신*숙·이*이(단체), 조*지(불참), 정*석(불참), 박*언(불참)
 - ⑤ 단체상(국립국어원장상 3점) 조*현(장파초 독서논술부), 이*미(아름고등학교 이*미 외 11명), 고봉초 5-2반(불참)



□ 전시회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총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우선 10월 5일 《우리말샘》 개통식장에서 실내 전시를 하였고,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6 한글문화큰잔치 행사의 일부로 진행하였다. 전시 작품은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18점으로, 전시물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상자의 창의적인 뜻풀이를 한글 멋글씨로 제작하였다.

○ 전시회 개요

- 행사명: 2016년 국어사전 진흥 행사 창의적 뜻풀이 수상작 전시회
- 일시/장소: (1차) 2016. 10. 5(수) / 《우리말샘》 개통식(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2차) 2016. 10. 9.(일) / 2016 한글문화큰잔치(광화문 북측 광장)
- 전시 내용: 공모전 수상작 18점
- 추진 방향:
 - 제570돌 한글날 당일 이루어지는 전시회로 의미 있는 전시물 구성으로 ‘창의적인 뜻풀이’를 효과적으로 전달
 - 국어 문장의 부호 중 하나인 [대괄호]를 사용하여 우리말 사전에 ‘창의적인 뜻풀이를 담다’는 포괄적인 형태의 이미지로 형상화



[다자인 모티브]
1. 국어 문장의 부호중 하나인 대괄호 형상화
2. '담다'를 포괄적인 형태의 대괄호 이미지로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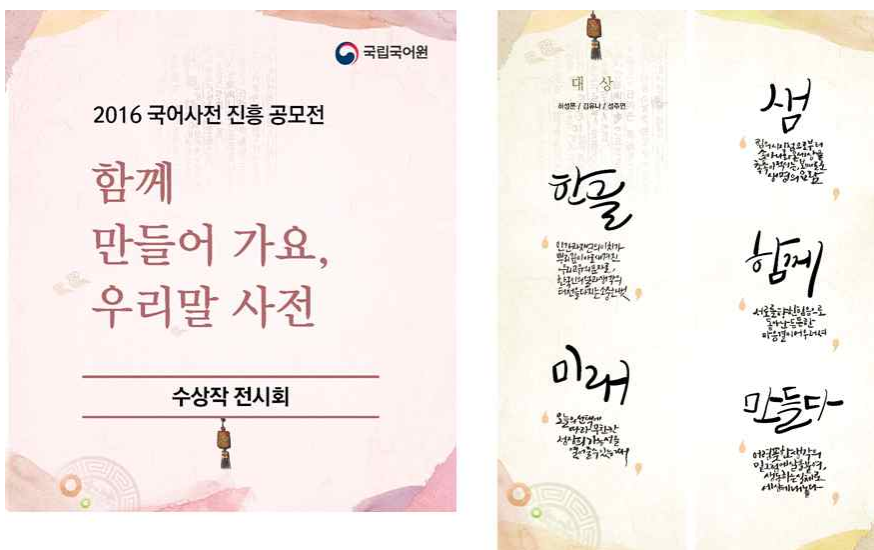
○ 수상작 전시물 디자인

- 수상작 18점(1점당 창의적 뜻풀이 5개, 총 90개)을 한글 멋글씨로 제작
- 단체상 전시물은 보조 자료로 첨부한 그림 작품으로 전시

- (1차) 《우리말샘》개통식 전시회 전시물(10. 5.)



- (2차) 2016 한글문화큰잔치 전시회 전시물(1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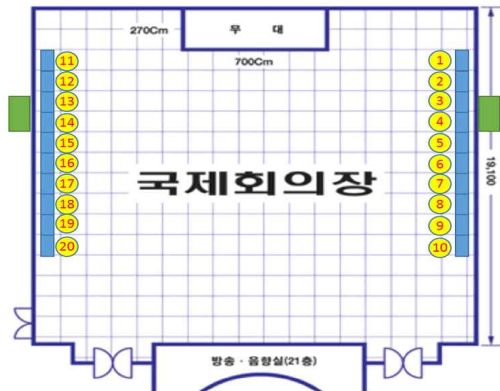
○ 전시회 개최 및 운영

- 1차: 《우리말샘》 개통식 전시회

- 일시/장소: 10. 5. 13:00~16:30, 《우리말샘》 개통식장(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 전시물 배치: 개통식장(국제회의장) 좌우 공간 활용
- 옥타부스 크기: 1면 0.95m(가로)×2.5m(높이) / 총 20면 제작



· 작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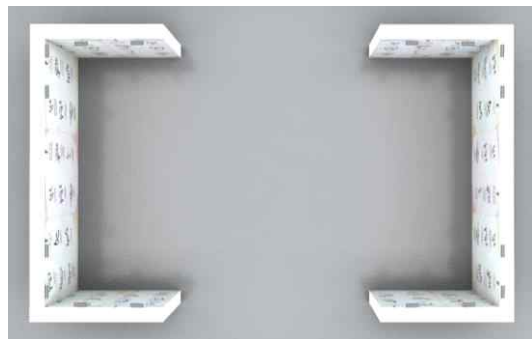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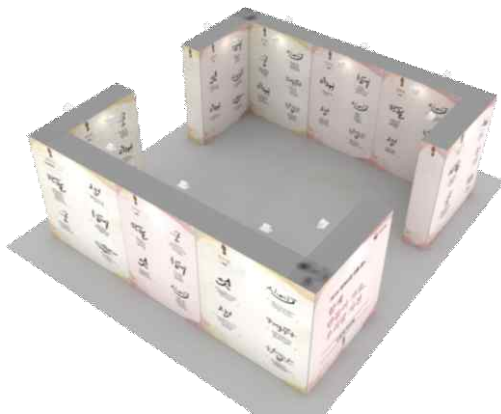


NO.	작품	NO.	작품
1	타이틀	11	타이틀
2	대상-허성문 외	12	최우수-오산원일초등학교
3	최우수-윤도홍	13	우수상-박두환
4	우수상-윤태원	14	우수상-김유빈
5	우수상-김정열	15	장려상-조민지
6	장려상-이상실	16	장려상-유가은 외
7	장려상-정영석	17	장려상-원희상 외
8	단체-장파초등학교	18	장려상-김순모
9	단체-고봉초등학교	19	장려상-신영숙 외
10	단체-아름고등학교	20	장려상-박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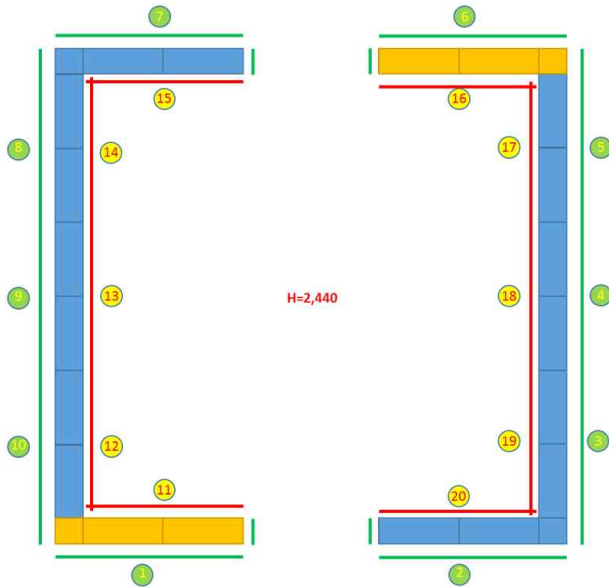


- 2차: 2016 한글문화큰잔치 전시회

- 일시/장소: 10. 9. 09:00~18:00, 2016 한글문화큰잔치(광화문 북측 광장)
- 전시물 배치: 북측 광장 8m×8m / [대괄호] 전시 디자인 적용
- 목공부스 크기: 1면 0.85m(가로)×2.4m(높이), 타이틀면 2.2m×2.4m
- * 야간 전시 운영을 위해 조명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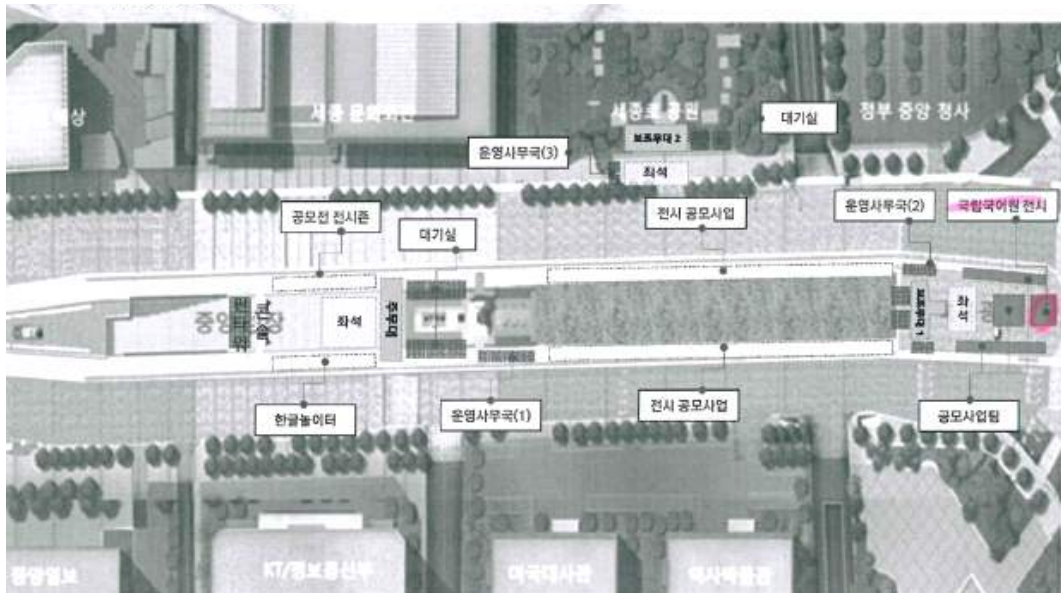


· 작품 구성:



NO.	작품
1	타이틀
2	대상-허성문 외
3	최우수-오산원일초등학교
4	우수상-윤태원
5	우수상-김정열
6	타이틀
7	최우수상-윤도흠
8	단체-장파초등학교
9	단체-고봉초등학교
10	단체-아름고등학교
11	장려상-김순모
12	장려상-조민지
13	우수상-박두환
14	장려상-박정연
15	장려상-이상실
16	장려상-정영석
17	장려상-유가은 외
18	장려상-원희상 외
19	장려상-신영숙 외
20	우수상-김유빈

※ 2016 한글문화큰잔치 행사장 구성 및 배치도



○ 전시회 홍보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홍보는 홍보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1차 《우리말샘》 개통식 전시회에서 300부를 배포하였고, 2차 2016 한글문화큰잔치 전시회 현장에서 1,700부를 배포하였다.

- 전시회 홍보 소책자(2,000부 제작)

전시회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안내
1호선 중구역 6차 1번 출구로 나와서 문화로 방향
3호선 광복로역 8차 2번 출구에서 세종대로 방향 300m 지점
5호선 명파로역 8차 2번 출구로 나와서
내선1번(국어사전)을 방향으로 300m 지점

버스 이용 안내
간선 103, 104, 150, 401, 402, 406, 606, 607, 703, 704, 707
지선 1100, 1711, 2016, 2018, 2022, 2212
광역 1005-1, 5500-1, 5500-2, 9000, 9401, 9701, 9710

우리말이 궁금할 땐?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ac.kr
☎ 카운터
☎ 국어상담실
☎ 국어상담실
☎ 국어상담실
☎ 국어상담실

우리말 샘이란?
사용자가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사전의 부록어를 수정할 수 있는 신개념 국어사전으로, 국민의 언어 자각과 한국 언어 문화가 일깨워지는 단점이다.
우리말샘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신어, 지명어, 전문용어 등 약 100만 개 어휘를 수록한 국어사전이며, 어휘의 관련 어사 정보, 구문 정보, 속어 정보, 통사구조 정보, 어휘 지도 등을 포함한 한국 언어문화 정보의 일체화입니다.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전
실생활 언어를 알아보는 맞춤형 사전
사전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우리말 샘 제동을 축하하는 꽃글을 날게 주세요.
200명을 수렴해 카카오톡(Kakao)을 드려요.
행사 기간 10.5(화) ~ 10.12(수)
결과 발표 10.13(목)

참여 방법
① 페이스북에서 #365surmal을 검색하여 국립국어원 '365, 365', '365'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② '365, 365', '365'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③ 댓글을 달아주세요.
④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일시
2016. 10. 9.

장소
2016 한글문화큰잔치 (문화로 북쪽 방향)

국립국어원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삶에 올리는 우리말 사전 **우리말 샘** 10월 9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2016 국어사전 인물 공모전에서 뽑아진 100명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10월 9일 한글문화큰잔치에서 축하카드를 발송합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운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한글
인간과 자연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져 온 우리 고유의 문화로, 한국인의 일과 생활의 터전을 다지는 소중한 것.
- 대성 이영호, 김나나, 정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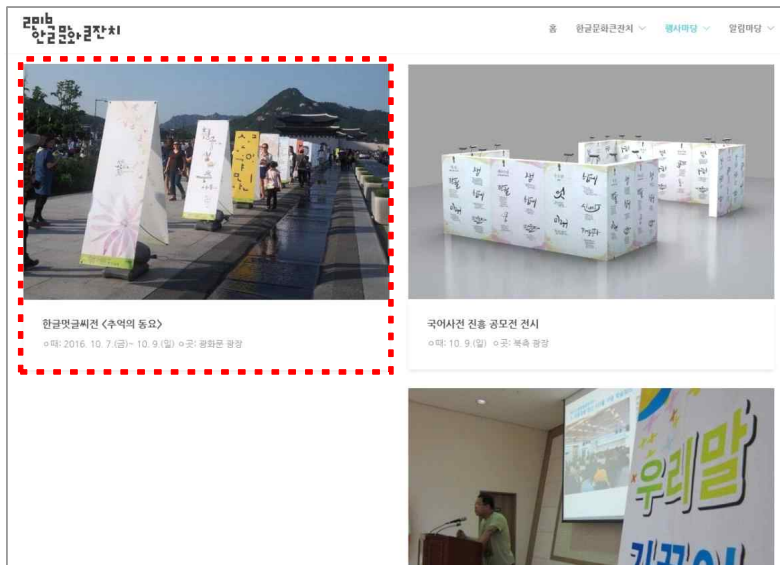
미래
한 도와 지에 하나의 책이며 완성해 나가는 내 인생의 모든 그림들.
- 정대성 정대성
꿈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람의 시간.
- 최우성 김나나
앞으로 다가올 것 같고 믿고 바램으로 그리는 세상.
- 정대성 정대성
스스로 채 내아가는 날들.
- 정대성 정대성

함께
세로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난 든든한 마음결이 이루어져.
- 대성 이영호, 김나나, 정우현
하나 된 마음결이 이계동무하여.
- 최우성 김나나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 정대성 정대성
네와 내가 우리 되어.
- 정대성 정대성

만들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생각해 하는 것.
- 최우성 김나나
마음으로 꿈을 세우고 몸으로 행동하다.
- 정대성 정대성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여 손으로 찾아내다.
- 정대성 정대성

그리고 전시회를 2016 한글문화큰잔치 누리집에 소개하고, 한글날 특집 호외(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에서 배포)에도 소개하여 한글문화큰잔치와 한글날 경축식장에 참석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6 한글문화큰잔치 누리집



- 507돌 한글날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 호외
 - 16쪽 타블로이드 형태
 - 《우리말샘》 소개(12쪽), 수상작 전시회 소개(15쪽)



○ 전시회 개최 결과

국립국어원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10월 9일)에는 약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처럼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요인으로는 한글날이라는 시기적 장점과 유동 인구가 많은 광화문 북측 광장이라는 장소적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전시회는 매해 이루어지는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창의적 뜻풀이를 한글 멋글씨로 제작함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5

백서 제작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편찬 백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된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편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편찬 백서’는 이후 《우리말샘》·《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개정·증보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후 개발될 사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백서 표지와 목차

표지

목차

차례

서문

1. 사설	3
2. 2016년	4
3. 2015년	5
4. 2014년	6
5. 2013년	7
6. 2012년	8
7. 2011년	9
8. 2010년	10
9. 2009년	11
10. 2008년	12
11. 2007년	13
12. 2006년	14
13. 2005년	15
14. 2004년	16
15. 2003년	17
16. 2002년	18
17. 2001년	19
18. 2000년	20
19. 1999년	21
20. 1998년	22
21. 1997년	23
22. 1996년	24
23. 1995년	25
24. 1994년	26
25. 1993년	27
26. 1992년	28
27. 1991년	29
28. 1990년	30
29. 1989년	31
30. 1988년	32
31. 1987년	33
32. 1986년	34
33. 1985년	35
34. 1984년	36
35. 1983년	37
36. 1982년	38
37. 1981년	39
38. 1980년	40
39. 1979년	41
40. 1978년	42
41. 1977년	43
42. 1976년	44
43. 1975년	45
44. 1974년	46
45. 1973년	47
46. 1972년	48
47. 1971년	49
48. 1970년	50
49. 1969년	51
50. 1968년	52
51. 1967년	53
52. 1966년	54
53. 1965년	55
54. 1964년	56
55. 1963년	57
56. 1962년	58
57. 1961년	59
58. 1960년	60
59. 1959년	61
60. 1958년	62
61. 1957년	63
62. 1956년	64
63. 1955년	65
64. 1954년	66
65. 1953년	67
66. 1952년	68
67. 1951년	69
68. 1950년	70
69. 1949년	71
70. 1948년	72
71. 1947년	73
72. 1946년	74
73. 1945년	75
74. 1944년	76
75. 1943년	77
76. 1942년	78
77. 1941년	79
78. 1940년	80
79. 1939년	81
80. 1938년	82
81. 1937년	83
82. 1936년	84
83. 1935년	85
84. 1934년	86
85. 1933년	87
86. 1932년	88
87. 1931년	89
88. 1930년	90
89. 1929년	91
90. 1928년	92
91. 1927년	93
92. 1926년	94
93. 1925년	95
94. 1924년	96
95. 1923년	97
96. 1922년	98
97. 1921년	99
98. 1920년	100
99. 1919년	101
100. 1918년	102
101. 1917년	103
102. 1916년	104
103. 1915년	105
104. 1914년	106
105. 1913년	107
106. 1912년	108
107. 1911년	109
108. 1910년	110
109. 1909년	111
110. 1908년	112
111. 1907년	113
112. 1906년	114
113. 1905년	115
114. 1904년	116
115. 1903년	117
116. 1902년	118
117. 1901년	119
118. 1900년	120
119. 1899년	121
120. 1898년	122
121. 1897년	123
122. 1896년	124
123. 1895년	125
124. 1894년	126
125. 1893년	127
126. 1892년	128
127. 1891년	129
128. 1890년	130
129. 1889년	131
130. 1888년	132
131. 1887년	133
132. 1886년	134
133. 1885년	135
134. 1884년	136
135. 1883년	137
136. 1882년	138
137. 1881년	139
138. 1880년	140
139. 1879년	141
140. 1878년	142
141. 1877년	143
142. 1876년	144
143. 1875년	145
144. 1874년	146
145. 1873년	147
146. 1872년	148
147. 1871년	149
148. 1870년	150
149. 1869년	151
150. 1868년	152
151. 1867년	153
152. 1866년	154
153. 1865년	155
154. 1864년	156
155. 1863년	157
156. 1862년	158
157. 1861년	159
158. 1860년	160
159. 1859년	161
160. 1858년	162
161. 1857년	163
162. 1856년	164
163. 1855년	165
164. 1854년	166
165. 1853년	167
166. 1852년	168
167. 1851년	169
168. 1850년	170
169. 1849년	171
170. 1848년	172
171. 1847년	173
172. 1846년	174
173. 1845년	175
174. 1844년	176
175. 1843년	177
176. 1842년	178
177. 1841년	179
178. 1840년	180
179. 1839년	181
180. 1838년	182
181. 1837년	183
182. 1836년	184
183. 1835년	185
184. 1834년	186
185. 1833년	187
186. 1832년	188
187. 1831년	189
188. 1830년	190
189. 1829년	191
190. 1828년	192
191. 1827년	193
192. 1826년	194
193. 1825년	195
194. 1824년	196
195. 1823년	197
196. 1822년	198
197. 1821년	199
198. 1820년	200
199. 1819년	201
200. 1818년	202
201. 1817년	203
202. 1816년	204
203. 1815년	205
204. 1814년	206
205. 1813년	207
206. 1812년	208
207. 1811년	209
208. 1810년	210
209. 1809년	211
210. 1808년	212
211. 1807년	213
212. 1806년	214
213. 1805년	215
214. 1804년	216
215. 1803년	217
216. 1802년	218
217. 1801년	219
218. 1800년	220
219. 1799년	221
220. 1798년	222
221. 1797년	223
222. 1796년	224
223. 1795년	225
224. 1794년	226
225. 1793년	227
226. 1792년	228
227. 1791년	229
228. 1790년	230
229. 1789년	231
230. 1788년	232
231. 1787년	233
232. 1786년	234
233. 1785년	235
234. 1784년	236
235. 1783년	237
236. 1782년	238
237. 1781년	239
238. 1780년	240
239. 1779년	241
240. 1778년	242
241. 1777년	243
242. 1776년	244
243. 1775년	245
244. 1774년	246
245. 1773년	247
246. 1772년	248
247. 1771년	249
248. 1770년	250
249. 1769년	251
250. 1768년	252
251. 1767년	253
252. 1766년	254
253. 1765년	255
254. 1764년	256
255. 1763년	257
256. 1762년	258
257. 1761년	259
258. 1760년	260
259. 1759년	261
260. 1758년	262
261. 1757년	263
262. 1756년	264
263. 1755년	265
264. 1754년	266
265. 1753년	267
266. 1752년	268
267. 1751년	269
268. 1750년	270
269. 1749년	271
270. 1748년	272
271. 1747년	273
272. 1746년	274
273. 1745년	275
274. 1744년	276
275. 1743년	277
276. 1742년	278
277. 1741년	279
278. 1740년	280
279. 1739년	281
280. 1738년	282
281. 1737년	283
282. 1736년	284
283. 1735년	285
284. 1734년	286
285. 1733년	287
286. 1732년	288
287. 1731년	289
288. 1730년	290
289. 1729년	291
290. 1728년	292
291. 1727년	293
292. 1726년	294
293. 1725년	295
294. 1724년	296
295. 1723년	297
296. 1722년	298
297. 1721년	299
298. 1720년	300
299. 1719년	301
300. 1718년	302
301. 1717년	303
302. 1716년	304
303. 1715년	305
304. 1714년	306
305. 1713년	307
306. 1712년	308
307. 1711년	309
308. 1710년	310
309. 1709년	311
310. 1708년	312
311. 1707년	313
312. 1706년	314
313. 1705년	315
314. 1704년	316
315. 1703년	317
316. 1702년	318
317. 1701년	319
318. 1700년	320
319. 1699년	321
320. 1698년	322
321. 1697년	323
322. 1696년	324
323. 1695년	325
324. 1694년	326
325. 1693년	327
326. 1692년	328
327. 1691년	329
328. 1690년	330
329. 1689년	331
330. 1688년	332
331. 1687년	333
332. 1686년	334
333. 1685년	335
334. 1684년	336
335. 1683년	337
336. 1682년	338
337. 1681년	339
338. 1680년	340
339. 1679년	341
340. 1678년	342
341. 1677년	343
342. 1676년	344
343. 1675년	345
344. 1674년	346
345. 1673년	347
346. 1672년	348
347. 1671년	349
348. 1670년	350
349. 1669년	351
350. 1668년	352
351. 1667년	353
352. 1666년	354
353. 1665년	355
354. 1664년	356
355. 1663년	357
356. 1662년	358
357. 1661년	359
358. 1660년	360
359. 1659년	361
360. 1658년	362
361. 1657년	363
362. 1656년	364
363. 1655년	365
364. 1654년	366
365. 1653년	367
366. 1652년	368
367. 1651년	369
368. 1650년	370
369. 1649년	371
370. 1648년	372
371. 1647년	373
372. 1646년	3

□ 《우리말샘》 홍보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은 일반 국민의 참여에 의해 확대되고 발전하는 사전이다. 따라서 《우리말샘》에 대한 현재의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샘》의 홍보는 대상별로 홍보 전략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홍보 대상은 크게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홍보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 인터넷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말샘》의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언론 보도를 유도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인포그래픽 뉴스, 카드뉴스 등을 송출하는 홍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문가를 홍보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우리말샘》 집필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전문가는 《우리말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국어국문학 전공자이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샘》 집필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이들에게 《우리말샘》 집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안내 책자, 동영상, 현장 교육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말샘》의 지속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과 과정에 사전 활용 내용을 편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사전 활용 교육은 향후 《우리말샘》 집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홍보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사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홍보도 대상별 특징을 고려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홍보 대상을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한류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통해 접하고, 한국어는 현지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배운다. 그래서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곧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결혼이민자 여성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노동자고용센터 등에 속해 있으며,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기관 및 유관 기관의 한국어 교사에게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적극 홍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를 구해 기관 누리집에 《한국어기초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연동하여 사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붙임 1 보도자료 《우리말샘》 개통

 국립국어원	보 도 자 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보도 일시	9. 28.(수) 12: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붙임 10쪽 포함)
배포 일시	2016. 9. 28.(수)	담당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담당과장	김선철(02-2669-9751)	담 당 자	연구사 위진(02-2669-9755)

진화하는 국어사전, 나도 집필자? -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참여형 웹사전 《우리말샘》 등 사전 3종 개통 -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살아 움직이는 국어를 제 모습대로 파악하고 기록하여 한국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말샘》(개방형 국어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10개 언어) 등 3종 12개 사전을 오는 10월 5일(수)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 일시/장소: 2016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
- 주요 내용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소개 및 시연
 - 《우리말샘》 첫 사용자 어휘 등록
- 사전별 웹 주소
 -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
 - 한국어기초사전 <http://kr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예: 한-영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eng>)
- ※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나 포털의 검색을 통해서 ‘바로 가기’ 가능

사용자 참여로 날마다 진화하는 《우리말샘》

《우리말샘》은 온 국민의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이다. 개통 시점에는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지역어·전문용어 등 100만 어휘가 수록되며, 뜻풀이·예문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어휘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다중 매체 자료(삽화, 사진, 동영상 등), 어휘 지도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와 지식, 문화를 담는다.

이 사전은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이다. 사용자가 침삭한 정보는 표현·표기 감수를 거쳐 ‘참여자 제안 정보’로 표시되고, 이 정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 절차를 거치면 ‘전문가 감수 정보’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의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말샘》은 일반 참여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사전’이다.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검토되어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모든 어휘의 편집 이력이 상세히 공개되며, 토론 게시판에서는 개별 어휘에 대한 집단 토론도 할 수 있다.

사용에 편리한 여러 기능도 구현되었다. 사전 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포함 검색, 자모 검색, 초성 검색, 정보별 검색 등)을 갖추었고, 관련 어휘들이 그물망처럼 표시되어 어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휘 지도 기능도 있다. 개인별 단어장이나 작은 창 사전 기능도 매우 유용하다.

한류 확산의 새로운 동력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가 실

린 한국어 학습사전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공하고, 어휘별로 다중 매체 자료(삽화, 사진, 동영상 등)와 관련어 정보를 연결하여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은 한국어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한류의 동력이 될 10개 언어로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하면서 번역하였고, 외국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여건에서도 편리하게 외국어별 화면 자판 기능, 글자 중심의 화면을 구현하였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의 마중물이 되도록 저작권 공개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정보는 누구나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민간에서 사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개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사전 자료 개발 지원(오픈 에이피아이 Open API)을 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한국 언어문화를 집대성하고 발전시킬 《우리말샘》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말의 쓰임과 현상을 담아 낸 《우리말샘》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다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 3.0에 따라 누구나 사전 정보를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축적의 기제로 작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말과 우리 문화의 특성까지 반영한 《한국어 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 한류와 더불어 약진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를 뒷받침해,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대와 한국어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개요
2. 사전별 질의응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위진(☎ 02-2669-97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보도자료** 2016 국어사전 진흥 행사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 도 자 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배포일시	2016. 6. 13.(월) 10:00	담당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담당과장	김선철(02-2669-9751)	담당자	학예연구사 위진(02-2669-9755)		

“멋, 꿈, 정겹다! 나도 한번 풀이해 볼까?” **- 국립국어원, 제2회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개최 -**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누구나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고, 편찬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개통(2016년 10월 5일)을 앞두고, 낱말의 뜻풀이를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담은 사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공모전

- 공모 부문: 창의적 뜻풀이(제시어 10개 중 5개 이상 뜻풀이)
 - ※ 제시어: 한글, 멋, 꿈, 미래, 샘, 함께, 신나다, 해맑다, 정겹다, 만들다
- 응모 기간: 2016년 8월 1일(월)~8월 15일(월)
- 시상식: 2016년 10월 5일(수)/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
- 수상작 전시회: 2016년 10월 8일~9일/2016 한글문화큰잔치(광화문 광장)
-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누리집

(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mn_id=17&b_seq=1782&pageIndex=1)

창의적 뜻풀이로 만들어지는 우리말의 미래

공모전은 제시된 10개의 낱말 중 5개 이상을 자기만의 개성으로 뜻풀이하는 것으로, 뜻풀이가 연상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제시어는 ‘**한글의 멋을 담은 우리말이 자꾸자꾸 샘솟는 해맑은 미래를 꿈꾸고, 우리 모두 정겹게 소통하며 우리말 사전을 신나게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아 선정되었다. 이 낱말의 선정에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기관의 대표(고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성규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고용우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가 참여하였다.

개인이나 단체, 외국인도 응모 가능

공모전에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작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시인, 기자, 국어국문학 전문가, 국어 교사 등)이 진행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단체상 3명 등 총 1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0월 5일 <《우리말샘》> 개통 행사와 함께 열리며, 수상작은 ‘2016 한글문화큰잔치’의 일부로 진행될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전시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mn_id=17&b_seq=1782&pageIndex=1)에 안내되어 있다.

<《우리말샘》> 개통 행사에서 수상작 뜻풀이 입력 시연



대상 수상자는 <《우리말샘》> 개통 행사에서 자신이 뜻풀이한 낱말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우리말샘》> 최초 어휘 등록자’로 기록될 것이다.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은 한국어 사용자가 새롭게 사용하는 낱말을 사전에 올리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함께 만들어 살아 움직이는 사전’을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낱말의 폭넓은 의미와 다양한 쓰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공모전 포스터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위진
(☎ 02-2669-975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보도자료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 수상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 도 자 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9. 21.(수) 10:00	담당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담당과장	김선철(02-2669-9751)	담당자	학예연구사 위진(02-2669-9755)	

우리말 사전을 함께 만들다 - 국립국어원,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 행사 결과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개통(2016년 10월 5일)을 앞두고,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 행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참여자가 주어진 10개의 낱말 중 5개를 골라서 창의적으로 뜻풀이한 것을 응모하여 국립국어원이 평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1,300개 작품이 접수되었다(단체 255점, 개인 1,045점). 그리고 작가, 국어학자, 교사 등의 국어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의 고심과 토론 끝에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 세대가 함께 만드는 국어사전

이번 공모 행사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7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하였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단체로 지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단체 응모자 중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창의적 뜻을 모아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글 쓰는 엄마 모임, 대학 77학번 친구들 모임 등 일반 동호인 성격의 단체가 지원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상 수상자는 대학생 세 명이 의기투합한 단체가 선정되었다. 그들은 ‘미래’를 “오늘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때”로, ‘만들다’를 “어렵쑥한 생각의 밑그림에 살을 붙여, 생동하는 실체로 세상에 내놓다”로 풀이하여 뜻풀이에 청춘의 패기를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30대 직장인과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이 각각 수상하게 되었다. 30대 직장인은 ‘한글’을 “하늘 아래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맺어 주는 글”로, ‘정겹다’를 “너와 내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따스하다”로 풀이해서 우리말로 하나되는 국민들의 모습을 그려 주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꿈’을 “사람들이 침대라는 비행기를 타고 자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으로 풀이해서 어린다운 창의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도 ‘샘’을 “물 부족 국가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풀이하여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전시회는 멋글씨 작품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에 열리는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제 570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16 한글문화큰잔치’에서 전시되는데(10월 9일, 광화문 광장), 창의적 뜻풀이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멋글씨(캘리그래피)로 펼쳐진다.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시상식·수상작 전시회

- 시상식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
- 수상작 전시회
 - 일시: 2016년 10월 9일(일)
 - 장소: 2016 한글문화큰잔치(광화문 광장)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모이는 국어사전

국립국어원은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 행사’가 국민이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맞이할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고, 낱말 뜻풀이 체험을 직접 해 봄으로써 우리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국어사전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상자 명단 1부

2. 대상작, 최우수상작 소개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위진
(☎ 02-2669-975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우리말샘》 개통식 시나리오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부 - 14:00 ~ 14:50			
입장, 착석 안내	13:50 13:55	잠시 후, 《우리말샘》 개통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장내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50분, 55분 공지)	진행 순서 안내 PPT
식전 안내 주빈 입장	13:58~ 14:00	곧 < 《우리말샘》 > 개통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행사 주빈 입장) 주빈의 모습이 보이면, 사회자는 입장을 공지</i>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차관님과 주요 내빈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회 자
개회 및 국민의례	14:00~ 14:04 (’04)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의 ‘우리말 겨루기’를 오랫동안 진행한 저로서는 오늘이 참으로 뜻깊은 날인데요. 그 의미 깊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개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자 포디 움 (무대 좌측) 연사 포디 움(무 대 중앙)

		<p>국기에 대한 경례.</p> <p><i>(BGM 종료 후)</i></p> <p>바로</p> <p>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p> <p><i>(애국가 BGM에 맞춰 제창 후)</i></p> <p>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p> <p>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p> <p><i>(BGM없이 약 5초 후)</i> 바로.</p> <p>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p> <p>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3개의 사전이 소개됩니다. 바로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인데요.</p> <p>새롭게 개통되는 이 사전들이 우리나라 문화 융성의 주춧돌이 되고, 나아가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무대 태극 기 준비/ 스크 린 태극 기 화면</p> <p>국민 의례 BGM</p> <p>애국 가 1절 BGM</p>
내외빈 소개	14:04~ 14:07 (’03)	<p>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말샘》>과 한국어 학습 사전의 활용에 도움을 주실 각계 단체장 분들과 문화계와 학계의 교수님,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여러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p> <p>특별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p> <p>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 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p>	

		<p>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p> <p>서정목 국어심의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김광호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p> <p>미래부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p> <p>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p> <p>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이사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p> <p>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 내빈 참석자 명단 최종 확인 요망)</p> <p>이 외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p>	
개회사	14:07~ 14:11 ('04)	<p>다음으로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개회사, 원장님)</p> <p>(말씀 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	(의 전 도움 1)
축사	14:11~ 14:16 ('05)	<p>다음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축사, 차관님)</p>	(의 전 도움 2)

		<p>(말씀 후) 네,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p> <p>< 《우리말샘》 >을 통해서 집대성된 한국어 지식이 문화융성을 더 솟아오르게 하는 무궁무진한 샘이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정관주 차관님의 축하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측사 내용 최종 확인 후 반영 필요)</p>	
홍보 영상 상영	14:16~ 14:21 (’05)	<p>다음 순서는 새롭게 개통하는 < 《우리말샘》 >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p> <p>진화하는 사전을 주제로 만든 홍보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p> <p>모두 무대 전면의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 《우리말샘》 >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p> <p>(홍보영상 상영) (영상 상영 후)</p> <p>네. 영상 잘 봤습니다.</p> <p>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어사전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네요.</p> <p>그리고 오늘,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한 < 《우리말샘》 >,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 개통하는군요.</p> <p>특히 < 《우리말샘》 >은 한국어 지식 100만 항목을 담아 출발하는데, 국민의 참여로 날마다 확장되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니 저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홍보 영상
《우 리말 샘》 어휘	14:21~ 14:25 (’4)	<p>자, 그럼 영상에서 만나본 < 《우리말샘》 > 2016년 10월 5일,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사전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허 성 문 , 국 어 원

<p>등록</p>	<p>국민이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사전인 만큼 <《우리말샘》>의 시작은 새로운 어휘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p> <p><《우리말샘》>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첫 어휘를 등록할 분은 ‘허성문’님입니다.</p> <p>허성문님은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대상 수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입니다.</p> <p>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이현주 연구관 동행)</p> <p><i>(포디움 노트북에 미리 허성문 로그인 후 《우리말샘》집필 참여하기 화면 준비_인터넷 연결)</i> <i>(포디움 앞 대형 모니터를 통해 화면 중계 상황 확인 가능)</i></p> <p>《우리말샘》 개통 후 최초로 어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허성문님께 새 어휘를 찾아서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어휘는 ‘재능 나눔’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p> <p><i>(어휘에 ‘재능 나눔’ 입력 / 뜻풀이에 ‘타인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을 입력 후 / 저장 버튼 클릭)</i></p> <p>‘재능 나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어 지식을 <《우리말샘》>에 기록하여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능 나눔’이 아닐까요?</p> <p>여러분은 지금, 한국어 언어문화 발전의 출발점이 될 <《우리말샘》>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i>(수상자 입력 완료 후 무대에서 인사)</i></p>	<p>이현주 입장 (의전도움 3)</p> <p>(중앙포디움 위 노트북에 미리 허성문 로그인 후)</p> <p>《우리말샘》 홈페이지 내 집필 참여 하기 화면</p>
-----------	--	--

		<p>네, 수고해주신 허성문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 <p><i>(수상자 자리 착석)</i></p>	<p>중앙 포디 움 철수</p>
<p>개통 식 공연</p>	<p>14:25~ 14:42 (17)</p>	<p><i>(전체 암전 후, 아래 사회자 멘트가 시작되면, 강병인 작가의 캘리그래피 공연 준비)</i></p> <p>오늘 이 자리는 새 우리말 사전인 <《우리말샘》> 개통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p> <p>국립국어원은 1999년 종이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한 이후, 2001년에는 사전을 CD에 수록 했으며, 2002년에는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을 개통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말을 쉽게 찾고, 알맞게 쓰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말샘》을 2016년 오늘 개통하게 됐습니다.</p> <p>그런, 의미를 담아 오늘 이 개통식의 주제인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한글 멋글씨 작가인 강병인 선생님께서 대형 한지에 적는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p><i>(강병인 작가가 대형 한지에 개통식 주제를 적는 공연 시작) (편 조명)</i></p> <p><i>(조용한 BGM이 흐르는 가운데, 사회자 멘트 없이 공연에 집중)</i></p> <p><i>(지미집 카메라로 무대 위에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실시간 중계)</i></p> <p><i>(완성 시점을 함께 하기 위해 정관주 차관님을 모신다)(강병인 선생님에게 마이크 전달)</i></p>	<p>캘리 그라 피 준비</p> <p>대형 한지 무대 아래 배치 <대 형> 붓, 먹통 한지 우측 배치</p> <p><소 형> 칼라 물통, 붓 한지 중앙 위 배치</p>

		<p>(강병인 멘트) “지금부터 차관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우리말샘》 멋글씨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p> <p><i>(강병인 작가는 구체적으로 차관님이 한글 멋글씨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함)</i></p> <p><i>(차관님과 함께 완성한 한글 멋글씨 작품이 완성이 되면) (전체 조명 On)</i></p> <p>오늘 개통식 주제이죠?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국어사전 《우리말샘》 ” 이</p> <p>한글 멋글씨 강병인 작가님과 정관주 차관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멋진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p> <p>수고해주신 차관님과 강병인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i>(차관님, 강병인 작가 청중에게 인사, 강병인 선생 퇴장)</i></p> <p>차관님과 원장님께서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i>(차관님, 원장님은 무대 위에 서 계시고, 사회자 멘트)</i></p>	<p>조명 암전 조용 한 BGM</p> <p>무선 마이크</p>
기념 촬영	14:42~ 14:45 (’03)	<p>오늘의 뜻 깊은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사진 촬영을 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일반 컷, 파이팅 컷 촬영 후 종료) (차관님 퇴장)</i></p> <p>차관님을 대신해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관주 차관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이만 자리를 떠나셔야 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배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p>	<p>(의 전 도움 4)</p> <p>공식 사진 사 사진 촬영</p>

<p>휴식</p>	<p>14:45~ 15:00 (15)</p>	<p>네, 이렇게 1부 행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휴식 하시는 동안 행사장 내에 전시된 ‘2016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창의적 뜻풀이 수상작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아름다운 한글 뜻풀이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p> <p>2부 행사는 15분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p>휴식 시간 잔잔 한 BGM</p> <p>중양 포디 움 설치</p>
------------------	----------------------------------	---	---

2부 - 15:00 ~ 15:50			
순서	시간	내용	비고
입장, 착석 안내	14:58	잠시 후 2부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안내 PPT 경쾌한 BGM
2부 개막	15:00 ~ 15:01 (1)	<p>네, 휴식 시간동안 창의적 뜻풀이 수상 작품들을 잘 둘러보셨나요?</p> <p>2부에서는 아름다운 한글 뜻풀이로 공모전 수상을 하신 분들 모시고 시상식을 할 예정인데요, 시상식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p> <p>아직 <《우리말샘》>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김선철 언어정보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 <《우리말샘》>, <한국어 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이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p> <p>화면을 보시는 중에 궁금하신 점은 입장하실 때에 나눠드린 질문지에 적어서, 장내 안내 요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김선철 언어정보과장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p> <p><i>(김선철 과장 《우리말샘》 사전 소개)</i> <i>(사전 소개 후)</i></p>	<p>발표 세팅 중앙 포디움 노트북 (프레지 발표자료) 포인터 발표자용 무선마이크</p> <p>(인터넷 연결 창) 《우리말 샘》 첫화면 한국어 기초사전 첫화면</p>
사전 소개	15:01 ~ 15:15 (14)	<p>네, 《우리말샘》 등 각 사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p> <p>수고해 주신 김선철 언어정보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p> <p><i>(발표자는 질의응답 끝날 때까지 무대 위에 계속 위치, 스크린은 《우리말샘》 첫 화면을 비춤)</i></p>	프레지 발표

<p>질의응답 (시연)</p>	<p>15:15 ~ 15:25 (‘10)</p>	<p>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오늘 개통되는 사전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많이 주셨습니다.</p> <p>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분께서 중복하여 질문하신 질문 네 가지만 뽑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p> <p>(질문 1) < 《우리말샘》 > 직접 집필하기는 아까 소개되었는데, 뜻풀이 수정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p> <p>(답변) 수정하고자 하는 낱말의 상세정보 화면에서 ‘편집하기’를 눌러 참여(‘숨바꼭질’ 검색 후 보여줌)</p> <p>네, 우리도 < 《우리말샘》 >의 집필자가 되기가 어렵지 않군요.</p> <p>저도 오늘 집에 가서, < 《우리말샘》 >에 어휘 등록을 해야겠네요.</p> <p>(질문 2) 어떤 말이라도 올 수 있나요? 신조어, 유행어도 올릴 수 있나요?</p> <p>(질문 3) 제가 올린 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나요?</p> <p>(질문 4) 제가 올린 말을 다른 사람이 수정하기도 하나요?</p> <p>(정리멘트)</p> <p>제가 올린 말이 사전에 기록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되어 더 알찬 정보가 된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네요. 소개 및 질문 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p>	<p>객석용 무선 마이크 2대</p>
----------------------	--	--	----------------------------------

시상식	15:25 ~ 15:50 ('25)	<p>다음 순서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창의적 뜻풀이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중 대표자분들은 좌석에서 일어나 무대 우측 아래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p> <p>시상식에 관하여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상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진촬영 및 꽃다발 전달은 시상식을 모두 마친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나 꽃다발 전달을 위해 시상식 중간에 무대나 무대 앞으로 나오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p>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포상순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단체상 순입니다. 시상은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수상자 3분도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p> <p><i>(원장님 이동) (대상 수상자 3명 무대 위 1줄 횡열로 대기)</i> <i>(테이블 한소정 → 상장받침(상금판+상장) 정수경 → 원장께 상장 전달 국어원 이윤미</i> =====</p> <p>먼저, 장관상인 대상을 수여하겠습니다.</p> <p>수상자는 허성문, 김유나, 성주연입니다. <i>(수상자 중 허성문 대표자가 원장 앞으로 서면)</i></p> <p>장관표창, 대상 허성문, 김유나, 성주연 (번호표 1_허성문) <i>(국립국어원 직원으로부터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낭독)</i></p>	<p>중앙 포디움 철수 상장 놓을 테이블 배치</p> <p>상장(순서대로 구분) 상장받침 상금 보드판</p> <p>(의전 도움 5)</p> <p>수상 위치(포인트 표시)</p>
-----	-------------------------------	--	--

		<div data-bbox="438 364 1090 613" data-label="Text"> <p>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립국어원장 송철의</p> </div> <div data-bbox="438 629 1090 703" data-label="Text"> <p>(대상 낭독이 끝난 후 원장님은 상장을 대상 수상자 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해준다)</p> </div> <div data-bbox="438 756 1090 874" data-label="Text"> <p>대상 수상자와 원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금판을 들고 기념 촬영) (기념 촬영 후)</p> </div> <div data-bbox="438 927 1090 1044" data-label="Text"> <p>대상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목례 후, 내려가서 자리에 착석)</p> </div> <div data-bbox="438 1103 1090 1215" data-label="Text"> <p>=====</p> <p>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윤도흠, 엄선일_대표자 2명 무대 아래 대기)</p> </div> <div data-bbox="438 1268 1090 1470" data-label="Text"> <p>수상자는 윤도흠과 오산원일 초등학교 6학년 5반입니 다. 수상자께서는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2명 무대 위 자리) (먼저, 윤도흠 수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div> <div data-bbox="438 1522 921 1597" data-label="Text"> <p>최우수상, 윤도흠 (번호표 2)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낭독)</p> </div>	<div data-bbox="1129 560 1210 674" data-label="Text"> <p>공식 사진사 촬영</p> </div>
--	--	---	---

		<div data-bbox="439 250 1090 501" data-label="Text"> <p>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립국어원장 송철의</p> </div> <div data-bbox="439 515 1090 589" data-label="Text">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div> <div data-bbox="439 599 1090 674" data-label="Text"> <p>(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div> <div data-bbox="439 727 1090 801" data-label="Text"> <p>최우수상, 오산원일 초등학교 6학년 5반 (번호표 3_엽선일)</p> </div> <div data-bbox="439 811 919 846" data-label="Text"> <p>(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낭독)</p> </div> <div data-bbox="439 862 1090 1113" data-label="Text"> <p>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립국어원장 송철의</p> </div> <div data-bbox="439 1127 1090 1201" data-label="Text">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div> <div data-bbox="439 1254 1090 1328" data-label="Text"> <p>최우수 수상자들과 원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금판을 들고 기념 촬영)</p> </div> <div data-bbox="439 1338 622 1373" data-label="Text"> <p>(기념 촬영 후)</p> </div> <div data-bbox="439 1426 1090 1501" data-label="Text"> <p>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439 1511 933 1546" data-label="Text"> <p>(가볍게 목례 후, 내려가서 자리에 착석)</p> </div> <div data-bbox="439 1599 1090 1662" data-label="Text"> <p>=====</p> <p>===</p> </div> <div data-bbox="439 1677 691 1713" data-label="Text"> <p>다음은 우수상입니다.</p> </div>	
--	--	---	--

	<p>(김정열, 박두환, 김유빈, 윤태원 4명 무대 아래 대기)</p> <p>수상자는 김정열, 박두환, 김유빈, 윤태원 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님은 부모님이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수상자 4명 무대 위 자리→ 2행 2열) (먼저, 수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우수상, 김정열 (번호표 4)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낭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립국어원장 송철의</p> </div>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 (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우수상, 박두환 (번호표 5)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 (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우수상, 김유빈 (번호표 6) * 개인 사정상 불참으로 부모님이 대리 수상 *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	---	--

	<p>(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우수상, 윤태원 (번호표 7)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p>그럼, 우수 수상자들과 원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금판을 들고 기념 촬영) (기념 촬영 후)</p> <p>우수상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목례 후, 내려가서 자리에 착석)</p> <p>=====</p> <p>다음은 장려상입니다. (김순모, 이상실, 유가은_대표자, 원희상_대표자, 신영숙_대표자 5명 무대 아래 대기)</p> <p>장려상 수상자 중 대표자 1인씩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5명 무대 위 자리 → 2행 3열) (먼저, 김순모 수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장려상, 김순모 (번호표 8)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낭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립국어원장 송철의</p> </div>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	--	--

		<p>달)</p> <p>(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장려상, 이상실 (번호표 9)</p> <p>(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p>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p>(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장려상, 유가은, 장희정, 이해진, 강정연, 김혜정 (번호표 10_유가은)</p> <p>(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p>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p>(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장려상, 원희상, 오정민, 표재희 (번호표 11_원희상)</p> <p>(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p>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p>(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장려상, 신영숙, 이순이 (번호표 12_신영숙)</p> <p>(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p>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	--	---	--

	<p>장려상 수상자들과 원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금판을 들고 기념 촬영) (기념 촬영 후)</p> <p>장려상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목례 후, 내려가서 자리에 착석)</p> <p>=====</p> <p>다음은 단체상입니다. (각 대표자 2명 이수미, 조옥현 무대 아래 대기)</p> <p>수상자는 장파초등학교 독서논술부, 아름고등학교 박민석 외 10명 입니다. 수상자분들 중 대표자께서는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대표자 2명 무대 위 자리) (먼저, 아름고등학교 이수미 대표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단체상, 아름고등학교 박민석, 박시현, 심현석, 윤여진, 이다인, 임준영, 장진호, 전성아, 한예림, 홍효림, 이수미 (번호표 13_이수미) (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 낭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립국어원장 송철의</p> </div>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 (수상자 물러나 제자리로 가고, 다음 시상자가 장관 앞으로 서면)</p> <p>단체상, 장파초등학교 독서논술부 (번호표 14_조옥</p>	
--	---	--

		<p>현)</p> <p>(원장께서 상장 건네받아 펼치면)</p> <p>이하내용은 같습니다.</p> <p>(원장께서 상장을 수상자에게 전달하고, 상금판을 전달)</p> <p>그럼, 단체상 수상자들과 원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장과 상금판을 들고 기념 촬영)(기념 촬영 후)</p> <p>단체상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p> <p>(가볍게 목례 후, 내려가서 자리에 착석)</p> <p>시상식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국어사전 진흥공모전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폐회	15:50	<p>이상으로,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지요? 창의적 뜻풀이 전시회는 이 곳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4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천천히 관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0월 9일 한글날에는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도 야외 전시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순서 PPT (2016 한글 문화 큰잔치 전시회 안내)</p>

수행 기관 (주)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연구 책임자 전상훈

공동 연구원 고영무, 박지훈, 김봉구, 박진은

연구 보조원 윤은지, 유예니, 구교인, 한소정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6년 12월 10일

발행일: 2016년 12월 10일

인 쇄: (주)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6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홍보'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